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연구보고 14-R19-2

IN

Y

P

II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책임연구원

김지영

공동연구원

전영실 박성훈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

- ▶ 책임연구원 : 김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전영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박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 조아미(명지대학교 교수)
협력 연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영 연구위원	전영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 간 사 ■ ■ ■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학업성취 경쟁에 쏠려 있으며 교육정책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대학에 가는 청소년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쏟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 학교 부적응으로 정규학교에서의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유래 없이 높은 교육열로 인해 한국의 중,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낮다고 여기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오지 못했고 이들을 문제거리, 골칫거리로 이해해왔습니다.

본 원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교육적 소외집단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왜 학교를 그만두었고, 이후 어떠한 생활모습으로 살아가는 지를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한국사회가 학업중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중단예방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존재형태와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경로로 이행해가고 있는지, 학업중단 청소년의 다양한 삶의 유형을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학교를 떠난 후 공적 지원체계에서 멀어지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고 지원할 것인 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연구는 조사대상자 접근 자체가 어렵고 대상의 변동성이 커 조사를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00명의 대규모 표본을 확보하여 3년간의 종단조사를 실시하고 본원 연구진과 협동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또한 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무부와 보호관찰소 관계 공무원 및 한국리서치 등 모든 관계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혁

국 문 초 록

본 보고서는 비행 학업중단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들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 이를 토대로 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중단연구중 2차년도 연구이다.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난후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심리, 문제 행동 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조사하여 이를 전년도와 비교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1차년도 조사대상자였던 패널 220명 중에 올해 보호관찰중인 189명을 접촉하여 이중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186명으로부터 설문을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은 1차년도 대상자였던 12명 중 10명의 청소년과 예비조사 대상자인 4명의 청소년, 보호관찰관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비행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재복교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설문조사도 대부분의 청소년이 여전히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0.8% 정도만 복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9%는 학업을 재중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난 일년간 아르바이트나 취업해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고, 검정고시를 경험했다는 대상자들도 많았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을 위해 보내는 시간보다는 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업중단 이후 필요한 정보로는 직업에 관한 정보 및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로 조사되었다. 심리적 측면에서 1차년도와 비교해 볼 때 2차년도의 결과는 수치상으로는 변화가 크지 않거나 다소 나아지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보호관찰소 및 법원에 의해 처분을 받은 범죄유형을 살펴본 결과, 1차년도와 비교해 폭력범죄 및 교통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절도범죄 및 강도범죄, 약물범죄 등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및 보호관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절반이상이 지난 1년 동안 담당보호관찰관이 바뀌었다고 응답하였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교체는 1년 동안 평균 2회 정도로 나타났다.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으며, 1차년도와 비교해도 보호관찰관과의 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검정고시 교육비 지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만족도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관계능력을 함양할 기회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여 어른과의 관계 뿐 아니라 또래집단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2차년도에서도 학업중단시 학업숙려제를 비롯해 학업중단 이후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학업중단을 막지 못할 경우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비행학업중단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들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 이를 토대로 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종단연구 중 2차년도 연구이다. 1차년도는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한 것에 이어 2차년 연구인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난 후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심리, 문제 행동 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조사하여 이를 전년도와 비교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소년보호관찰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고찰하고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1차년도 조사대상자였던 패널 220명 중에 올해 보호관찰중인 189명을 접촉하여 이중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186명으로부터 설문을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은 1차년도 대상자였던 12명중 10명의 청소년과 예비조사 대상자인 4명의 청소년, 보호관찰관 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조사대상 보호관찰소는 작년 총 11개 보호관찰소에서 대상자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3개의 보호관찰소가 증가하여 14개의 보호관찰소로 늘어났다. 설문지중 범죄경력사항이나 해당 청소년에 대한 평가는 별지로 구성하여 보호관찰관이 기재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1개월 보름 동안 진행이 되었으며, 수거된 설문지는 리서치회사로 보내어 자료처리를 하였다.
- 예비심층면접조사는 설문지를 보완하고 정책적 제안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실시되었으며 심층면접조사 자체는 양적자료를 보완하고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의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면접은 보호관찰소내에 위치한 상담실에서 실시하였는데, 보호관찰관과의 면접은 집단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청소년과의 면접은 연구진 1명이 청소년 1명씩을 직접 만나서 진행하였다.

3. 주요결과

1)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진로지도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이다. 물론 이들 프로그램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진로지도 프로그램에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복교주선, 검정고시지원 등이 포함된다. 복교주선의 경우 2012년에 1,826건에서 2013년에는 1,959건,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1,866건이다. 즉 최근 3년간을 보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에 대해 매년 2,000건 가량의 복교주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직업훈련의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며, 직업훈련 후 공단에서 취업알선을 도와주고 있으며 2012년 210건, 2013년 185건,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196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취업알선은 2012년에 54건에서 2013년에는 112건, 2014년 8월 기준 100건이 이루어졌다. 2014년의 경우 검정고시 응시자는 총 3,134명이었으며, 이 중 고입검정고시 응시자는 892명(28.5%),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는 2,242명(71.5%)이었다. 즉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응시자의 합격률을 보면, 전과목 합격은 고입 검정고시와 고졸 검정고시 각각 437명(49.0%), 724명(32.3%)이었다. 즉 전과목 합격자 비율은 응시자 중 절반이 되지 않으며, 특히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비율은 30%를 조금 상회하였다.
- 멘토링은 멘토와 대상 청소년이 1달에 1회 이상을 만나도록 하고, 멘토로 하여금 만남에 대한 보고서를 보호관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관찰관이 청소년중 멘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멘토와 결연을 맺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2014년 8월 말을 기준으로 교사·대학생·청소년상담사 등 2,972명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32,980명 중 8,460명(25.7%)에 대해 1:1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각 보호관찰소 위탁기관에 따라 구체적인 진행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북부보호관찰소에서는 2013년도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위탁하여 보호관찰 청소년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더 가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가족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 보호자 입장에서 자녀의 범죄원인이 가족간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청소년 입장에서는 자아정체성 강화와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 인지, 공동체 의식 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2013년을 기준으로 가족회복프로그램이 진행된 횟수는 8건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 비행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재복교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설문조사도 대부분의 청소년이 여전히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0.8% 정도만 복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9%는 학업을 재중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지난 일년간 아르바이트나 취업해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고, 검정고시에 응시했다는 응답도 높은 편이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을 위해 보내는 시간보다는 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학업중단 이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돌아다니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취미·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직업기술 교육, 대안학교와 같은 긍정적 활동에 참여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 학업이나 진로탐색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학업이나 진로탐색을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경로는 인터넷이며, 교육·복지·고용관련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학업중단 이후 필요한 정보로는 직업에 관한 정보 및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로 조사되었다.
- 지난 1년 동안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일상생활 및 생애사건의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동성친구나 이성친구 혹은 선후배와 거주한다는 응답이 1차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자신이나 가족에게 발생한 사건 중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아졌다는 점,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점,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점, 시설이나 기관에서 생활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혹은 정신적 학대를 받은 비율은 1차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애착의 경우 1차년도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

- 심리적 측면에서 1차년도와 비교해 볼 때 2차년도의 결과는 수치상으로는 변화가 크지 않거나 다소 나아지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반면, 자아탄력성이나 자아행복감,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은 더 나빠지지도 더 좋아지지도 않은 채 1차년도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이 심리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리적 요인과 관련하여 2차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학력에 대한 생각이나 자립 등이 일반학업중단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일수록 학력이 중시되는 풍조 속에서 학업중단을 미래의 불안요소로 인식하고 있고, 행동과는 별개로 저축, 돈 관리 등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은 편인 것 같다.
- 지난 1년 동안 문제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빼앗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공공장소의 기물 파손 등의 행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차년도와 비교해 흡연과 음주, 도박 등의 지위비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심한 문제행동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행동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심각한 비행의 감소가 자기보고식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소-보고(under-report)의 경향으로 인한 효과일수도 있다는 점은 조심스럽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자기보고식 조사에 나타난 문제행동과는 별개로 보호관찰소 및 법원에 의해 처분을 받은 범죄유형을 살펴본 결과, 1차년도와 비교해 폭력범죄 및 교통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절도범죄 및 강도범죄, 약물범죄 등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범죄로 인해 받게 된 처분으로는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장기보호관찰’이 가장 많았고, 기타 처분의 내용으로는 ‘소년부 송치’,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가처분으로는 ‘야간의출제한명령’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1차년도와 다르게 ‘재범위험 행위제한’도 일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부가처분으로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검정고시 등 보호관찰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이 언급되었다.
-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및 보호관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절반이상이 지난 1년 동안 담당보호관찰관이 바뀌었다고 응답하였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교체는 지난 1년 동안 평균 2회 정도로 나타났다.
-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으며, 1차년도와 비교해도 보호관찰관과의

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청소년에 대한 평가에서는 ‘약속시간준수’와 ‘전화연락응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보호관찰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검정고시 교육비 지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만족도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습·진로지도’ 및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에 대한 이용경험도 높은 편이며, 이에 대한 만족도도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나, 실제 이용이나 만족도와는 별개로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경제적 필요의 충족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가정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므로 재원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겠다.

3) 심층면접에 나타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변화

- 비행청소년이 일단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상당수는 기존의 교육체계 내에 재진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진입을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심층면접을 통해 볼 때, 이들의 비행전력과 공격적인 행동은 교사나 동급생과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스스로도 나이 어린 동급생과 한 학년에서 배우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입장에서 교사는 자신들을 통제가 불가능한 골칫덩어리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급생들도 자신들을 이질적인 존재로 바라본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른 한편 규율이 느슨하고 학업부담이 적은 특성화 고교로 복교한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에 복교한 학생들보다 학교적응력과 만족도가 높았다.
- 보호관찰소는 검정고시지원, 상담프로그램, 직업기술훈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담당 보호관찰관의 성실성과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보들이 제공될 수도 있고,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끝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이들에게 보다 적절하고 풍부한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관심, 심층적인 진로선택 상담이 필요하다.
-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적 변화의 주요 원인은 보호관찰효과와 연령효과라고 볼 수 있다. 나이가 들에 따라 부모의 간섭도 덜해지고 스스로 시도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 비행이 억제됨으로써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상황을 피하게 되어 평온을 되찾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나 시도가 청소년과 가족 간의 거리를 확보해 줌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감소시켰다고도 말할 수 있다.

- 비행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 보호관찰관의 교체에 대해 불만이 높았다. 심층면접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불만 때문에 바뀐 것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례에서 선생님이 바뀌면 반복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다시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 학교를 중심으로 신속한 조기 개입을 위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주 결석을 하거나 이전에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으면서 복귀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 관련 기관, 보호관찰소 등에 적극적으로 알려 재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주로 학교내 상담교사나 지역내 상담센터에 보내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서나 보호관찰소를 통한 협조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관계능력을 함양할 기회를 가질 기회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여 어른과의 관계 뿐 아니라 또래집단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다가 이제는 사회적응에 성공한 이전의 학업중단청소년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인관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심층면접과정에서 캠프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부모관계가 좋아진 사례도 있어 멘토링 프로그램이 어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또래집단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 조사 결과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2차년도에서도 학업중단시 학업숙려제를 비롯해 학업중단 이후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학업중단을 막지 못할 경우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상당수가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 중에는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어

오히려 사회에 대한 불신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창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한 소녀는 쉽터에 머물면서 자신이 종이접기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이 소녀는 그런 자격증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고 한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져 형사사법기관과 접촉한 후에야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그만두는 단계에서 다양한 진로·직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공백기를 없애기 위한 맞춤형 계획이 필요하다. 비행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성향은 유사한 면도 있으나 개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를 겸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잘 드러났다.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이 빈곤과 방임 등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떤 청소년의 경우, 결정적인 걸림돌은 가난이고 다른 청소년의 경우는 심리적 질환일 수도 있다. 때문에 지원이 어떤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질지, 각각의 대상자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관한 면밀한 조사와 관찰이 필요하다. 정규학교,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학교 등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들에서는 청소년에 관한 자료들이 서로 공유되고, 추적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이러한 자료 공유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 예컨대 보호관찰소에 있다가 소년원에 입소후, 다시 보호관찰소로 돌아오는 청소년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요청하지 않는한, 제반 자료들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정규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학업을 중단할 때부터 학업중단 이후의 학업계획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을 연계시켜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년원과 같이 시설에 수용된 이후 퇴소하는 청소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학업과 장래계획을 전적으로 가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적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이 적절한 다른 기관에 연계해줄 필요가 있다. 때문에 사법기관내에서만이라도 자동적으로 자료들이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각 기관내에서 청소년을 집중 상담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개인의 욕구와 성향을 파악하여 학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 장기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고위험군 청소년에 해당하는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센터’나 ‘학교’가 설립될 필요가 있겠다. 현실적으로 비행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돌아갈 수 있는 학교는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고등학교와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학교의 수업 내용, 운영체계가 학업을 중단했던 비행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복교를 하더라도 재중단하거나 아예 입학이 어렵거나, 졸업장 이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학교를 그냥 다니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비행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인내심이 부족하고 학업이 뒤쳐진 경우가 많으며 가정환경도 뒷받침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들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대안학교와 대안기관들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4
3. 연구내용	5
4. 연구방법	6
II.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19
1.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국내 프로그램	19
2.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국외 프로그램	26
III.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31
1. 조사대상자의 특성	31
2. 학업중단 지속 및 변화	32
3. 학업중단 이후 경험 및 인식의 변화	43
4. 학업중단 이후 생활환경의 변화	71
5.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적 변화	85
6.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문제행동 변화	97
7.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및 인식	108
8. 소결	117
VI. 심층면접에 나타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변화	123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23
2. 학업중단 지속여부	125
3. 일상생활의 변화	140
4. 심리적 변화	153

5. 문제행동과 피해경험	157
6.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163
7. 소결	173
V. 요약 및 결론	179
1. 요약	179
2. 결론	183
참고문헌	191
부 록	197
Abstract	237

표 목차

〈표 I-1〉 보호관찰소별 패널현황	8
〈표 I-2〉 설문조사영역 및 주요 내용	10
〈표 II-1〉 보호관찰 대상자 연령별 교육정도 현황(2012)	20
〈표 II-2〉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진로지도 현황	21
〈표 II-3〉 2014년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자 세부현황	22
〈표 II-4〉 최근 3년간 검정고시 합격률('12년 ~ '14년)	22
〈표 II-5〉 검정고시 준비 형태에 따른 합격 현황	23
〈표 III-1〉 조사대상자의 특성	31
〈표 III-2〉 복교경험 여부	33
〈표 III-3〉 학업중단 지속 여부 및 복교경험	34
〈표 III-4〉 지난 조사후 복교학교 유형	35
〈표 III-5〉 학업 재중단 경험	37
〈표 III-6〉 학업 재중단 이유	38
〈표 III-7〉 학업 재중단시 상담자(복수 응답)	39
〈표 III-8〉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40
〈표 III-9〉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40
〈표 III-10〉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41
〈표 III-11〉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 시설	41
〈표 III-12〉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	42
〈표 III-13〉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설명	42
〈표 III-14〉 학업중단 숙려제 이용 경험 여부	43
〈표 III-15〉 대안학교에 다님	43
〈표 III-16〉 검정고시 공부를 함	44
〈표 III-17〉 대학입시 관련(2차 추가)	44
〈표 III-18〉 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45
〈표 III-19〉 직업기술을 배움	45

〈표 Ⅲ-20〉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46
〈표 Ⅲ-21〉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47
〈표 Ⅲ-22〉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47
〈표 Ⅲ-23〉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48
〈표 Ⅲ-24〉 가출하여 친구 집이나 PC방에서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48
〈표 Ⅲ-25〉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 쉼터 등)에서 지냄	49
〈표 Ⅲ-26〉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49
〈표 Ⅲ-27〉 소년원학교에서 생활함(2차추가)	50
〈표 Ⅲ-28〉 학업중단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의 수	50
〈표 Ⅲ-29〉 학업중단 이후 진로 상담자(복수 응답)	51
〈표 Ⅲ-30〉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52
〈표 Ⅲ-31〉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52
〈표 Ⅲ-32〉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53
〈표 Ⅲ-33〉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2차 추가)	53
〈표 Ⅲ-34〉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문항(2차 추가)	54
〈표 Ⅲ-35〉 여가시간, 방과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 본적이 있다. (2차 추가)	54
〈표 Ⅲ-36〉 여가시간, 방과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 본적이 있다. 문항(2차 추가)	54
〈표 Ⅲ-37〉 진로관련 정보(2차 추가)	55
〈표 Ⅲ-38〉 진로에 대한 불안	56
〈표 Ⅲ-39〉 경제적 어려움	57
〈표 Ⅲ-40〉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다님	58
〈표 Ⅲ-41〉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평균시간	59

〈표 Ⅲ-42〉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하여 일함	59
〈표 Ⅲ-43〉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면서 지내는 평균시간	60
〈표 Ⅲ-44〉 숙제, 시험 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한 개인공부	60
〈표 Ⅲ-45〉 숙제, 시험 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평균시간	61
〈표 Ⅲ-46〉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냄	61
〈표 Ⅲ-47〉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평균시간	62
〈표 Ⅲ-48〉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을 다님	62
〈표 Ⅲ-49〉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할애하는 평균 시간	63
〈표 Ⅲ-50〉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놀러 다님	63
〈표 Ⅲ-51〉 내가 하루 중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평균시간	64
〈표 Ⅲ-52〉 최근 일주일 동안 2번 이하 아침식사를 함	64
〈표 Ⅲ-53〉 최근 일주일 동안 2번 이하 점심식사를 함	65
〈표 Ⅲ-54〉 최근 일주일 동안 2번 이하 저녁식사를 함	65
〈표 Ⅲ-55〉 최근 7일 동안 나는 라면이나 컵라면을 3회 이상 먹었다.	66
〈표 Ⅲ-56〉 동아리, 인터넷카페 활동 참여(2차조사)	66
〈표 Ⅲ-57〉 동아리, 인터넷카페 참여 이유와 종류	67
〈표 Ⅲ-58〉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68
〈표 Ⅲ-59〉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68
〈표 Ⅲ-60〉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였)다.	69
〈표 Ⅲ-61〉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	69
〈표 Ⅲ-62〉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	70
〈표 Ⅲ-63〉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	70
〈표 Ⅲ-64〉 부모 애착	71
〈표 Ⅲ-65〉 부모 애착 문항	72
〈표 Ⅲ-66〉 부모의 방임	72
〈표 Ⅲ-67〉 부모의 방임 문항	73

〈표 Ⅲ-68〉 신체적 학대	73
〈표 Ⅲ-69〉 신체적 학대 문항	74
〈표 Ⅲ-70〉 정서적 학대 문항	74
〈표 Ⅲ-71〉 친구의 수	75
〈표 Ⅲ-72〉 또래 애착	76
〈표 Ⅲ-73〉 또래 애착 문항	76
〈표 Ⅲ-74〉 친구 비행성향	77
〈표 Ⅲ-75〉 친구 비행성향 문항	77
〈표 Ⅲ-76〉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복수 응답)	78
〈표 Ⅲ-77〉 발생 사건(복수 응답)	79
〈표 Ⅲ-78〉 가정 경제 수준	79
〈표 Ⅲ-79〉 또래 친구들과 비교할 때 자신의 건강상태(2차 추가)	80
〈표 Ⅲ-80〉 또래 친구들과 비교할 때 자신의 건강상태 문항(2차 추가)	80
〈표 Ⅲ-81〉 지역사회 유대	80
〈표 Ⅲ-82〉 지역사회 유대 문항	81
〈표 Ⅲ-83〉 비공식 통제	81
〈표 Ⅲ-84〉 비공식 통제 문항	82
〈표 Ⅲ-85〉 물리적 무질서	82
〈표 Ⅲ-86〉 물리적 무질서 문항	83
〈표 Ⅲ-87〉 사회적 무질서	83
〈표 Ⅲ-88〉 사회적 무질서 문항	84
〈표 Ⅲ-89〉 지역사회 유익환경	84
〈표 Ⅲ-90〉 지역사회 유익환경 문항	84
〈표 Ⅲ-91〉 자아존중감	85
〈표 Ⅲ-92〉 자아존중감 문항	86
〈표 Ⅲ-93〉 자아탄력성	86

〈표 Ⅲ-94〉 자아탄력성 문항	87
〈표 Ⅲ-95〉 자아행복감(2차 추가)	87
〈표 Ⅲ-96〉 자아행복감 문항(2차 추가)	88
〈표 Ⅲ-97〉 우울감	88
〈표 Ⅲ-98〉 우울감 문항	89
〈표 Ⅲ-99〉 충동성	89
〈표 Ⅲ-100〉 충동성 문항	90
〈표 Ⅲ-101〉 게임중독성	90
〈표 Ⅲ-102〉 게임중독성 문항	91
〈표 Ⅲ-103〉 스마트폰 중독(2차 추가)	92
〈표 Ⅲ-104〉 스마트폰 중독 문항(2차 추가)	92
〈표 Ⅲ-105〉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93
〈표 Ⅲ-106〉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문항	93
〈표 Ⅲ-107〉 학력에 대한 생각(2차 추가)	94
〈표 Ⅲ-108〉 학력에 대한 생각 문항(2차 추가)	94
〈표 Ⅲ-109〉 사회적 낙인(2차 추가)	95
〈표 Ⅲ-110〉 사회적 낙인 문항(2차 추가)	95
〈표 Ⅲ-111〉 자립에 필요한 항목(2차 추가)	96
〈표 Ⅲ-112〉 자립에 필요한 항목 문항(2차 추가)	96
〈표 Ⅲ-113〉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97
〈표 Ⅲ-114〉 성적인 놀림 당하기	98
〈표 Ⅲ-115〉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98
〈표 Ⅲ-116〉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	99
〈표 Ⅲ-117〉 심하게 얻어맞기(폭행)	99
〈표 Ⅲ-118〉 성폭력 당하기	100
〈표 Ⅲ-119〉 담배 피우기	101

〈표 Ⅲ-120〉 술 마시기	101
〈표 Ⅲ-121〉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102
〈표 Ⅲ-122〉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102
〈표 Ⅲ-123〉 남의 돈이나 물건 빼앗기(뺑 뜯기)	103
〈표 Ⅲ-124〉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 보기	103
〈표 Ⅲ-125〉 돈내기 · 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104
〈표 Ⅲ-126〉 자살 시도	104
〈표 Ⅲ-127〉 공공장소의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105
〈표 Ⅲ-128〉 약물(본드)흡입	105
〈표 Ⅲ-129〉 SNS에서의 피해 정도(2차 추가)	106
〈표 Ⅲ-130〉 SNS에서의 피해 정도 문항(2차 추가)	106
〈표 Ⅲ-131〉 SNS에서의 가해 정도(2차 추가)	107
〈표 Ⅲ-132〉 SNS에서의 가해 정도 문항(2차 추가)	107
〈표 Ⅲ-133〉 공식기록상의 범죄 유형(복수 응답)	108
〈표 Ⅲ-134〉 범죄의 처분 내용(복수 응답)	109
〈표 Ⅲ-135〉 부가적으로 받은 처분(복수 응답)	109
〈표 Ⅲ-136〉 보호관찰관의 의견	110
〈표 Ⅲ-137〉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 여부	111
〈표 Ⅲ-138〉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 횟수	111
〈표 Ⅲ-139〉 나의 문제점 파악에 노력하신다	112
〈표 Ⅲ-140〉 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려고 하신다	112
〈표 Ⅲ-141〉 나를 잘 도와주신다	113
〈표 Ⅲ-142〉 나의 문제를 의논한다	113
〈표 Ⅲ-143〉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 이용 여부(복수 응답)	114
〈표 Ⅲ-144〉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에 대한 만족도(2차 조사)	115
〈표 Ⅳ-1〉 조사대상자의 특성	124
〈표 Ⅳ-2〉 전문가 특성	124

그림 목차

【그림 Ⅲ-1】 현재 학업상태	33
【그림 Ⅲ-2】 지난 조사후 학교 복귀 이유	35
【그림 Ⅲ-3】 지난 조사 후 종전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	36
【그림 Ⅲ-4】 복학 후 학교생활 만족	36
【그림 Ⅲ-5】 향후 진로계획	58
【그림 Ⅲ-6】 지원받고 싶은 프로그램	116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키는 것뿐 아니라 보호요인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중요한 보호요인은 가족과 학교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볼 때 비행청소년중 학업중단 청소년은 중요한 보호요인중 하나인 학교요인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재비행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비행 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학교라는 공식 기관을 통해 파악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이들에 대한 긍정적 지원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비행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해서는 체계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 및 이를 토대로 한 대책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비행청소년 중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재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즉,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 가족적,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3개년 연구 중 2년차 연구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을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시설 내 수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 이 장의 1절은 전영실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집필하고 2절, 3절, 4절은 김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있다. 특히 2차년도에는 이들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고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특성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전년도와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즉 이들의 가정, 친구, 일상활동 특성 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학업중단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지난 1년간 문제행동과 비행의 증감에 관한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비행 학업중단청소년이 보호관찰에서 받은 지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여부 및 만족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넷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과 이들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추진체계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은 전년도에서도 조사대상이 되었던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패널로 한정된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작성되었다. 첫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협의 과정을 통해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모두에게 실시하는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공통문항은 주로 학업중단실태 및 일상생활과 심리적 변화에 관해 질문하는 것으로, 분석은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의 변화양상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둔다. 설문구성을 위한 협의과정은 각 기관이 사전에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한 서로의 아이디어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교환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설문문항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추가하였다. 추가설문은 지난 일 년간 추가된 처분 및 드러난 여죄유무, 보호관찰 담당교사의 대상자에 대한 평가 등을 질문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반 청소년 패널관리와 설문지 전체의 코딩 및 데이터 클리닝 작업은 조사 회사를 통해 진행된다. 설문의 회수와 코딩 오류 점검을 위해 조사회사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고, 오류 점검 후 데이터 클리닝을 하는 최종 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양적 자료가 구축되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설문조사와 더불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전년도 대상자 12명중 10명을 면접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경험과 변화양상을 파악하였다. 심층면접내용은 양적 자료를 보완하면서 전체적으로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의 생활실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대책을 도출하는데 쓰였다.

3. 연구내용

1)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정책에 관한 분석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는 국내와 국외의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고찰하고자 한다.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은 작년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 고찰되었다. 때문에 올해 보고서에서는 이론적 측면이나 학문적 논의보다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중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에 유용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을 고찰한 내용은 설문분석, 심층면접분석과 더불어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2) 2차년도 학업중단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조사패널 유지 및 관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이들의 변화 과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들의 학업중단지속여부는 물론이고, 일차년도에서도 조사된 일상생활과 심리적 특성 등에 관해 조사하여 작년과 올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는 재비행 여부와 보호관찰에 대한 인식, 보호관찰 담당선생님의 대상자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 및 부적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 2차년도 학업중단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실시

심층면접 조사대상자였던 12명 중 10명에 대해 2차년도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심층면접결과는 설문결과를 보충·보완하는 자료이자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대안제시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의 내용과 유사하다. 즉 학업중단지속여부, 지난 일 년간의 생활변화, 심리적 변화, 보호관찰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4) 학업중단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국내외 프로그램 현황분석, 설문조사결과분석, 심층면접조사결과 분석을 아울러 학업중단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년차 연구인 점을 감안하면 마지막 년도에 이르러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으므로 2년차인 본보고서에서는 올해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한 대책만 제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지난 일 년 간 청소년들이 경험한 복교와 재중단 경험, 생활경험사를 바탕으로 이들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내외의 보호관찰관련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의 문헌을 고찰하고 국내 자료는 보호관찰관들의 자문과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수집하였다.

2) 심층면접

심층면접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진행되었다. 먼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2차년도에

필요한 추가설문을 위한 예비조사의 일환 및 학업중단이후 청소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청소년 4명과 보호관찰관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심층면접조사는 본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관을 제외하고 보호관찰과에서 연계해준 경기도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조사일정 관계상 5월 21일 하루 동안에 실시되었으며 두 명의 연구진이 각각 두 명의 청소년을 순차적으로 면접하였으며 보호관찰관 2명의 면접은 집단으로 실시되었다.

본조사의 심층면접은 1차년도 대상자였던 12명중 10명의 청소년만 가능하였다. 2명의 청소년 중 1명은 기간 종료된 상태였으며 1명은 학교에 복교하여 보호자와 본인이 면접을 꺼려하여 제외되었다. 심층면접은 7월 1일에서 7월 31일 사이에 기관의 협조를 얻어 보호관찰소안에 위치한 상담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연구진 1명이 질문하고 연구보조원 1명이 옆에서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접내용은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기록하는 동시에 녹음되었다.

3)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차년도 설문조사

(1)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2013년, 1차년도 패널조사에 참여한 220명을 법무부에 의뢰하여 추적한 결과, 총 189명의 청소년들이 보호관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면접이후 31명의 청소년들이 구치소·소년원·교도소 수용, 군입대, 지명수배,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접촉이 불가능하였고, 이 가운데, 조사 착수시의 착오로 인해 기간 종료된 청소년도 있었다. 31명의 대상자중 기간 종료된 대상자와 소년원 대상자들은 리서치 회사와 법무부를 통해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2014년 8월까지 1차로 186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2014년 12월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한 최종 설문부수는 총 210명이다.

표 I-1 보호관찰소별 패널현황

보호 관찰소	1차년도 참여패널	법무부 사전확인 패널	최종 분석 인원	최종 조사완료 인원
인천	21	19	18	21
대전	24	21	22	22
전주	15	14	15	15
의정부	21	19	18	20
광주	22	18	20	21
부산	15	14	14	15
영동	1	1	1	1
대구	18	10	13	16
서울동부	30	27	20	27
서울남부	18	15	15	17
서울북부	2	1	1	2
서울	13	10	10	13
수원	19	19	18	19
성남	1	1	1	1
총계	220	189	186	210

조사의 진행과정은 연구진이 해당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설문조사의 취지 및 진행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설문지와 답례품을 전달한 후, 담당 보호관찰관이 해당 청소년에게 설문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과정에서 해당 청소년이 부담을 덜 느끼면서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작성은 보호관찰관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설문을 마치면 응답자가 설문지를 봉투에 넣고 직접 밀봉을 하도록 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이 응답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였다. 설문지중 범죄경력사항이나 해당 청소년에 대한 평가는 [별지]로 구성하여 보호관찰관이 기재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14년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1개월 보름 동안 1차로 진행이 되었으며, 수거된 설문지는 리서치회사로 보내어 자료처리를 하였다. 이후 2014년 12월까지 추가조사를 진행하여 최종 조사를 완료하였다.

(2) 조사내용

설문지 구성을 보면 학업중단관련 실태,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학업중단이후 경험과 인식, 일상생활 및 가치관, 생애사건경험, 배경문항, 보호관찰별지의 8개 대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보호관찰별지를 제외한 모든 문항은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공통된다. 예컨대 학업중단이후 경험과 인식에 포함된 보호관찰 경험도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에서 보호관찰을 받은 학생이 나올 수 있으므로 비행학업중단 청소년과 동일하게 질문하였다. 먼저 학업중단관련실태 영역에서는 현재의 신분상태, 복교관련실태, 학업중단실태, 학업중단시 지원실태, 최초 학업중단시 학교와 최초학업중단시의 하고 싶었던 일 등을 질문하는 최초 학업중단시 회고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둘째, 개인적 심리특성은 심리정서 상태에 관한 질문, 문제행동의 경험을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환경적 특성은 학교 및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은 삭제되었으며, 부모관계, 친구관계, 지역사회에 관한 질문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넷째, 학업중단이후 경험과 인식은 학업중단이후 주거 및 비행경험, 보호관찰경험, 아르바이트, 사회관계, 동아리인터넷 카페참여, 진로계획,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일상생활 및 가치관에는 하루일과시간, 식생활 등을 질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섯째, 생애사건경험은 1차년도에 이미 중요 생애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므로 전학에 관한 내용만 질문하였다. 일곱 번째, 배경문항은 지난 일 년 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구성과 부모의 결혼상태 등과 건강상태, 장래희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여덟 번째 영역인 보호관찰별지는 지난 일 년간 추가로 드러난 여죄여부 및 추가처분여부, 부가처분여부, 보호관찰 이행의 성실성 등을 질문하였는데, 별지는 보호관찰관이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 I-2 설문조사영역 및 주요 내용

대영역	세부 영역	조사내용	문항 분류*	1차 문항번호		2차 문항번호		출처	조사 연도
				A형	B형	A형	B형		
학업 중단 관련 실태	현재 신분상태	중단/복교상태	●	1	-	1	1	연구진 작성	수정계속
		졸업자격 취득여부	●	-	-	1-1	1-1	2013년 교육기본통계 고등교육기관 구분 준용·수정	2차 신규 계속
		학사 일정	●	-	-	1-2	1-2		
	복교 관련 실태	복교 경험	●	8	7	2	2	연구진 작성	수정계속
		복교 학교 형태	●	-	-	2-1	2-1	연구진 작성	2차신규계속
		복교 시기	●	-	-	2-2	2-2	윤철경 외(2013) 문5-1 수정	
		학교 복귀 이유	●	8-3	7-3	2-3	2-3	윤철경 외(2013) 문5-3 수정	
		복교 학교 유형	●	8-4	7-4	2-4	2-4	연구진 작성	수정계속
		중전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	●	8-5	7-5	2-5	2-5	연구진 작성	

* ● : A B 공통, □ : A형 설문(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대상, △ : B형 설문(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 사회적 낙인 척도는 Harvey(2001)가 개발한 Stigmatization Scale을 주금옥(2002)이 보완한 10개 문항 그대로 사용함.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희(2010).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SNS 피해· 가해 경험은 이창호 등(2012)이 사용한 소셜 미디어 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피해, 가해 경험 유무 13개 문항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절한 10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함. 이창호, 성문숙, 정낙원(20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의 스마트폰 중독척도 15문항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절한 문항 8개 문항을 선정하여 그대로 사용함. 이창호, 김경희(2013).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진로장애척도는 김은영(2000)이 대학생들 대상으로 개발한 것을 주금옥(2002)이 청소년용으로 수정 개발한 척도로서 원래 9개 43개 문항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로정보 부족' '미래 불안', '경제적 어려움'의 3개 영역 13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함.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희(2010).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복교학교 유형 및 소재지	●	8-6	7-6	2-6	2-6	연구진 작성	2차 신규 계속
	복교 후 학교생활 만족	●	-	-	2-7	2-7	연구진 작성	1차
	최초 학업중단 시점	●	8-1	7-1	-	-	윤철경 외(2013) 문5-1	
	최초 중단 후 복교 소요기간	●	8-2	7-2	-	-	윤철경 외(2013) 문5-2	
학업중단 실태	재중단 경험	●	-	-	3	3	연구진 작성	2차 신규 계속
	재중단 학교유형	●	-	-	3-1	3-1	연구진 작성	
	학업중단 년월	●	3	2	3-2	3-2	윤철경 외(2010) 문6	
	학업중단 이유	●	4	3	3-3	3-3	윤철경 외(2010) 문8 수정	수정계속
	학업중단 시 학년	●	2,2-1	1,1-1	-	-	윤철경 외(2010) 문4-1 수정	
	학업중단 행정처리 형태	●	5	4	-	-	윤철경 외(2013) 문4 수정	1차
학업중단 시 지원 실태	학교성적수준	●	6	5	-	-	윤철경 외(2013) 문10 수정	
	학업중단 횟수	●	7	6	-	-	윤철경 외(2013) 문5	
	학업중단 시 상담자	●	9	8	3-4	3-4	윤철경 외(2010) 문9 수정	수정계속
	학업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	●	10	9	3-5	3-5	민인철 외(2011) 문10 /학업중단속려제 추가	
	학업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	11	10	3-6	3-6	연구진 작성	
	학업중단 속려제 경험	●	14	13	3-7	3-7	윤철경 외(2013) 문8 수정	
	학업중단 속려제의 유용성	●	14-1	13-1	3-8	3-8	윤철경 외(2013) 문8-1 수정	
	학업중단 시 부모님 태도	●	12	12	-	-	연구진 작성	1차
	학업중단 시 선생님 태도	●	13	13	-	-	연구진 작성	

개인적 특성	최초 학업중단 학교	학업중단 시 학교 유형	●	-	4	4	연구진 작성	2차
		학업중단 시 학교 소재지	●	-	5	5	연구진 작성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	●	-	6	6	김영희 외(2013) 수정·보완	2차 신규 계속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	●	-	7	7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실패 이유	●	-	7-1	7-1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성공 이유	●	-	7-2	7-2		
	심리 정서	자아존중감	●	28-1)~5) 24-1)~5)	19-1)~5)	19-1)~5)	최인재 외(2012) 문8	계속
		자아탄력성	●	28-6)~10) 24-6)~10)	19-6)~10)	19-6)~10)	김지경 외(2010) KCYPs 중1패널 1차년도 문19 ㉔, ㉕, ㉖, ㉗, ㉘ 선정	
		생활만족도	●	-	19-11)~3)	19-11)~13)	이종원 외(2013) KCYPs 고1 패널 문13	
		우울	●	29-1)~10) 25-1)~10)	20-1)~10)	20-1)~10)	이경상 외(2011) KCYPs 중1패널 2차년도 문18 ㉙~㉛ 선정	
		충동성	●	29-11)~15) 25-11)~15)	20-10)~15)	20-10)~15)	Grasmick 등(1993) 척도, 이희길(2006)	
		사회적 낙인감**	●	-	31	31	배주미 외(2010) 문항 선정	2차 신규 계속
문제행동가· 피해 경험	문제행동가· 피해 경험	피해경험	●	41 36	33	33	이경상 외(2012) KCYPs 중1패널 3차년도 문23 수정	수정 계속
		문제행동 가해경험	●	42 37	34	34	최인재 외(2012) 문6 수정	계속
		게임중독	●	30 26	21-1	21-1	최인재 외(2012) 문3 ㉜~㉞	
		SNS 관련*** 피해·가해	●	-	21-2	21-2	이창호 외(2012) 수정·보완	2차 신규 계속
		스마트폰 중독****	●	-	21-3	21-3	이창호 외(2013) 수정·보완	

환경적 특성	학교 및 학교 생활	교사관계	●	16-1)~3)	15-1)~3)	-	최인재 외(2012) 문13 ④~⑥	1차
		친구관계	●	16-4)~7)	15-4)~7)	-	최인재 외(2012) 문13 ⑦~⑨	
		학습 부적응 (수업참여)	●	16-8)~10)	15-8)~10)	-	김성식 외(2008) 문36 ①~③ 수정 · 보완	
		훈육적 학교풍토	□	17-1)~2)	-	-	김성식 외(2008) 문10 ③, ④ 수정 · 보완	
	부모 관계	참여적 학교풍토	□	17-3)~4)	-	-	연구진 작성	수정 계속
		학교규범 위반 경험	●	18-1)~7)	16-1)~7)	-	김성식 외(2008) 문9 ①, ②, ③, ⑥, ⑨ 수정 · 보완	
		부모애착(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	●	31-1)~8)	27-1)~8)	22-1)~8)	최인재 외(2012) 문10 ②~⑥, ⑪, ⑫, ⑭ 수정	
		부모의 방임	●	32-1)~5)	28-1)~5)	23-1)~5)	허모연(2000) 방임 선정 · 수정	
	친구 관계	부모의 학대(신체적, 정서적 학대)	●	32-6)~9)	28-6)~9)	23-6)~9)	이경상 외(2012) KOYPS 중1패널 3차년도 문25 ⑤~⑧ 수정	계속
		친한 친구 수	●	33	29	24	이경상 외(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37-1	
		학업종단 후 사귀 친구 수	●	33-1	29-1	24-1	윤철경 외(2013) 문19	
		학업종단한 친구 수	●	33-2	29-2	24-2	연구진 작성	
		도래 애착	●	34-1)~3)	30-1)~3)	25-1)~3)	이경상 외(2012) KOYPS 중1패널 3차년도 문26 ④~⑥ 선정	계속
		친구의 비행성향	●	34-4)~6)	30-4)~6)	25-4)~6)	전영삼 신동준(2012) 문15-4, 15-5, 15-6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	지역 사회	지역사회 사회통합 (세대와 통제)	●	35-1)~4)	31-1)~4)	26-1)~4)	26-1)~4)	김지선·홍영오(2011)	수정 계속
		지역사회 무질서 (물리적, 사회적)	●	35-5)~8)	31-5)~8)	26-5)~8)	26-5)~8)	김지선·홍영오(2011)	
		지역사회 유익 환경	●	35-9)~10)	31-9)~10)	26-9)~10)	26-9)~10)	연구진 작성	
	중단이후 경험	중단 후 경험실태	●	19-1)~9)	17-1)~9)	8-1)~11)	8-1)~11)	윤철경 외(2013) 문17 수정	수정 계속
		중단 후 경험실태(비행)	●	20-1)~4)	18-1)~4)	9-1)~5)	9-1)~5)	윤철경 외(2013) 문18 수정	수정 계속
	보호관찰 경험	검정고시 공부 방법	●	-	-	8-1	8-1	연구진 작성	2차 신규 계속
		보호관찰관의 변경여부	●	-	-	9-1	9-1		2차 신규 계속
		보호관찰관의 변경횟수	●	-	-	9-2	9-2		계속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	-	38	9-3	9-3		계속
		지원프로그램의 이용경험과 만족도	●	-	-	9-4	9-4		2차 신규 계속
	아르바이트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	-	-	9-5	9-5	이경상 외(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25-1 ③, ④번	계속
		아르바이트 경험	●	21	19	10	10	연구진 작성	2차 신규계속
		아르바이트 근로상 지위	●	-	-	10-1	10-1	이경상 외(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25-1 ③, ④번	2차 수정 계속
	사회관계 동아리 인터넷 카페 참여	아르바이트 업종	●	21-1	19-1	10-2	10-2	연구진 작성	수정 계속
		아르바이트 시간	●	21-2	19-2	10-3	10-3		수정 계속
		중단이후 성인 멘토 (만난 아들 유무, 만난 시설)	●	22	20	11	11	윤철경 외(2013) 문20-1 수정	2차 신규 계속
		참여 경험, 이유, 유형	●	-	-	12,12-1,2	12,12-1,2	연구진 작성	계속

진로	진로정보의 탐색	●	23	21	13	13	1차:윤철경 외(2013) 문23 수정 2차: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진로성숙도 검사지 2문항 추가	수정 계속
		●	-	-	14	14	배주미 외(2010) 진로장애척도 수정 · 보완	2차 신규 계속
		●	24	22	15	15	이경상 외(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11-1 수정	계속
		●	25	-	16	16	윤철경 외(2013) 문24	
		●	26	-	17	17	이경상 외(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13	
		●	-	-	32	32	신혜령 외(2008), 배주미 외(2010) 자립지원요구조사 척도 수정 · 보완	2차 신규
	진로 계획	●	27-1)~6)	23-1)~6)	18	18	윤철경 외(2013) 문27 ①, ③, ⑥, ⑧, ⑨ 선정 / 27-5) 연구진 작성	계속
		●	36	32	27	27	이경상 외(2012) KCYPs 중1패널 3차년도 문1 수정, 최인재 외(2012) 문33 참조	수정계속
		●	-	-	27-1	27-1	이종원 외(2013) KCYPs 수정 · 보완	2차 신규 계속
		●	37	33	28	28	최인재 외(2012) 문5, 6, 7, 11 수정	계속
일상 생활 및 가치관	생활 시간	●	38	-	29	29	이경상 외(2007) KCYPs 중2 패널 5차년도 문12 ⑤, ⑥, ⑪ 선정 수정	계속
		●	39	34	30	30	전영실·신동준(2012) 문2 수정 · 보완	
	식생활	●	37	33	28	28	이종원 외(2013) KCYPs 수정 · 보완	계속
		●	38	-	29	29	이경상 외(2007) KCYPs 중2 패널 5차년도 문12 ⑤, ⑥, ⑪ 선정 수정	계속
가치관	가치관	●	39	34	30	30	전영실·신동준(2012) 문2 수정 · 보완	계속
		●	39	34	30	30	전영실·신동준(2012) 문2 수정 · 보완	계속
	가치관	●	39	34	30	30	전영실·신동준(2012) 문2 수정 · 보완	계속
		●	39	34	30	30	전영실·신동준(2012) 문2 수정 · 보완	계속

생애사건 경험	최초무단결석 경험	무단 결석 여부	●	15	14	-		연구진 작성	1차
		최초 결석 시작일	●	15-1	14-1	-			
		최초 결석 이유	●	15-2	14-2	-			
배경 문항	생애사건경험	생애사건 경험	●	40-1)~20)	35-1)~20)	36	36	이경상 외(2005) 중2패널 3차년도 evt. 수정 -20번으로 '이사 등으로 전학' 신규 추가	수정 계속
		가족구성, 부모 결혼상태, 다문화가정 여부, 부모학력, 이사횟수, 가정경제수준,	●	43~48	39~44	35~38	35~38	윤철경 외(2013) A형 문43~48 수정	가족구성, 이사 횟수, 가정경제 수준만 계속
		건강상태	●	-	-	39	39	이종원 외(2013) KCYPs 수정 · 보완	2차 신규 계속
배경 문항	추가범죄와 추가 처분	장래희망	●	-	-	40	40	연구진 작성	2차 신규 계속
		추가여죄 혹은 추가범죄	△	-	-	별지1	별지2	신규	
		추가처분	△	-	-	별지2	별지3		
보호 관찰 별지	부가처분	부가처분	△	-	-	-	별지3	전영실 외(2013) B형 문항 별지 문4 수정	계속
		보호관찰 이행의 성실성	△	-	-	-	별지4	신규	2차 신규 계속

제 II 장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1.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국내 프로그램
2.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국외 프로그램

제 II 장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1.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국내 프로그램

이 연구에서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중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론적 배경에 속하는 제2장에서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법무부 보호관찰과에서 파악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교육정도 현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에서 60%가 재학생이고, 14%가 유예, 26%는 졸업자로 나타났다. 중등학교의 54%가 재학생이고, 37%가 유예, 졸업자는 9%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재학생, 유예, 졸업자의 비율이 각각 58%, 40%, 2%로 초등보다는 중등에서 중등보다는 고등에서 학업중단자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의 총수는 2012년을 기준으로 37,146명으로 나타났다.

* 이 장은 전영실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II-1

보호관찰 대상자 연령별 교육정도 현황(2012)

(단위: 명, %)

학력 연령	불 취 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 학	총계
		재 학	유 예	졸 업	재학	유예	졸업	재학	유예	졸업		
만 10세 (2002년생)		2										2
만 11세 (2001년생)		18	1		4							24
만 12세 (2000년생)		63			35	1						99
만 13세 (1999년생)		59	5		459	75	1	1				603
만 14세 (1998년생)	1	17	6	2	1,800	344	8	62	14			2,255
만 15세 (1997년생)	1	3	3	9	3,152	1,046	73	768	161	2		5,219
만 16세 (1996년생)	2	1	9	11	1,742	1,483	304	3,377	1,356	9	6	8,301
만 17세 (1995년생)	3		8	21	428	1,382	476	4,807	3,257	116	70	10,568
만 18세 (1994년생)	3		5	26	99	1,012	432	3,842	3,937	384	338	10,077
총계	10	163	38	72	7,719	5,343	1,294	12,857	8,725	511	414	37,146

출처: 법무부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1) 진로지도 프로그램 현황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에서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2014년 8월에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도감독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라포를 형성하는 동시에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지도·감독을 하는 이중적 지위에 의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4:22). 보호관찰관은 대상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처우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계획수립 단계에서 대상자의 범죄유발요인을 평가하여 처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4: 46). 이 때 고려되는 범죄유발요인 중 하나는 직업이나 학업, 학교와 관련된 것이다. 학업을 중단한 대상자는 재범 위험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처우계획 수립시 복교의지의 유무와 직업훈련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4: 48-49). 이렇게 볼 때 진로와 관련된 지도나 지원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보호관찰 프로그램은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 보호관찰 프로그램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현황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보호관찰 프로그램 중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복교주선, 검정고시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2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진로지도 현황 (단위: 건)

구분	취업알선	직업훈련	복교주선	검정고시	계
2012년	54	210	1,826	1,082	3,172
2013년	112	185	1,959	1,107	3,363
2014년 8월	100	196	1,866	841	3,003

출처: 법무부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표를 통해서 보면 복교주선의 경우 2012년에 1,826건에서 2013년에는 1,959건,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1,866건이다. 즉 최근 3년간을 보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에 대해 매년 2,000건 가량의 복교주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호관찰 담당자에 의하면, 복교주선은 검정고시 합격자 중 학교복귀를 원하는 청소년에게 권유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원할 경우 보호관찰관이 학교에 찾아가 학교의 협조를 구하기도 한다고 한다. 검정고시는 2012년 1,082건, 2013년 1,107건, 2014년 8월 기준으로 841건이다. 이는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중 희망할 경우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직업훈련은 2012년 210건, 2013년 185건,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196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취업알선은 2012년에 54건에서 2013년에는 112건, 2014년 8월 기준 100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며, 직업훈련후 공단에서 취업알선을 도와주고 있다. 다음에서는 보호관찰대상 학업중

단청소년에게 실시되는 검정고시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표 II-3 2014년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자 세부현황

(단위: 명)

구분	고입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계		
	응시	전과목 합격	과목 합격	응시	전과목 합격	과목 합격	응시	전과목 합격	과목 합격
제1회	483	218	163	1,179	382	550	1,662	600	713
제2회	409	219	101	1,063	342	509	1,472	561	610
계	892	437	264	2,242	724	1,059	3,134	1,161	1,323

출처: 법무부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표를 통해서 보면, 2014년의 경우 검정고시 응시자는 총 3,134명이었으며, 이 중 고입검정고시 응시자는 892명(28.5%),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는 2,242명(71.5%)이었다. 즉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응시자의 합격률을 보면, 전과목 합격은 고입 검정고시와 고졸 검정고시 각각 437명(49.0%), 724명(32.3%)이었다. 즉 전과목 합격자 비율은 응시자 중 절반이 되지 않으며, 특히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비율은 30%를 조금 상회하였다. 참고로 최근 3년간의 검정고시 합격률을 알아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4 최근 3년간 검정고시 합격률('12년 ~ '14년)

구분	전체 합격률	전과목 합격률	과목 합격률
2012년	89.1%	56.9%	32.2%
2013년	81.0%	47.8%	33.2%
2014년	79.2%	37.0%	42.2%

출처: 법무부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합격률을 보면, 2012년 89.1%에서 2013년에는 81.0%, 2014년에는 79.2%로 약간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목 합격률 역시 2012년 56.9%에서 2013년에는 47.8%, 2014년에는 37.0%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다만 과목합격률에서는 2012년 32.2%, 2013년 33.2%, 2014년 42.2%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통계자료를 보면, 검정고시 응시자의 합격률(특히 전과목 합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의 경우 검정고시 준비형태에 따른 합격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5 검정고시 준비 형태에 따른 합격 현황 (단위: 명)

구분	에듀넷 수강	검정고시 학원알선	보호관찰소 공부방	보호복지 공단 학원비지원	지역센터 (공부방)	미지원 (독학)	기타	계
응시	164	649	43	44	193	1,917	124	3,134
합격	138	571	40	34	168	1,426	107	2,484
전과목합격	64	259	24	13	64	656	81	1,161
과목합격	74	312	16	21	104	770	26	1,323

출처: 법무부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먼저 검정고시 준비형태를 보면, 미지원(독학)이 전체 응시자 3,134명 중 1,917명으로 61.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검정고시 학원알선이 649명(20.7%), 지역센터(공부방)과 에듀넷 수강이 각각 193명(6.2%)과 164명(5.2%), 법무보호복지공단 학원비 지원이 44명(1.4%), 보호관찰소 공부방이 43명(1.4%)이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은 특별한 도움없이 혼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5 가량은 보호관찰소에서 알선해 주는 검정고시 학원을 통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검정고시 준비형태에 따른 합격률을 보면, 합격자수는 미지원(독학)의 경우 1,426명(74.1%), 검정고시 학원알선의 경우 571명(88.0%), 지역센터(공부방)의 경우 168명(87.0%), 에듀넷 수강의 경우 138명(84.1%), 보호복지공단 학원비 지원의 경우 34명(77.3%), 보호관찰소 공부방의 경우 40명(93.0%) 등으로 나타났다. 전과목 합격률은 미지원(독학)의 경우 응시자 중 656명(34.2%), 검정고시 학원알선의 경우 649명 중 259명(39.9%), 에듀넷 수강의 경우 164명 중 64명(39.0%), 지역센터(공부방)의 경우 193명 64명(33.2%), 보호관찰소 공부방의 경우 43명 중 24명(55.8%), 보호복지공단 학원비 지원의 경우 44명 중 13명(29.5%) 등으로 나타났다. 과목합격을 포함한 합격률은 보호관찰소 공부방 이용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검정고시 학원알선, 지역센터(공부방) 이용, 에듀넷 수강, 보호복지공단 학원비 지원, 미지원(독학)의 순이었다. 전과목 합격률은 보호관찰소 공부방 이용의 경우 50%를 상회하여 가장 높았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30%대의 합격률이 주를 이루었다.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중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특별한 지원없이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효과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업중단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성취감을 충족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활동에의 참여가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재비행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멘토링 프로그램 현황

보호관찰에서 멘토링은 보호관찰관 외에 교사, 대학생, 청소년 상담사 등 사회자원과의 결연을 통한 대상자 지도를 뜻한다(손태익, 허강무, 정성섭, 김성훈, 2014: 424).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되는 멘토링은 학업중단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일대일의 만남을 통해 대상 청소년의 문제나 필요를 파악하고 지지나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통제이론에 의하면, 타인에 대한 애착은 비행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Akers and Sellers, 2004: 182). 이렇게 본다면 멘토링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이 멘토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다면, 이는 재비행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멘토링은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담당자에 의하면, 멘토링은 멘토와 대상 청소년이 1달에 1회 이상을 만나도록 하고, 멘토로 하여금 만남에 대한 보고서를 보호관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관찰관이 청소년 중 멘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멘토와 결연을 맺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2014년 8월 말을 기준으로 교사·대학생·청소년상담사 등 2,972명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32,980명 중 8,460명(25.7%)에 대해 1:1 멘토링을 실시하였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보호관찰단계에서 실시되는 멘토링은 비행청소년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라포를 형성하고 지지해 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자원과 연결시켜 줄 수 있다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유용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2013년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과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교연구에 의하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높으며, 방임과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실, 김지영, 박성훈, 2013: 207).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가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특히 더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모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과 부모-자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게 실시되고 있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법무부 보호관찰과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은 2013년을 기준으로 8건이 이루어졌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담당자와의 자문에 의하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가족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며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10-12명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일례로 서울 북부보호관찰소에서는 2013년도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사회교정사목 위원회에게 위탁하여 보호관찰 청소년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더 가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는 총 7회기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7회기는 보호관찰 대상자와 보호자가 1박 2일간 가족캠프로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보호자 입장에서 자녀의 범죄원인이 가족문제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 입장에서는 자아정체성 강화와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 인지, 공동체 의식 등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한다(법무부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이러한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은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재범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경우 부모와 자녀를 함께 참여시키며 캠프도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적지 않게 들 수 있다. 그렇지만 학업중단 청소년이 고위험 청소년에 속할 수 있고, 이들의 재범예방에 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보호관찰기간 동안의 재범예측요인을 파악한 연구에 의하면, 중퇴경험과 중퇴상태는 재범여부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일석, 2010: 370).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히 욕구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국외 프로그램

1)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의 목표는 청소년에게 성인과 의 긍정적 접촉을 제공하고, 건강한 태도,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는 사회적, 물질적 지원강화 등 보호요인을 강화함으로써 반사회적 행위, 소외, 학교생활 참여부족 등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멘토는 청소년에게 감시, 지도, 기술훈련, 직업이나 문화적 기회 강화, 미래에 대한 목표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다(Jones, Clarks, Quiros, 2010:1). 이렇게 본다면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업중단 등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재범예방과 건전한 성장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멘토링은 청소년 판결의 하나로 주어질 수 있고, 보호관찰관의 권유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Jones, Clarks, Quiros, 2010:3). 보호관찰관은 법원이 명령한 경우 청소년이 보호관찰 조건에 잘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멘토링 담당자는 대상 청소년의 욕구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과 접촉하며, 보호관찰관은 대상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Jones, Clarks, Quiros, 2010:4). 멘토링 담당자는 부모나 다른 양육자와의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대상 청소년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다(Jones, Clarks, Quiros, 2010:5).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교사의 역할이 부재한 상태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해 긍정적 성인과 접촉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참여 프로그램

여기서는 미국에서 논의되는 비행청소년 보호관찰에 있어서의 가족개입 관련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를 위해서는 가족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교라는 보호요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가족이 보호요인으로서 제기능을 다하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가장 성공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가족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자녀를 돌보는 성인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논의된다(Greenwood, 2008: 184). 그러나 가족개입 프로그램은 소년사법에 있어서 중요한 서비스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산문제, 개입을 위해 가족이 모이게 하는 것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Quinn, Dyke, 2004: 178).

가족에 기반한 다체계적 치료(multisystemic Therapy)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의 비행친구 교제, 불성실한 학교생활 등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모역할을 효과적으로 해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며, 가족구성원이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Greenwood, 2008: 198).

Quinn과 Dyke(2004)는 일반적인 보호관찰과 비교해서 복합적 가족개입(multiple family group intervention) 프로그램의 상대적 장점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비행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초범 청소년의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초범 청소년의 복합적-가족집단 개입에 대해 연구하였다. 복합적 가족개입은 의사소통, 부모의 모니터링, 응집력 등 다양한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Quinn, Dyke, 2004: 180). Quinn과 Dyke는 10회기의 복합적 가족개입 프로그램인 가족해결 프로그램(Family Solution Program)에 참여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간에 그만 둔 청소년, 전통적인 보호관찰만 받은 청소년의 재범을 비교하였다. 편의표집으로 이루어진 455명의 초범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Quinn, Dyke, 2004: 183). 가족 해결 프로그램의 세션 주제들은 가족의 협력, 가정-학교 파트너십 형성, 부모역할 기술(부모의 모니터링, 의사소통), 교육, 의사결정, 지역사회 참여(청소년이 쉼터에서 요리배우기 등), 갈등 해결 등이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마칠 때에는 축하의식을 진행하였다(Quinn, Dyke, 2004: 185). 이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보호관찰만 받은 청소년의 재범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가족 해결 프로그램을 중간에 그만 둔 청소년, 가족 해결 프로그램을 마친 청소년의 순이었다. 이들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을 포함해서 청소년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개입이 재범 예방에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 주었다(Quinn, Dyke, 2004: 194).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에 있어서도 가족 등 청소년의 상황적 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개입을 하는 것이 이들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제 III 장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1. 응답자의 특성
2. 학업중단 지속 및 변화
3. 학업중단 이후 경험 및 인식의
변화
4. 학업중단 이후 생활환경의 변화
5.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적
변화
6.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문제행동
변화
7.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및 인식
8. 소결

제 III 장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이번 2차년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III-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성별은 남자가 75.8%, 여자가 24.2%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이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성별 차이는 전체 소년범죄자 중 보호관찰대상의 성별 비율¹⁾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

표 III-1 조사대상자의 특성		(단위: 명, %)			
		1차년도		2차년도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86	(100.0)	186	(100.0)
성별	남자 청소년	141	(75.8)	141	(75.8)
	여자 청소년	45	(24.2)	45	(24.2)
연령대	만 13세	1	(0.5)	0	(0.0)
	만 14세	5	(2.7)	1	(0.5)
	만 15세	13	(7.0)	5	(2.7)
	만 16세	31	(16.7)	13	(7.0)
	만 17세	64	(34.4)	31	(16.7)
	만 18세	72	(38.7)	64	(34.4)
	만 19세	0	(0.0)	72	(38.7)

* 이 장은 박성훈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1) 법무부(2013)에서 발간한 '2012년도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소년범죄자의 남녀 비율은 각각 82.9%와 17.1%(2009년), 83.0%와 17.0%(2010년), 81.9%와 18.1%(2011년)로 보고되고 있다.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89	(47.8)	77	(41.4)
	한부모 가정	68	(36.6)	73	(39.2)
	모두 안계심	29	(15.6)	36	(19.4)
주관적 경제수준	상	21	(11.3)	19	(10.2)
	중	80	(43.0)	70	(37.6)
	하	85	(45.7)	97	(52.2)

연령별로는 중등학력(만 13세~15세)의 청소년이 6명, 고등학력(만 16세~18세)의 청소년이 108명, 고등학교 졸업연령(만 19세)이 72명으로 나타났다.²⁾

가족구성의 측면에서는 양부모 가정 41.4%, 한부모 가정 39.2%, 모두 안계심 19.4%로 1차년도와 비교해 양부모가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부모 모두 안 계신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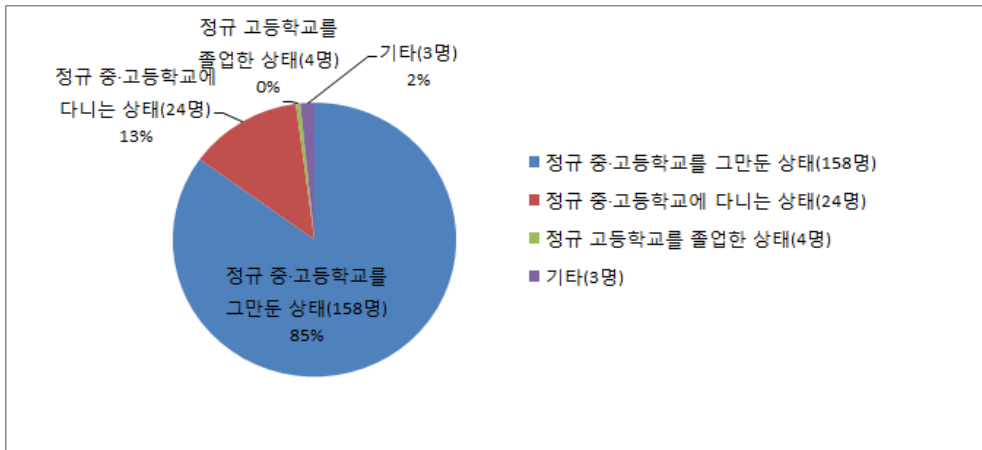
청소년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경제의 수준은 상 10.2%, 중 37.6%, 하 52.2%로 1차년도와 비교해 보통수준이라는 응답에 비해 못 산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2. 학업중단 지속 및 변화

1) 현재 학업상태

지난 조사 이후 약 1년 동안 응답자의 학업중단이 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림 III-1]과 같이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라는 응답이 84.9%로 매우 높은 반면,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라고 응답한 경우는 12.9%로 낮게 나타났다. 그 밖에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라는 응답은 0.5%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1.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비행학업 중단청소년의 경우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 상당수가 1년 이상 학업중단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패널조사의 특성 상 2013년 당시에는 고등학력에 포함되었던 학업중단청소년이 1년이 지난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등학령기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림 III-1] 현재 학업상태(N=186, %)

2) 복교 관련 실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지난 조사 이후 학교에 복교를 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1차년도에는 ‘복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3.2%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이후의 복교경험을 조사한 결과 ‘복학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0.8%로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 복교경험 여부

(단위: 명, %)

복교경험여부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복교 경험이 있다	62 (33.2)	20 (10.8)	27.595***
복교 경험이 없다	124 (66.7)	166 (89.2)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2차년도를 기준으로 현재 학업 상태에 따라 복교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표 III-3> 과 같이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인 경우 ‘복교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무려 93.4%로 매우 높은 반면, ‘복교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5.0%에 불과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 정규 학교로의 복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 학업중단 지속 여부 및 복교경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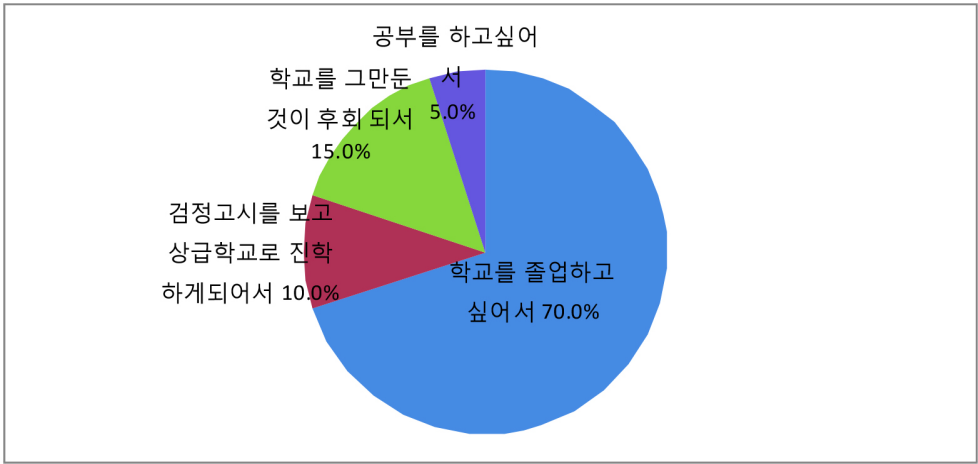
현재 학업 상태	복교경험 유무		전체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	3 (15.0)	155 (93.4)	158 (84.9)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	17 (85.0)	7 (4.2)	24 (12.9)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	1 (0.6)	0 (0.0)	1 (0.5)
기타	3 (1.8)	0 (0.0)	3 (1.6)
전체	20 (100)	166 (100)	186 (100.0)

<표 III-4>는 복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교를 한 학교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학교’(20.0%)보다는 일반고나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60.0%)에 복교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복교한 학교로는 ‘전에 다녔던 학교’(15.0%)라는 응답보다 ‘다른 학교’(85.0%)라는 응답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지난 조사후 복교학교 유형 (단위: 명, %)

학교급별	복교 학교 유형		전체
	전에 다녔던 학교	다른 학교	
중학교	2 (66.7)	2 (11.8)	4 (20.0)
일반고	0 (0.0)	8 (47.1)	8 (40.0)
특성화고	0 (0.0)	3 (17.6)	3 (15.0)
자율고	1 (33.3)	0 (0.0)	1 (5.0)
기타	0 (0.0)	4 (23.5)	4 (20.0)
전체	3 (100.0)	17 (100.0)	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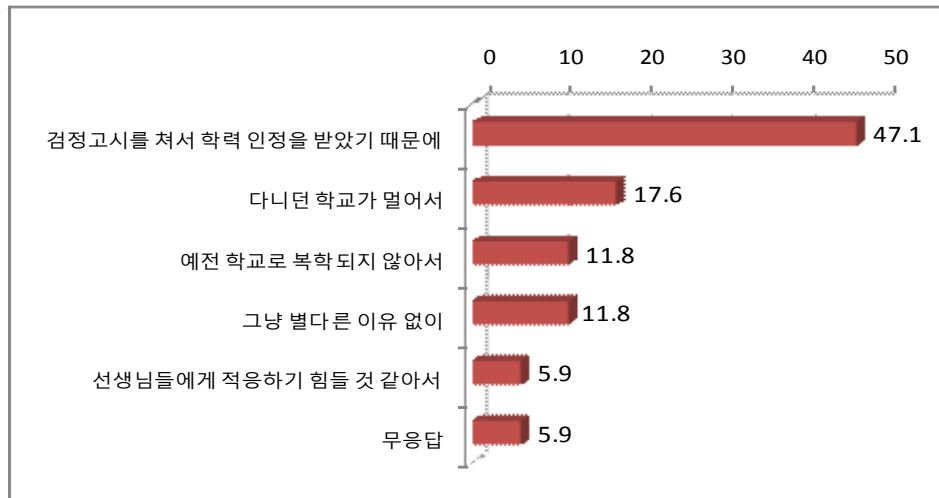
[그림 III-2]에 따르면, 복교를 하게 된 이유로는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7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를 그만둔 것이 후회되서’(15.0%), ‘검정고시를 보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어서’(10.0%), ‘기타’(5.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 지난 조사후 학교 복귀 이유(N=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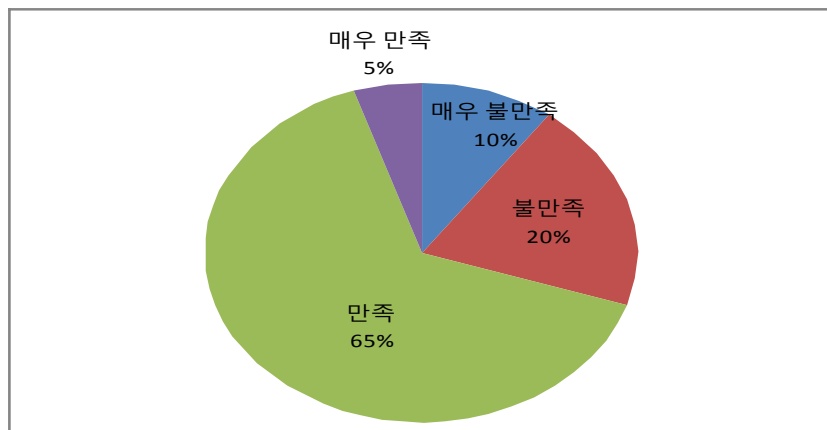
기준에 다니던 학교로 복학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림 III-3]과 같이 ‘예전 학교로 복학되지 않아서’라든지 ‘선생님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등 부정적인 이유보다는 ‘검정고시를

쳐서 학력인정을 받았기 때문에'라든지 '다니던 학교가 멀어서'와 같은 보다 긍정적인 이유가 더 많았다.



【그림 III-3】 지난 조사 후 종전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N=17,%)

복교를 한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그림 III-4]와 같이 불만족한 경우(30.0%)보다는 만족한 경우(70.0%)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 이후 복교 경험이 청소년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4】 복학 후 학교생활 만족(N=20,%)

3) 학업 재중단 관련 실태

<표 III-5>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 가운데 지난 조사 이후 약 1년 동안 학업을 재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84명 중 9명(4.9%)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중단한 학교는 중학교 4명, 일반고등학교 3명, 자율고등학교 2명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5 학업 재중단 경험 (단위: 명, %)	
	학업 재중단 경험
중단한 경험이 있다	9 (4.9)
중단한 경험이 없다	175 (95.1)
계	184 (100.0)

학업을 재중단한 이유로는 ‘공부하기 싫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검정고시를 보려고’, ‘가정불화 때문에’ 등의 이유가 주로 언급되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혹은 가정문제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밖에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나이 어린 친구들과 다니기 싫어서’,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성적이 안나와서’ 등 학교와 관련해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학업을 재중단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은 편이었다.

표 III-6 학업 재중단 이유

(단위: 명, %)

학업중단 이유	1순위 기준	복수 응답 기준
공부하기 싫어서	5 (55.6)	5 (55.6)
가정불화 때문에	2 (22.2)	1 (11.1)
검정고시를 하려고	1 (11.1)	4 (44.4)
기타	1 (11.1)	0 (0)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2 (22.2)
나이 어린 친구들과 다니기 싫어서		2 (22.2)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1 (11.1)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1 (11.1)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1 (11.1)
학교가 너무 멀어서		1 (11.1)
잠이 많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1 (11.1)
성적이 안 나와서		1 (11.1)

<표 III-7>에 따르면, 학업 재중단시 고민을 상담한 사람으로는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교의 교사’나 ‘학교내 상담교사’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구나 선후배’의 비중은 1차 조사와 비교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도 없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학업 재중단시 주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청소년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학업 재중단시 상담자 (복수 응답)

(단위: 명, %)

학업중단시 상담자	대상자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부모님	119 (39.9)	6 (37.5)
형제자매	22 (7.4)	1 (6.3)
학교교사	19 (6.4)	3 (18.8)
학교내 상담교사	15 (5.0)	2 (12.5)
상담기관 (상담사, 인터넷 상담 등)	3 (1.0)	0 (0)
친구나 선후배	83 (27.9)	2 (12.5)
없음(아무도 없었다)	34 (11.4)	2 (12.5)
기타	3 (1.0)	0 (0)
전체	298 (100)	16 (100)

4) 학업중단시 정보제공 여부

<표 III-8>에 따르면, 학업 재중단시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없다’(75.0%)는 의견이 ‘있다’(25.0%)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있다	66 (35.5)	2 (25.0)	.370
없다	120 (64.5)	6 (75.0)	
전체	186 (100.0)	8 (100.0)	

*p<.05 **p<.01 ***p<.001

<표 III-9>는 학업 재중단시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응답자 모두 학업중단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9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있다	41 (22.0)	0 (0.0)	2.236
없다	145 (78.0)	8 (100.0)	
전체	186 (100.0)	8 (100.0)	

*p<.05 **p<.01 ***p<.001

<표 III-10>에 따르면, 학업 재중단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있다'(77.8%)는 의견이 '없다'(22.2%)는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있다	69 (37.1)	7 (77.8)	5.973*
없다	117 (62.9)	2 (22.2)	
전체	186 (100.0)	9 (100.0)	

*p<.05 **p<.01 ***p<.001

<표 III-11>에서와 같이 학업 재중단시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응답자 모두 ‘없다’고 응답해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 시설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있다	26 (14.0)	0 (0)	1.291
없다	160 (86.0)	8 (100)	
전체	186 (100)	8 (100)	

*p<.05 **p<.01 ***p<.001

<표 III-12>에 따르면, 학업 재중단시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 역시 ‘있다’(12.5%)는 응답에 비해 ‘없다’(87.5%)는 응답이 훨씬 높아, 진로나 직업교육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있다	24 (12.9)	1 (12.5)	1.852
없다	162 (87.1)	7 (87.5)	
전체	186 (100)	8 (100)	

*p<.05 **p<.01 ***p<.001

학업 재중단시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 III-13>에서와 같이 응답자 모두 ‘없다’ 고 응답해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숙려기간을 통한 학업중단의 유예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3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설명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있다	176 (94.6)	8 (100.0)	.453
없다	10 (5.4)	0 (0.0)	
전체	186 (100.0)	8 (100.0)	

*p<.05 **p<.01 ***p<.001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제로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표 III-14>와 같이 학업을 재중단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모두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4 학업중단 숙려제 이용 경험 여부 (단위: 명, %)

학업중단 숙려제 이용경험여부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경험있음	4 (2.2)	0 (0.0)	.198
경험없음	182 (97.8)	9 (100.0)	
전체	186 (100.0)	9 (100.0)	

*p<.05 **p<.01 ***p<.001

3. 학업중단 이후 경험 및 인식의 변화

1)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

(1) 대안학교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III-15>에 제시된 것처럼 대안학교의 경우 2차년도에 참여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1.1%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수준에서도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대안학교에 다님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경험있음	10 (5.4)	2 (1.1)	5.511*
경험없음	176 (94.6)	184 (98.9)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2) 검정고시

<표 III-16>에 따르면, 검정고시 공부 경험에 대해서는 2차년도에 참여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61.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1차년도(45.7%)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검정고시 공부를 함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경험있음	85 (45.7)	115 (61.8)	9.733**
경험없음	101 (54.3)	71 (38.2)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3) 대학입시 공부

2차년도에 추가된 대학입시와 관련된 문항을 살펴보면, <표 III-17>에서와 같이 97.3%가 대학입시 공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모두 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대학입시 관련(2차 추가)

(단위: 명, %)

대학입시 공부를 함	2차 조사	대학에 다님	2차 조사
경험있음	5 (2.7)	경험있음	5 (2.7)
경험없음	181 (97.3)	경험없음	181 (97.3)
전체	186 (100.0)	전체	186 (100.0)

*p<.05 **p<.01 ***p<.001

(4) 취미·동아리활동

<표 III-18>에 따르면, 취미나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서는 1차년도와 비슷하게 93.5%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8 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경험있음	9 (4.8)	12 (6.5)	.454
경험없음	177 (95.2)	174 (93.5)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5) 직업기술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에 대해서는 <표 III-19>와 같이 1차년도와 비교하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에서 18.3%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직업기술을 배움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경험있음	12 (6.5)	34 (18.3)	12.006***
경험없음	174 (93.5)	152 (81.7)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6)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

<표 III-20>에 따르면, 응답자의 67.7%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1차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나 취업 경험이 전년도에 비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0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경험있음	107 (57.5)	126 (67.7)	4.146
경험없음	79 (42.5)	60 (32.3)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7)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았던 경험에 대해서는 <표 III-21>과 같이 73.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1차년도의 90.9%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경험있음	169 (90.9)	137 (73.7)	18.862***
경험없음	17 (9.1)	49 (26.3)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8)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표 III-22>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1차년도 9.1%에 비해 수치상으로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22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경험있음	17 (9.1)	12 (6.5)	.935
경험없음	169 (90.9)	174 (93.5)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9) 병원 입원

<표 III-23>에 따르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경험에 대해서는 12.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1차년도(14.0%)와 비교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23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경험있음	26 (14.0)	24 (12.9)	.092
경험없음	160 (86.0)	162 (87.1)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10) 가출

<표 III-24>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가출하여 친구 집이나 PC방에서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했는지에 대해서는 7.0%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1차년도(19.9%)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24 가출하여 친구 집이나 PC방에서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경험있음	37 (19.9)	13 (7.0)	13.309***
경험없음	149 (80.1)	173 (93.0)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11) 보호시설 생활

<표 III-25>에 따르면, 자립생활관이나 청소년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1차년도(12.9%)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 쉼터 등)에서 지냄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경험있음	24 (12.9)	10 (5.4)	6.345*
경험없음	162 (87.1)	176 (94.6)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12) 소년분류심사원

<표 III-26>에 따르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한 경험에 대해서는 2차년도에 15.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1차년도(45.2%)와 비교해 높은 비율로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경험있음	84 (45.2)	28 (15.1)	40.062***
경험없음	102 (54.8)	158 (84.9)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13) 소년원학교

2차년도에 추가된 소년원학교에서 생활한 경험에 대해서는 15.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III-27 소년원학교에서 생활함(2차추가) (단위: 명, %)

	2차 조사
경험있음	28 (15.1)
경험없음	158 (84.9)
전체	186 (100.0)

*p<.05 **p<.01 ***p<.001

2) 학업 중단 이후 사회적 관계

<표 III-28>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의 수는 1차년도 2.88명에서 2차년도 1.6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28 학업중단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의 수 (단위: 명, %)

친구의 수		N	평균	표준편차	t
학업중단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의 수	1차 조사	182	2.88	5.486	2.620**
	2차 조사	182	1.60	4.657	

*p<.05 **p<.01 ***p<.001

학업중단 이후의 진로를 누구와 상담했는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보호관찰소’에서 상담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II-29>를 보면, ‘보호관찰소’라는 응답이 1차년도에 57.0%, 2차년도에는 45.1%로 각각 해당 조사년도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상담기관', '직업훈련기관'순이었다. 반면에 '없다'는 응답도 1차년도 23.1%에서 2차년도 41.8%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비율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9 학업중단 이후 진로 상담자 (복수 응답)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전체
	1차 조사	2차 조사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원, 문화의 집 등)	10 (5.4)	8 (4.3)	18 (4.85)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공부방 등)	10 (5.4)	6 (3.3)	16 (4.35)
보호시설 (자립생활관, 청소년 쉼터 등)	11 (5.9)	8 (4.3)	19 (5.1)
상담기관 (청소년상담소 등)	18 (9.7)	16 (8.7)	34 (9.2)
보호관찰소	106 (57.0)	83 (45.1)	189 (51.0)
직업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 취업사관학교)	7 (3.8)	10 (5.4)	17 (4.6)
종교기관 (교회, 성당, 절 등)	12 (6.5)	8 (4.3)	20 (5.4)
학원	5 (2.7)	8 (4.3)	13 (3.5)
병원 등 치료시설	4 (2.2)	3 (1.6)	7 (1.9)
대안교육기관	5 (2.7)	0 (0)	5 (1.35)
없음	43 (23.1)	77 (41.8)	120 (32.5)
기타	52 (28.0)	5 (2.7)	57 (15.4)

3) 학업 중단 이후 진로계획

(1) 진로정보의 탐색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 진로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진로에 대해 부모님 또는 주위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는지 살펴본 결과, <표 III-30>에 따르면 1차년도 79.0%에서 2차년도 76.3%로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의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30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1차 조사	20 (10.8)	19 (10.2)	108 (58.1)	39 (21.0)	39 (21.0)	147 (79.0)	186 (100.0)
2차 조사	23 (12.4)	21 (11.3)	99 (53.2)	43 (23.1)	44 (23.7)	142 (76.3)	186 (100.0)
χ^2	.896				.388		372

*p<.05 **p<.01 ***p<.001

<표 III-31>에 따르면 학업중단 이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진로정보를 획득하였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차년도 57.5%에서 2차년도 61.6%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과반 이상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진로정보를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1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1차 조사	38 (20.4)	41 (22.0)	79 (42.5)	28 (15.1)	79 (42.5)	107 (57.5)	186 (100.0)
2차 조사	28 (15.1)	43 (23.2)	79 (42.7)	35 (18.9)	71 (38.4)	114 (61.6)	185 (100.0)
χ^2	2.338				.646		372

*p<.05 **p<.01 ***p<.001

<표 III-32>를 보면, 학업중단 이후 진로정보 획득을 위하여 교육기관, 복지기관, 고용관련 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2차년도에 18.5%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차년도 15.6%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II-32 공공기관 (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1차 조사	94 (50.5)	63 (33.9)	22 (11.8)	7 (3.8)	157 (84.4)	29 (15.6)	186 (100.0)
2차 조사	88 (47.8)	62 (33.7)	27 (14.7)	7 (3.8)	150 (81.5)	34 (18.5)	184 (100.0)
χ^2	.705				.546		370

*p<.05 **p<.01 ***p<.001

2차년도에 추가된 문항으로 진로정보 획득을 위하여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III-33>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평균값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2차 추가)

		N	평균	표준편차	t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대화	비행학업중단	184	2.20	1.053	-.288
	일반학업중단	598	2.17	1.026	

*p<.05 **p<.01 ***p<.001

<표 III-34>에 따르면, 진로정보 획득을 위하여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41.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34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문항(2차 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2차 조사	64 (34.8)	43 (23.4)	54 (29.3)	23 (12.5)	107 (58.2)	77 (41.8)	184 (100.0)

2차년도에 추가된 문항으로 진로정보 획득을 위하여 여가시간, 방과 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III-35>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1.62)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1.74)에 비해 다소 낮기는 하나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 여가시간, 방과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 본적이 있다.(2차 추가)

		N	평균	표준편차	t
여가시간, 방과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경험	비행학업중단	185	1.62	.779	1.742
	일반학업중단	598	1.74	.871	

*p<.05 **p<.01 ***p<.001

<표 III-36>에 따르면, 진로정보 획득을 위하여 여가시간, 방과 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88.1%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직업체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6 여가시간, 방과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 본적이 있다. 문항(2차 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2차 조사	99 (53.5)	64 (34.6)	16 (8.6)	6 (3.2)	163 (88.1)	22 (11.9)	185 (100.0)

(2) 진로 장애

가. 진로관련 정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관련 상황을 질문한 문항을 2차년도에 새로 추가하였다. <표 III-37>은 진로관련 정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는 질문에 38.2%가 동의를 하였고,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질문에는 48.9%가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질문에는 44.9%,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에는 53.5%,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는 질문에는 42.2%가 동의를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 III-37 진로관련 정보(2차 추가)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41 (22.0)	74 (39.8)	63 (33.9)	8 (4.3)	115 (61.8)	71 (38.2)	186 (100.0)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있다	21 (11.3)	70 (37.6)	78 (41.9)	17 (9.1)	91 (48.9)	95 (51.1)	186 (100.0)
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28 (15.1)	74 (40.0)	75 (40.5)	8 (4.3)	102 (55.1)	83 (44.9)	185 (100.0)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30 (16.2)	56 (30.3)	84 (45.4)	15 (8.1)	86 (46.5)	99 (53.5)	185 (100.0)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34 (18.4)	73 (39.5)	70 (37.8)	8 (4.3)	107 (57.8)	78 (42.2)	185 (100.0)

나. 진로에 대한 불안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느끼는 진로에 대한 불안을 살펴보면, <표 III-38>에 제시된 것처럼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는 질문에는 51.9%,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에는 35.5%,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는 질문에는 23.9%,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에는 45.7%가 동의를 나타내, 상당수의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대상황이나 경기불황 등 구조적 측면보다는 직업·진로선택과 같은 개인적 측면에서 불안감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38 진로에 대한 불안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 안하다	40 (21.9)	48 (26.2)	67 (36.6)	28 (15.3)	88 (48.1)	95 (51.9)	183 (100.0)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 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44 (24.0)	74 (40.4)	54 (29.5)	11 (6.0)	118 (64.5)	65 (35.5)	183 (100.0)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 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50 (27.2)	90 (48.9)	39 (21.2)	5 (2.7)	140 (76.1)	44 (23.9)	184 (100.0)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38 (20.7)	62 (33.7)	66 (35.9)	18 (9.8)	100 (54.3)	84 (45.7)	184 (100.0)

다. 진로 장애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표 III-39>와 같이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질문에는 34.1%,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는 질문에는 31.9%,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에는 34.1%, ‘가정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질문에는 23.2%가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이나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낮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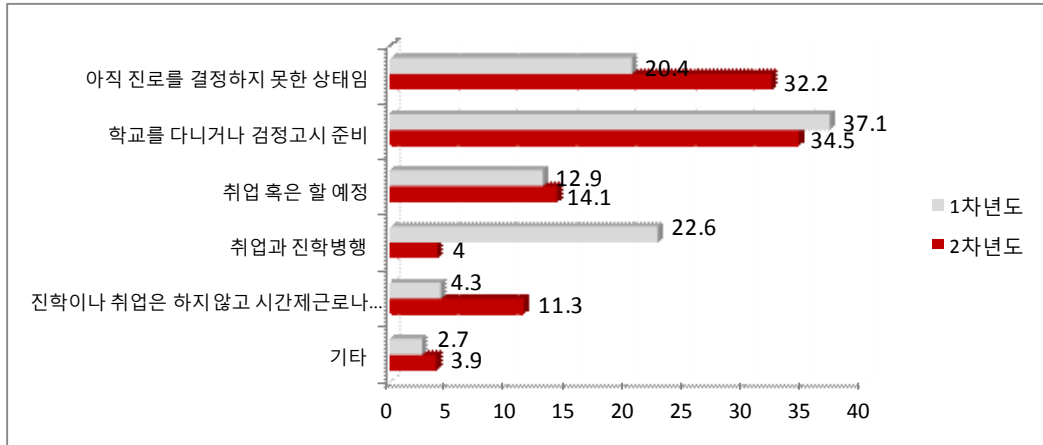
표 III-39 경제적 어려움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 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다	36 (19.5)	86 (46.5)	51 (27.6)	12 (6.5)	122 (65.9)	63 (34.1)	185 (100.0)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	43 (23.2)	83 (44.9)	46 (24.9)	13 (7.0)	126 (68.1)	59 (31.9)	185 (100.0)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 움이 따른다	38 (20.5)	84 (45.4)	51 (27.6)	12 (6.5)	122 (65.9)	63 (34.1)	185 (100.0)
가정환경이 열악해서 내 가 하고 싶은 일을 진 로로 선택하기 어렵다	48 (25.9)	94 (50.8)	35 (18.9)	8 (4.3)	142 (76.8)	43 (23.2)	185 (100.0)

(3) 향후 진로계획

[그림 III-5]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중단후 진로계획은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학교를 다니거나 검정고시 준비’가 3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업 혹은 할 예정’(14.1%),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11.3%), ‘취업과 진학 병행’(4.0%) 순이었으나,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32.2%)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기타도 3.9%로 나타났는데, 기타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가업지원’(1.1%),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2.8%) 등이었다.

향후 진로계획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학교를 다니거나 검정고시 준비’가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에도 여전히 높은 비율이긴 하지만 그 비율은 1차년도 37.1%에서 2차년도 34.5% 감소한 반면,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응답은 1차년도 20.4%에서 2차년도 32.2%로 오히려 증가하여, 진학 및 학업 계획은 줄어들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5】 향후 진로계획(1차: 186명, 2차: 186명, 단위: %)

4) 학업중단 후 일상생활

(1) 일상시간

① 학업 및 근무시간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 및 근무시간을 살펴본 결과, <표 III-40>에 따르면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을 다니는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은 23.8%로 1차년도(14.5%)와 비교할 때 다소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III-40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다님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해당있음	27 (14.5)	44 (23.8)	5.148*
해당없음	159 (85.5)	141 (76.2)	
전체	186 (100.0)	185 (100.0)	

*p<.05 **p<.01 ***p<.001

<표 III-41>을 보면,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에서 머무는 평균 시간은 2차 조사를 기준으로 평일 4.82시간, 휴일 1.00시간으로 1차 조사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II-41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평균시간 (단위: 시간)

평균시간		N	평균	표준편차	t
평일	1차 조사	27	5.00	2.09	.234
	2차 조사	40	4.82	2.56	
휴일	1차 조사	27	1.91	3.65	.619
	2차 조사	37	1.00	2.49	

*p<.05 **p<.01 ***p<.001

<표 III-42>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일하는 경우는 42.7%로 1차년도(30.6%)에 비해 증가했으며, 통계적 수준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하여 일함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해당있음	57 (30.6)	79 (42.7)	5.807*
해당없음	129 (69.4)	106 (57.3)	
전체	186 (100.0)	185 (100.0)	

*p<.05 **p<.01 ***p<.001

<표 III-43>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인한 근무의 평균시간은 2차년도를 기준으로 평일 8.55시간, 휴일 6.88시간으로 1차년도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3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면서 지내는 평균시간 (단위: 시간)

평균시간		N	평균	표준편차	t
평일	1차조사	57	8.23	2.86	-.600
	2차조사	78	8.55	2.89	
휴일	1차조사	57	6.62	4.27	-.271
	2차조사	77	6.88	4.87	

*p<.05 **p<.01 ***p<.001

② 여가시간

<표 III-44>와 같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여가시간 활동을 살펴본 결과, 숙제, 시험 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공부를 하는 경우는 1차년도 25.8%에서 2차년도 34.1%로 수치상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I-44 숙제, 시험 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한 개인공부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해당있음	48 (25.8)	63 (34.1)	3.009
해당없음	138 (74.2)	122 (65.9)	
전체	186 (100.0)	185 (100.0)	

*p<.05 **p<.01 ***p<.001

<표 III-45>와 같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투자하는 평균시간은 2차년도 기준 평일 3.53시간, 휴일 2.52시간으로 1차년도와 비교할 때 평일 시간은 증가한 반면, 휴일 시간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45 숙제, 시험 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평균시간(단위: 시간)

평균시간		N	평균	표준편차	t
평일	1차조사	48	2.84	2.10	-1.006
	2차조사	62	3.53	3.46	
휴일	1차조사	48	2.76	2.40	0.464
	2차조사	62	2.52	2.39	

<표 III-46>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휴대전화나 컴퓨터, 게임, TV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경우는 69.7%로 1차년도(73.1%)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46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냄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해당있음	136 (73.1)	129 (69.7)	.522
해당없음	50 (26.9)	56 (30.3)	
전체	186 (100.0)	185 (100.0)	

*p<.05 **p<.01 ***p<.001

<표 III-47>에 따르면, 휴대전화, 컴퓨터, 게임, TV 등으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평균 시간은 2차년도를 기준으로 평일 3.90시간, 휴일 3.76시간으로 1차년도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47 시간을 매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평균시간 (단위: 시간)

평균시간		N	평균	표준편차	t
평일	1차조사	136	3.89	2.69	-.022
	2차조사	129	3.90	2.95	
휴일	1차조사	136	3.92	3.16	.415
	2차조사	129	3.76	2.98	

<표 III-48>에 따르면 여가시간에 운동, 취미,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교회 혹은 성당에 다니는지에 대해서는 31.4%가 이러한 활동을 한다고 응답해, 1차년도(33.9%)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48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을 다님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해당있음	63 (33.9)	58 (31.4)	.268
해당없음	123 (66.1)	127 (68.6)	
전체	186 (100.0)	185 (100.0)	

*p<.05 **p<.01 ***p<.001

<표 III-49>에 따르면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할애하는 평균 시간은 2차년도 조사를 기준으로 평일 1.76시간, 휴일 2.13시간으로, 휴일의 활동시간이 수치상 다소 증가하긴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49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할애하는 평균 시간 (단위: 시간)

평균시간		N	평균	표준편차	t
평일	1차조사	63	1.93	1.84	0.476
	2차조사	57	1.76	1.69	
휴일	1차조사	63	1.96	1.58	-0.412
	2차조사	57	2.13	1.73	

*p<.05 **p<.01 ***p<.001

<표 III-50>에 따르면, 여가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놀러 다닌다고 응답한 비행학업 중단청소년은 70.3%로 1차년도(78.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III-50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놀러 다님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해당있음	146 (78.5)	130 (70.3)	3.293
해당없음	40 (21.5)	55 (29.7)	
전체	186 (100.0)	185 (100.0)	

*p<.05 **p<.01 ***p<.001

<표 III-51>에 따르면, 하루중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데에 보내는 평균 시간은 2차년도를 기준으로 평일 3.74시간, 휴일 5.23시간으로 1차년도와 비교할 때 평일은 감소하였으나 휴일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일의 경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평일에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I-51 내가 하루 중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평균시간 (단위:시간)

평균시간		N	평균	표준편차	t
평일	1차조사	146	4.63	2.59	2.753***
	2차조사	127	3.74	2.37	
휴일	1차조사	146	5.23	2.47	0.247
	2차조사	128	5.23	3.10	

*p<.05 **p<.01 ***p<.001

(2) 식생활 습관

<표 III-52>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최근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2번 이하로 한 경우는 1차년도 57.0%에서 2차년도 39.7%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 최근 일주일 동안 2번 이하 아침식사를 함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그렇다	106 (57.0)	71 (39.7)	10.961***
아니다	80 (43.0)	108 (60.3)	
전체	186 (100.0)	179 (100.0)	

*p<.05 **p<.01 ***p<.001

<표 III-53>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점심식사를 2번 이하로 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은 23.4%로 1차년도(64.0%)와 비교할 때 크게 감소하였고, 통계적 수준에서도 유의미하였다.

표 III-53 최근 일주일 동안 2번 이하 점심식사를 함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그렇다	119 (64.0)	43 (23.4)	61.972***
아니다	67 (36.0)	141 (76.6)	
전체	186 (100.0)	184 (100.0)	

*p<.05 **p<.01 ***p<.001

<표 III-54>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저녁식사를 2번 이하로 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은 20.7%로 1차년도(69.9%)와 비교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4 최근 일주일 동안 2번 이하 저녁식사를 함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그렇다	130 (69.9)	38 (20.7)	90.472***
아니다	56 (30.1)	146 (79.3)	
전체	186 (100.0)	184 (100.0)	

*p<.05 **p<.01 ***p<.001

<표 III-55>에 따르면, 최근 7일 동안 라면이나 컵라면을 3회 이상 먹었다고 응답한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은 33.2%로 1차년도(64.0%)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5 최근 7일 동안 나는 라면이나 컵라면을 3회 이상 먹었다.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그렇다	119 (64.0)	61 (33.2)	35.184***
아니다	67 (36.0)	123 (66.8)	
전체	186 (100.0)	184 (100.0)	

*p<.05 **p<.01 ***p<.001

(3) 동아리, 인터넷 카페 활동

가. 지난 조사 이후 동아리나 인터넷카페 활동 참여 여부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동아리, 인터넷카페 활동 참여 여부를 조사한 문항이 2차년도에 추가되었는데, <표 III-56>에서와 같이 이같은 활동에 4.9%만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중에서 소수만 동아리 혹은 인터넷카페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56 동아리, 인터넷카페 활동 참여 (2차조사) (단위: 명, %)

	동아리, 인터넷카페 활동 참여
참여한 적이 있다	9 (4.9)
참여한 적이 없다	176 (95.1)
계	185 (100.0)

나. 동아리 또는 인터넷카페 참여 이유와 종류

<표 III-57>에 따르면, 동아리 혹은 인터넷카페에 참여한 이유로는 ‘재미를 위해서’ 참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종류별로는 ‘중·고등학교 동아리’, ‘인터넷 포털 카페’, ‘SNS 서비스’, ‘복지시설 동아리’, ‘소년원 학교에서 소년원 친구들과’, ‘영화·연극 동아리’가 고르게 언급되었다.

표 III-57 동아리, 인터넷카페 참여 이유와 종류 (단위: 명, %)

참여 이유(1순위 기준)	2차 조사	동아리, 인터넷카페 종류	2차 조사
재미를 위해	3 (33.3)	중·고등학교 동아리	2 (22.2)
평소의 흥미	1 (11.1)	인터넷 포털 (네이버, 다음 등) 카페	2 (22.2)
보다 많은 사람과의 교류	1 (11.1)	SNS 서비스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 카페	2 (22.2)
취업 또는 직업 선택에 도움	1 (11.1)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동아리	1 (11.1)
대학 및 학과 선택에 도움	1 (11.1)	소년원 학교에서 소년원 친구 들과(동아리 아님)	1 (11.1)
특별한 이유 없음	2 (22.2)	영화·연극 동아리	1 (11.1)
전체	9 (100.0)	전체	9 (100.0)

5)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는지에 대해 <표 III-58>에서와 같이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58.5%로 1차년도(68.8%)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전히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58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1차 조사	18 (9.7)	40 (21.5)	83 (44.6)	45 (24.2)	58 (31.2)	128 (68.8)	186 (100.0)
2차 조사	30 (19.0)	36 (22.8)	62 (39.2)	30 (19.0)	66 (41.5)	93 (58.5)	159 (100.0)
χ^2	3.970				3.970		345

*p<.05 **p<.01 ***p<.001

<표 III-59>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 같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5%가 '문제아 취급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1차년도(64.5%)와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59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1차 조사	17 (9.1)	49 (26.3)	85 (45.7)	35 (18.8)	66 (35.5)	120 (64.5)	186 (100.0)
2차 조사	26 (16.5)	32 (20.3)	66 (41.8)	34 (21.5)	58 (36.5)	101 (63.5)	159 (100.0)
χ^2	5.615				.037		345

*p<.05 **p<.01 ***p<.001

<표 III-60>에 따르면,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한지에 대해 1차년도(35.5%)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으나,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31.4%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60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였)다.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1차 조사	41 (22.0)	79 (42.5)	52 (28.0)	14 (7.5)	120 (64.5)	66 (35.5)	186 100.0
2차 조사	47 (29.7)	61 (38.6)	39 (24.7)	11 (7.0)	109 (68.6)	50 (31.4)	159 100.0
χ^2	2.679				.626		345

*p<.05 **p<.01 ***p<.001

<표 III-61>에 따르면, 학업중단이 자신이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1차년도(48.9%)에 비해 2차년도(67.3%)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III-61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1차 조사	22 (11.8)	73 (39.2)	69 (37.1)	22 (11.8)	95 (51.1)	91 (48.9)	186 (100.0)
2차 조사	12 (7.6)	40 (25.3)	75 (47.5)	31 (19.6)	52 (32.7)	107 (67.3)	159 (100.0)
χ^2	12.158**				11.831***		345

*p<.05 **p<.01 ***p<.001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하였는지를 물어본 결과, <표 III-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7%가 '후회한다'고 응답해 1차년도(72.3%)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II-62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1차 조사	19 (10.2)	34 (18.3)	70 (37.6)	63 (33.9)	61 (27.7)	159 (72.3)	186 (100.0)
2차 조사	16 (10.1)	32 (20.3)	58 (36.7)	52 (32.9)	48 (28.4)	111 (65.7)	159 (100.0)
χ^2	.217				.119		345

*p<.05 **p<.01 ***p<.001

<표 III-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56.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1차년도(43.0%)와 비교할 때, 학업중단 이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 것에 대한 행복감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III-63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었)다.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1차 조사	25 (13.4)	81 (43.5)	66 (35.5)	14 (7.5)	106 (57.0)	80 (43.0)	186 (100.0)
2차 조사	17 (10.8)	51 (32.3)	72 (45.6)	18 (11.4)	69 (43.4)	90 (56.6)	159 (100.0)
χ^2	6.869				6.337*		345

*p<.05 **p<.01 ***p<.001

4. 학업중단 이후 생활환경의 변화

1) 부모와의 관계

(1) 부모 애착(부모의 정서적 · 경제적 지원)

<표 III-64>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부모 애착은 1차년도 2.99에서 2차년도 2.97로 수치상으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4 부모 애착

		N	평균	표준편차	t
부모 애착	1차 조사	186	2.99	0.640	.528
	2차 조사	186	2.97	0.638	

*p<.05 **p<.01 ***p<.001

<표 III-65>와 같이 부모 애착을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나를 잘 알고 이해해주신다’(1차 3.01 → 2차 3.01)는 변화가 없었으며, ‘고민을 들어주신다’(1차 2.97 → 2차 2.93)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1차 3.11 → 2차 3.13)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주신다’(1차 2.93 → 2차 3.03),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1차 2.85 → 2차 2.95), ‘부모님(보호자)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주신다’(1차 2.92 → 2차 3.0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1차 2.76 → 2차 2.83)에서는 애착 정도가 수치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표 III-65 부모 애착 문항

부모 애착 문항		평균값	t
나를 잘 알고 이해해주신다.	1차 조사	3.01	-.098
	2차 조사	3.01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신다.	1차 조사	3.09	-.364
	2차 조사	3.11	
고민을 들어 주신다.	1차 조사	2.97	.736
	2차 조사	2.93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1차 조사	3.11	-.374
	2차 조사	3.13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주신다	1차 조사	2.93	-1.944
	2차 조사	3.03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1차 조사	2.85	-1.418
	2차 조사	2.95	
부모님(보호자)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주신다.	1차 조사	2.92	-1.903
	2차 조사	3.0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주신다.	1차 조사	2.76	-1.081
	2차 조사	2.83	

*p<.05 **p<.01 ***p<.001

(2) 부모의 방임

<표 III-66>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부모의 방임은 1차년도 1.96에서 2차년도 1.91로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6 부모의 방임

		N	평균	표준편차	t
방임	1차 조사	185	1.96	0.596	0.886
	2차 조사	185	1.91	0.564	

*p<.05 **p<.01 ***p<.001

<표 III-67>의 부모방임을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시다'(1차 2.01 → 2차 1.84)에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방임정도가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그 외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1차 2.22 → 2차 2.16),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1차 1.95 → 2차 1.89) 역시 방임정도가 다소 나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67 부모의 방임 문항

부모의 방임 문항		평균값	t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1차 조사	2.22	0.760
	2차 조사	2.16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시다.	1차 조사	1.95	-0.610
	2차 조사	1.99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시다.	1차 조사	2.01	2.265**
	2차 조사	1.84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	1차 조사	1.95	0.797
	2차 조사	1.89	
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1차 조사	1.65	-.386
	2차 조사	1.68	

*p<.05 **p<.01 ***p<.001

* 주: 1) 부모의 방임문항은 점수가 높을 수록 방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1번 문항은 역코딩하였음

(3) 신체적 학대

<표 III-68>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신체적 학대는 1차년도 1.91에서 2차년도 1.61로 크게 낮아졌으며, 통계적 수준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8 신체적 학대

		N	평균	표준편차	t
신체적 학대	1차 조사	186	1.91	.746	4.981***
	2차 조사	186	1.61	.631	

*p<.05 **p<.01 ***p<.001

<표 III-69>의 신체적 학대를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대로 들고 때리신다’(1차 1.82 → 2차 1.58),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신다’(1차 2.10 → 2차 1.70),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리신다’(1차 1.81 → 2차 1.54), 세 개의 문항 모두에서 신체적 학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II-69 신체적 학대 문항

신체적 학대 문항		평균값	t
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신다.	1차 조사	1.82	3.713***
	2차 조사	1.58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신다.	1차 조사	2.10	5.135***
	2차 조사	1.70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리신다.	1차 조사	1.81	3.774***
	2차 조사	1.54	

*p<.05 **p<.01 ***p<.001

(4) 정서적 학대

<표 III-70>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정서적 학대는 1차년도 1.99에서 2차년도 1.70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II-70 정서적 학대 문항

정서적 학대 문항		평균값	t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1차 조사	1.99	3.824***
	2차 조사	1.70	

*p<.05 **p<.01 ***p<.001

2) 친구와의 관계

(1) 친구의 수

<표 III-71>과 같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친한 친구 수를 비교한 결과, '1~5명 이하'가 1차년도 44.6%에서 2차년도 59.7%로 높아진 반면, '6~10명 이하'와 '11명 이상'은 각각 31.2%에서 22.6%로, 20.4%에서 12.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친구의 수가 1차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71 친구의 수 (단위: 명, %)

친한 친구의 수	대상자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없음	7 (3.8)	10 (5.4)
1~5명이하	83 (44.6)	111 (59.7)
6~10명이하	58 (31.2)	42 (22.6)
11명이상	38 (20.4)	21 (12.4)
전체	186 (100.0)	186 (100.0)

(2) 또래애착

<표 III-72>와 같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또래애착은 1차년도 3.21에서 2차년도 3.18로 수치상 다소 낮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72 또래 애착

		N	평균	표준편차	t
또래애착	1차 조사	185	3.21	0.554	.523
	2차 조사	185	3.18	0.585	

*p<.05 **p<.01 ***p<.001

<표 III-73>의 또래 애착을 측정된 문항별로 살펴보면,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1차 3.18 → 2차 3.16),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1차 3.23 → 2차 3.23),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1차 3.21 → 2차 3.16)에서 세 문항 모두 1차년도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3 또래 애착 문항

또래 애착 문항		평균값	t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1차 조사	3.18	.569
	2차 조사	3.16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1차 조사	3.23	.000
	2차 조사	3.23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1차 조사	3.21	.742
	2차 조사	3.16	

*p<.05 **p<.01 ***p<.001

(3) 친구비행 성향

<표 III-74>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친구비행성향은 1차년도 1.73에서 2차년도 1.63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II-74 친구 비행성향

		N	평균	표준편차	t
친구비행	1차 조사	185	1.73	0.627	1.919
	2차 조사	185	1.63	0.656	

*p<.05 **p<.01 ***p<.001

<표 III-75>의 친구 비행성향을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1차 1.52 → 2차 1.51),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1차 1.77 → 2차 1.66)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반면,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1차 1.90 → 2차 1.70)에서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친구의 비행성향이 전년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5 친구 비행성향 문항

친구 비행성향 문항		평균값	t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1차 조사	1.90	2.922**
	2차 조사	1.70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1차 조사	1.77	1.588
	2차 조사	1.66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1차 조사	1.52	.268
	2차 조사	1.51	

*p<.05 **p<.01 ***p<.001

3) 생애사건 경험 특성

(1) 가족구성 변화

<표 III-76>을 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가족구성은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친아버지(1차 26.6% → 2차 24.1%), 친어머니(1차 28.3% → 2차 27.6%)와 함께 산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형제·자매(1차 27.8% → 2차 28.3%), (외)할머니(1차 5.9% → 2차 5.4%), (외)할아버지(1차 2.7% → 2차 2.5%) 순이었다.

표 III-76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복수 응답)

(단위: 명, %)

함께 사는 가족	대상자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친아버지	109 (26.6)	98 (24.1)
친어머니	116 (28.3)	112 (27.6)
새아버지	10 (2.4)	8 (2.0)
새어머니	11 (2.7)	9 (2.2)
(외)할아버지	11 (2.7)	10 (2.5)
(외)할머니	24 (5.9)	22 (5.4)
형제, 자매	114 (27.8)	115 (28.3)
친척	9 (2.2)	7 (1.7)
기타	6 (1.5)	25 (6.1)
전체	410 (100)	406 (100)

(2) 일어난 일

<표 III-77>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에게 발생한 사건은 '친부모님이 돌아가심'이 1차년도 28건, 2차년도 4건으로 나타났고, '친부모님의 재혼'은 1차년도 79건, 2차년도 2건으로 나타났다.

표 III-77 발생 사건(복수 응답) (단위: 명, %)

자신, 가족에게 일어난 일	대상자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친부모님이 돌아가심	28 (33.3)	4 (66.7)
친부모님이 재혼	79 (77.9)	2 (33.3)

(3) 가정 경제 수준

<표 III-78>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가정경제수준은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보통수준'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1차년도와 2차년도의 평균은 중간이하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II-78 가정 경제 수준 (단위: 명, %)

	매우 못 산다	약간 못 산다	못 산다	보통 수준	잘 산다	약간 잘 산다	매우 잘 산다	평균	t
1차 조사	14 (3.8)	31 (8.3)	40 (10.8)	80 (21.5)	17 (4.6)	3 (0.8)	1 (0.3)	3.37	.073
2차 조사	8 (2.2)	36 (9.7)	53 (14.2)	70 (18.8)	10 (2.7)	7 (1.9)	2 (0.5)	3.36	

*p<.05 **p<.01 ***p<.001

(4) 건강상태

2차년도에 추가된 건강상태 문항은 <표 III-79>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3.02)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2.90)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는 높은 편이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III-79 또래 친구들과 비교할 때 자신의 건강상태(2차 추가)

		N	평균	표준편차	t
건강상태	비행학업중단	186	3.02	.670	-1.897*
	일반학업중단	599	2.90	.708	

*p<.05 **p<.01 ***p<.001

보다 구체적으로 <표 III-80>과 같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건강상태는 부정 20.4%, 긍정 79.6%로 또래 친구들과 비교할 때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80 또래 친구들과 비교할 때 자신의 건강상태 문항(2차 추가)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부정	긍정	전체
비행 학업중단	1 (0.5)	37 (19.9)	106 (57.0)	42 (22.6)	38 (20.4)	148 (79.6)	186 (100.0)

4) 지역사회 특성

(1) 지역사회 유대

<표 III-81>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회의 유대는 1차년도 2.46에서 2차년도 2.34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수치상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81 지역사회 유대

		N	평균	표준편차	t
지역사회 유대	1차 조사	186	2.46	0.785	1.531
	2차 조사	186	2.34	0.850	

*p<.05 **p<.01 ***p<.001

<표 III-82>와 같이 지역사회 유대를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낸다’(1차 2.62 → 2차 2.47),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1차 2.30 → 2차 2.21)에서 모두 지역사회의 유대가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표 III-82 지역사회 유대 문항

		평균값	t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낸다.	1차 조사	2.62	1.764
	2차 조사	2.47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1차 조사	2.30	1.139
	2차 조사	2.21	

*p<.05 **p<.01 ***p<.001

(2) 비공식 통제

<표 III-83>의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비공식 통제에 대한 인식은 1차년도 2.62에서 2차년도 2.34로 나타나, 비공식통제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83 비공식 통제

		N	평균	표준편차	t
비공식통제	1차 조사	186	2.62	0.793	3.872***
	2차 조사	186	2.34	0.855	

*p<.05 **p<.01 ***p<.001

<표 III-84>와 같이 비공식 통제를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는다’(1차 2.55 → 2차 2.28),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린다’(1차 2.68 → 2차 2.40) 모두 전년도에 비해 평균치가 감소하였으며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84 비공식 통제 문항

비공식 통제 문항		평균값	t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는다.	1차 조사	2.55	3.420***
	2차 조사	2.28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린다.	1차 조사	2.68	3.439***
	2차 조사	2.40	

*p<.05 **p<.01 ***p<.001

(3) 물리적 무질서

<표 III-85>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은 1차년도 2.06에서 2차년도 2.02로 다소 낮아졌으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II-85 물리적 무질서

		N	평균	표준편차	t
물리적 무질서	1차 조사	186	2.06	.776	0.677
	2차 조사	186	2.02	.751	

*p<.05 **p<.01 ***p<.001

<표 III-86>에 따르면, 물리적 무질서를 측정한 문항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집이나 공터가 많다’(1차 1.94 → 2차 1.80)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1차 2.19 → 2차 2.25)는 수치상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I-86 물리적 무질서 문항

물리적 무질서 문항		평균값	t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집이나 공터가 많다.	1차 조사	1.94	1.788
	2차 조사	1.80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1차 조사	2.19	-0.705
	2차 조사	2.25	

*p<.05 **p<.01 ***p<.001

(4) 사회적 무질서

<표 III-87>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은 1차년도 2.37에서 2차년도 2.24로 다소 낮아졌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는 없었다.

표 III-87 사회적 무질서

		N	평균	표준편차	t
사회적 무질서	1차 조사	186	2.37	.805	1.934
	2차 조사	186	2.24	.787	

*p<.05 **p<.01 ***p<.001

<표 III-88>에서처럼 사회적 무질서를 구체적으로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1차 2.31 → 2차 2.21)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반면, ‘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1차 2.44 → 2차 2.28)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두 문항 모두 전년도에 비해 평균은 감소하였다.

표 III-88 사회적 무질서 문항

사회적 무질서 문항		평균값	t
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1차 조사	2.31	1.199
	2차 조사	2.21	
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1차 조사	2.44	2.096*
	2차 조사	2.28	

*p<.05 **p<.01 ***p<.001

(5) 지역사회 유익환경

<표 III-89>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유익환경에 대한 인식은 1차년도 2.49에서 2차년도 2.55로 다소 높아졌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표 III-89 지역사회 유익환경

		N	평균	표준편차	t
지역사회 유익환경	1차 조사	186	2.49	.751	-0.978
	2차 조사	186	2.55	.783	

*p<.05 **p<.01 ***p<.001

<표 III-90>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사회 유익환경을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청소년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1차 2.26 → 2차 2.32), ‘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다’(1차 2.72 → 2차 2.78) 모두 평균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0 지역사회 유익환경 문항

지역사회 유익환경 문항		평균값	t
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청소년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1차 조사	2.26	-0.767
	2차 조사	2.32	
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다.	1차 조사	2.72	-0.899
	2차 조사	2.78	

*p<.05 **p<.01 ***p<.001

5.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적 변화

1) 개인적 · 심리적 특성

(1) 자아존중감

<표 III-91>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1차년도 2.98에서 2차년도 3.03으로, 수치상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II-91 자아존중감

		N	평균	표준편차	t
자아존중감	1차 조사	186	2.98	.554	-1.359
	2차 조사	186	3.03	.588	

*p<.05 **p<.01 ***p<.001

<표 III-92>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1차 2.97 → 2차 3.0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1차 2.92 → 2차 3.0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1차 2.99 → 2차 3.01) 등의 대부분의 문항에서 수치상의 값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2 자아존중감 문항

자아존중감 문항		평균값	t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차 조사	2.97	-1.615
	2차 조사	3.05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차 조사	2.87	-1.154
	2차 조사	2.92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1차 조사	3.13	0.000
	2차 조사	3.13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차 조사	2.99	-0.292
	2차 조사	3.01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1차 조사	2.92	-1.944
	2차 조사	3.04	

*p<.05 **p<.01 ***p<.001

(2) 자아탄력성

<표 III-93>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1차년도 2.93에서 2차년도 2.96으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3 자아탄력성

		N	평균	표준편차	t
자아탄력성	1차 조사	186	2.93	0.516	-0.808
	2차 조사	186	2.96	0.551	

*p<.05 **p<.01 ***p<.001

<표 III-94>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1차 2.88 → 2차 2.98),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1차 2.92 → 2차 3.00),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1차 2.88 → 2차 2.92)에서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의 평균값이 조금 높아졌으나

통계적 수준에서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II-94 자아탄력성 문항

자아탄력성 문항		평균값	t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1차 조사	2.88	-1.631
	2차 조사	2.98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1차 조사	2.92	-1.338
	2차 조사	3.00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1차 조사	2.80	-0.198
	2차 조사	2.8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1차 조사	3.17	1.390
	2차 조사	3.09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1차 조사	2.88	-0.748
	2차 조사	2.92	

*p<.05 **p<.01 ***p<.001

(3) 자아행복감

<표 III-95>에 따르면, 2차년도에 추가된 자아행복감은 비행학업중단청소년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 사이에 통계적 유의수준에서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II-95 자아행복감(2차 추가)

		N	평균	표준편차	t
자아행복감	비행학업중단	186	2.61	.681	-0.177
	일반학업중단	599	2.60	.642	

*p<.05 **p<.01 ***p<.001

<표 III-96>에 따르면 자아행복감은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 한다’ 등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평균점수(2.61)와 비교해서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2.27)는 문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I-96 자아행복감 문항(2차 추가)

자아행복감 문항		평균값
나는 사는 게 즐겁다.	2차 조사	2.79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2차 조사	2.27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 한다.	2차 조사	2.78

*p<.05 **p<.01 ***p<.001

(4) 우울감

<표 III-97>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우울감은 1차년도 2.02에서 2차년도 2.00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7 우울감

		N	평균	표준편차	t
우울감	1차 조사	185	2.02	0.634	0.438
	2차 조사	185	2.00	0.634	

*p<.05 **p<.01 ***p<.001

<표 III-98>의 우울감을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문항에서 전년도 대비 평균값이 수치상으로 하락한 경향을 보이는 반면, ‘외롭다’(1차 2.03 → 2차 2.12),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1차 1.95 → 2차 2.02)에서 평균값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I-98 **우울감 문항**

우울감 문항		평균값	t
기운이 별로 없다.	1차조사	2.06	.287
	2차조사	2.05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1차조사	2.04	1.230
	2차조사	1.96	
걱정이 많다.	1차조사	2.52	1.613
	2차조사	2.40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1차조사	1.81	.920
	2차조사	1.76	
울기를 잘한다.	1차조사	1.85	.561
	2차조사	1.82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1차조사	2.12	.240
	2차조사	2.11	
외롭다.	1차조사	2.03	-1.360
	2차조사	2.12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1차조사	1.81	-.088
	2차조사	1.82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1차조사	1.95	-.831
	2차조사	2.02	
모든 일이 힘들다.	1차조사	1.95	.080
	2차조사	1.94	

*p<.05 **p<.01 ***p<.001

(5) 충동성

<표 III-99>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충동성은 1차년도 1.92에서 2차년도 1.86으로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III-99 **충동성**

		N	평균	표준편차	t
자기통제력	1차 조사	185	1.92	0.614	1.465
	2차 조사	185	1.86	0.600	

*p<.05 **p<.01 ***p<.001

<표 III-100>에 제시된 것과 같이 충동성을 측정한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1차 1.70 → 2차 1.72)를 제외하고,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1차 1.95 → 2차 1.92),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1차 2.00 → 2차 1.90),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1차 1.76 → 2차 1.69),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1차 2.20 → 2차 2.09)에서 평균값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I-100 충동성 문항

충동성 문항		평균값	t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1차조사	1.70	-0.289
	2차조사	1.7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1차조사	1.95	0.685
	2차조사	1.92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1차조사	2.00	1.322
	2차조사	1.90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1차조사	1.76	1.014
	2차조사	1.69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1차조사	2.20	1.613
	2차조사	2.09	

*p<.05 **p<.01 ***p<.001

(6) 게임중독성

<표 III-101>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게임중독성 역시 1차년도(1.33) 대비 2차년도(1.29)의 점수가 수치상으로 다소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101 게임중독성

		N	평균	표준편차	t
게임중독성	1차 조사	184	1.33	0.482	1.137
	2차 조사	184	1.29	0.516	

*p<.05 **p<.01 ***p<.001

<표 III-102>의 게임중독성을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1차 1.66 → 2차 1.48)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한다’(1차 1.37 → 2차 1.31),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1차 1.34 → 2차 1.28),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1차 1.37 → 2차 1.32)에서도 수치상으로 값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게임을 오랜 시간 즐기기는 하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게임에 빠지는 일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02 게임중독성 문항

게임중독성 문항		평균값	t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1차조사	1.66	3.180**
	2차조사	1.48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한다.	1차조사	1.37	1.181
	2차조사	1.31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1차조사	1.37	.817
	2차조사	1.32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1차조사	1.24	.215
	2차조사	1.23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1차조사	1.21	-.223
	2차조사	1.22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1차조사	1.23	-.576
	2차조사	1.25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1차조사	1.34	1.214
	2차조사	1.28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1차조사	1.25	.107
	2차조사	1.25	

*p<.05 **p<.01 ***p<.001

(7) 스마트폰 중독

<표 III-103>에 따르면, 2차년도에 추가된 스마트폰 중독 문항은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평균점수가 1.53으로,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평균점수 1.7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III-103 스마트폰 중독(2차 추가)

		N	평균	표준편차	t
스마트폰 중독	비행학업중단	186	1.53	.5671	4.146***
	일반학업중단	599	1.72	.5415	

*p<.05 **p<.01 ***p<.001

<표 III-104>에서 보는 것처럼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총 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2.17),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1.67),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1.57)는 평균점수(1.53)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1.3)는 평균점수와 비교해 점수가 가장 낮았다.

표 III-104 스마트폰 중독 문항(2차 추가)

SNS 중독 문항	평균값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 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1.48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1.67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1.46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1.34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30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1.36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2.17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1.57

(8)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표 III-105>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1차년도 2.91에서 2차년도 2.9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105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N	평균	표준편차	t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	1차 조사	181	2.91	.722	0.150
	2차 조사	181	2.90	.692	

*p<.05 **p<.01 ***p<.001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 문항별로 살펴보면, <표 III-106>에서와 같이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1차 2.55 → 2차 2.60)는 평균이 증가하여 긍정적으로 변화된 반면,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1차 3.07 → 2차 3.02),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1차 3.12 → 2차 3.09)는 평균이 감소하여 부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106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문항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평균값	t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차조사	2.55	-0.675
	2차조사	2.60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1차조사	3.07	0.811
	2차조사	3.02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1차조사	3.12	0.342
	2차조사	3.09	

*p<.05 **p<.01 ***p<.001

(9) 학력에 대한 인식

<표 III-107>에 따르면, 2차년도에 추가된 학력에 대한 인식에서는 비행학업중단청소년(283)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297)에 비해 낮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학업중단청소년들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들에 비해 우리사회의 학력차별주의를 덜 내면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인식의 반영일 수도 있다.

표 III-107 학력에 대한 생각(2차 추가)

		N	평균	표준편차	t
학력관	비행학업중단	186	2.83	.626	2.456*
	일반학업중단	599	2.97	.863	

*p<.05 **p<.01 ***p<.001

<표 III-108>에서와 같이 학력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등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를 제외하고 평균점수(2.83)와 비교해서 모두 높았다.

표 III-108 학력에 대한 생각 문항(2차 추가)

학력관 문항	평균값
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3.18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2.95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2.67

(10) 사회적 낙인

<표 III-109>에 따르면 2차년도에 추가된 사회적 낙인 문항은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평균점수가 2.07로 일반학업중단청소년(2.05)과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9 사회적 낙인(2차 추가)

		N	평균	표준편차	t
사회적 낙인	비행학업중단	186	2.07	0.475	-0.424
	일반학업중단	599	2.05	0.463	

*p<.05 **p<.01 ***p<.001

<표 III-110>에 따르면 사회적 낙인은 총 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2.73)는 평균점수(2.07)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 한다’(1.92),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1.97),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 되었다고 느낀다’(1.85),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1.87)는 평균점수(2.0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III-110 사회적 낙인 문항(2차 추가)

사회적 낙인 문항	평균값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2.08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2.04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2.07
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1.92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1.97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2.73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 되었다고 느낀다.	1.85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1.87

* 주: 1) 사회적 낙인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낙인에 대한 본인의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6번 문항은 역코딩 하였음

(11) 자립에 필요한 항목

<표 III-111>에 따르면, 2차년도에 추가된 자립에 필요한 항목은 비행학업중단청소년(2.55)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2.93)에 비해 낮았고, 이러한 두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학업중단청소년들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자립에 필요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인식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11 자립에 필요한 항목(2차 추가)

		N	평균	표준편차	t
자립관	비행학업중단	186	2.55	.742	7.178***
	일반학업중단	599	2.93	.611	

*p<.05 **p<.01 ***p<.001

<표 III-112>에서와 같이 자립에 필요한 항목은 총 9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이 가운데 ‘저축, 돈관리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2.73)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2.70), ‘직업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가 늘어야한다’(2.69)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목표의식을 갖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2.34)는 평균이 가장 낮았다.

표 III-112 자립에 필요한 항목 문항(2차 추가)

자립에 필요한 항목 문항	평균값
목표의식을 갖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34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2.38
자립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정보를 제공 해주는 성인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2.44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학업준비가 필요하다.	2.63
직업기술, 자격증취득을 위한 교육기회가 늘어야한다.	2.69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70
취업 및 대학진학과 관련한 진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2.58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갈등상황해결, 분노 조절 등의 사회관계훈련이 제공되어야한다.	2.50
저축, 돈 관리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	2.73

6.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문제행동 변화

1)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피해경험

(1) 집단따돌림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피해경험에 대해 1차 조사와 2차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표 III-1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집단따돌림(왕따)’의 경우 1명을 제외하고 대부분(99.5%)이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3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단위: 명, %)

	학업중단이후	지난조사이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있다	0 (0.0)	1 (0.5)	1.003
없다	186 (100.0)	185 (99.5)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2) 성적인 놀림당하기

<표 III-114>에 따르면, ‘성적인 놀림당하기’의 경우에도 지난조사 이후 대부분(99.5%) 성적인 놀림을 당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14

성적인 놀림 당하기

(단위: 명, %)

	학업중단이후	지난조사이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있다	1 (0.5)	1 (0.5)	.000
없다	185 (99.5)	185 (99.5)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3)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표 III-115>에 나타나듯이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일방적으로 음란물을 받은 피해'의 경우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15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단위: 명, %)

	학업중단이후	지난조사이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있다	2 (1.1)	1 (0.5)	.336
없다	184 (98.9)	185 (99.5)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4)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

<표 III-116>에 따르면,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의 경우 2차년도 조사에서 22%가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차년도 조사와 동일한 비율이었다.

표 III-116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 (단위: 명, %)

	학업중단이후	지난조사이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있다	4 (2.2)	4 (2.2)	.000
없다	182 (97.8)	182 (97.8)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5) 심하게 얻어맞기

<표 III-117>에 따르면, ‘심하게 얻어맞은 경험’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1명이었으나 2차 조사에서는 2명이 피해를 보고하였다.

표 III-117 심하게 얻어맞기(폭행) (단위: 명, %)

	학업중단이후	지난조사이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있다	1 (0.5)	2 (1.1)	.336
없다	185 (99.5)	184 (98.9)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6) 성폭력 당하기

<표 III-118>에 따르면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1차조사와 2차조사에서 모두 피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8

성폭력 당하기

(단위: 명, %)

	학업중단이후	지난조사이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있다	0 (0.0)	0 (0.0)	—
없다	186 (100.0)	186 (100.0)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2)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비행경험

(1) 담배 피우기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비행경험 역시 1차년 조사와 2차년도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III-119>에 따르면, '담배를 피운 경험'의 경우에는 1차년도 80.1%에서 2차년도에는 90.3%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III-119 담배 피우기 (단위: 명, %)

	학업중단이후 1차 조사	지난조사이후 2차 조사	χ^2
있다	149 (80.1)	168 (90.3)	7.702**
없다	37 (19.9)	18 (9.7)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2) 술 마시기

<표 III-120>에 따르면,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1차년 조사에서는 78.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2차년도에는 81.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II-120 술 마시기 (단위: 명, %)

	학업중단이후 1차 조사	지난조사이후 2차 조사	χ^2
있다	146 (78.5)	151 (81.2)	.418
없다	40 (21.5)	35 (18.8)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3)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표 III-121>에 따르면,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차년도 28.0%, 2차년도 14.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1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단위: 명, %)

	학업중단이후	지난조사이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있다	52 (28.0)	26 (14.0)	10.966***
없다	134 (72.0)	160 (86.0)	
전체	220 (100.0)	186 (100.0)	

*p<.05 **p<.01 ***p<.001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표 III-122>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경험’의 경우 1차년도 19.4%, 2차년도 12.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그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122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단위: 명, %)

	학업중단이후	지난조사이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있다	36 (19.4)	24 (12.9)	2.862
없다	150 (80.6)	162 (87.1)	
전체	220 (100.0)	186 (100.0)	

*p<.05 **p<.01 ***p<.001

(5) 남의 돈이나 물건 빼앗기

<표 III-123>에 따르면,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뺑뺑이를 한 경험’에 대해서는 1차년도 18.3%에서 2차년도에는 11.3%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III-123 남의 돈이나 물건 빼앗기(뺑 뜯기) (단위: 명, %)

	학업중단이후	지난조사이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있다	34 (18.3)	21 (11.3)	3.606*
없다	152 (81.7)	165 (88.7)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6) 음란물 보기

<표 III-124>에 따르면,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차년도 17.7%, 2차년도 16.7%로 수치상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4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 보기 (단위: 명, %)

	학업중단이후	지난조사이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있다	33 (17.7)	31 (16.7)	.075
없다	153 (82.3)	155 (83.3)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7) 돈 내기 또는 도박

<표 III-125>에 따르면, ‘인터넷을 포함하여 돈 내기 또는 도박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차년도 11.8%에서 2차년도 16.7%로 수치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는 없었다.

표 III-125 돈내기·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단위: 명, %)

	학업종단이후 1차 조사	지난조사이후 2차 조사	χ^2
있다	22 (11.8)	31 (16.7)	1.782
없다	164 (88.2)	155 (83.3)	
전체	186 (100.0)	186 (100.0)	

*p<.05 **p<.01 ***p<.001

(8) 자살 시도

<표 III-126>에 따르면, ‘자살 시도’의 경우 1차년도 7.0%, 2차년도 4.3%로 다른 비행유형에 비해서는 경험비율이 많지 않았고, 시간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I-126 자살 시도 (단위: 명, %)

	학업종단이후 1차 조사	지난조사이후 2차 조사	χ^2
있다	13 (7.0)	8 (4.3)	1.262
없다	173 (93.0)	178 (95.7)	
전체	220 (100.0)	186 (100.0)	

*p<.05 **p<.01 ***p<.001

(9) 공공장소의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표 III-127>에 따르면, ‘공공장소의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의 경우 1차년도 17.7%, 2차년도 10.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그 비율이 감소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7 공공장소의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단위: 명, %)

	학업중단이후	지난조사이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있다	33 (17.7)	19 (10.2)	4.382*
없다	153 (82.3)	167 (89.8)	
전체	220 (100.0)	186 (100.0)	

*p<.05 **p<.01 ***p<.001

(10) 약물(본드) 흡입

2차년도에 추가된 ‘약물(본드) 흡입’의 경우에는 <표 III-128>에 나타난 것처럼 1.6%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다수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8 약물(본드)흡입 (단위: 명, %)

	2차 조사
있다	3 (1.6)
없다	183 (98.4)
전체	186 (100.0)

(11) SNS에서의 피해 및 가해 정도

가. SNS에서의 피해 정도

<표 III-129>에 따르면 2차년도에 추가된 SNS에서의 피해 정도는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평균점수가 1.20,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평균점수는 1.19로 통계적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9 SNS에서의 피해 정도(2차 추가)

		N	평균	표준편차	t
SNS에서의 피해 정도	비행학업중단	186	1.20	0.411	-.140
	일반학업중단	599	1.19	0.346	

*p<.05 **p<.01 ***p<.001

SNS에서의 피해 정도는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표 III-130>에서와 같이 'SNS상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다'(1.33), 'SNS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대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1.35)는 다섯개의 문항 가운데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난 반면, 'SNS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1.07)는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표 III-130 SNS에서의 피해 정도 문항(2차 추가)

SNS 사용 문항		평균값
SNS상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다.	2차 조사	1.33
SNS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대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2차 조사	1.35
SNS상에서 나를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다.	2차 조사	1.22
SNS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2차 조사	1.07
SNS상에서 나에게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을 본 적이 있다.	2차 조사	1.15

*p<.05 **p<.01 ***p<.001

나. SNS에서의 가해 정도

SNS에서의 가해 정도 역시 <표 III-131>에서 보는 것처럼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평균점수가 1.16,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평균점수는 1.13으로 나타나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 수준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I-131 SNS에서의 가해 정도(2차 추가)

		N	평균	표준편차	t
SNS에서의 가해 정도	비행학업중단	186	1.16	0.442	-1.063
	일반학업중단	599	1.13	0.295	

*p<.05 **p<.01 ***p<.001

SNS에서의 가해 정도는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III-132>에 따르면, ‘SNS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1.38), ‘SNS를 통해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1.24)가 다섯 개의 문항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고, ‘SNS를 통해 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려놓은 적이 있다’(1.08)는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32 SNS에서의 가해 정도 문항(2차 추가)

SNS 사용 문항		평균값
SNS를 통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	2차 조사	1.11
SNS를 통해 허락 없이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올려놓은 적이 있다.	2차 조사	1.13
SNS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	2차 조사	1.38
SNS를 통해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	2차 조사	1.24
SNS를 통해 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려놓은 적이 있다.	2차 조사	1.08

*p<.05 **p<.01 ***p<.001

7.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및 인식

1) 보호처분의 내용

(1) 범죄 유형(복수 응답)

조사시점별로 공식기록상에 나타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표 III-133>에서와 같이 1차년도에는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절도'가 3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2차년도에는 '폭력'(29.7%)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절도(24.3%)'가 뒤를 이었다. 그 밖에 '교통범죄'는 1차년도와 비교해 증가한 반면(7.5% → 16.2%), '강도'와 '약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3 공식기록상의 범죄 유형(복수 응답) (단위: 명, %)

	폭력	절도	교통범죄	강도	약물	기타
1차 조사	45 (18.8)	73 (30.4)	18 (7.5)	4 (1.7)	7 (2.9)	93 (38.8)
2차 조사	22 (29.7)	18 (24.3)	12 (16.2)	1 (1.4)	1 (1.4)	15 (20.3)

(2) 범죄의 처분 내용

범죄를 저지른 이후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처분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표 III-134>에 제시된 것과 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기보호관찰'의 경우 1차년도 36.7%에서 2차년도 22.6%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단기보호관찰과 8호 처분, 기타 처분은 1차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4 범죄의 처분 내용(복수 응답) (단위: 명, %)

	불처분	규칙 위반	1호 처분	수강 명령	사회 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8호 처분	기타
1차 조사	0 (0.0)	6 (1.1)	93 (17.7)	62 (11.8)	87 (16.5)	16 (3.0)	193 (36.7)	42 (8.0)	27 (5.1)
2차 조사	7 (8.3)	0 (0.0)	3 (3.6)	1 (1.2)	9 (10.7)	3 (3.6)	19 (22.6)	8 (9.5)	34 (40.5)

(3) 부가적으로 받은 처분

<표 III-135>를 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부가적으로 받은 처분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야간외출제한명령’은 1차년도 56.4%에서 2차년도 10.1%로 크게 줄어든 반면, ‘재범위험 행위제한’이나 ‘일정량 이상 음주제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5 부가적으로 받은 처분(복수 응답) (단위: 명, %)

	야간외출 제한명령	재범 위험 행위 제한	일정량 이상 음주 제한	상담 교육	보호자 교육	기타
1차 조사	124 (56.4)	0 (0.0)	0 (0.0)	10 (4.5)	8 (3.6)	2 (0.9)
2차 조사	17 (10.1)	10 (5.9)	3 (1.8)	2 (1.2)	0 (0.0)	12 (7.1)

(4)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의견

<표 III-136>는 보호관찰관이 담당하고 있는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태도를 4가지 측면(약속한 날짜 출석, 보호관찰관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순응, 전화연락시 응대)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보호관찰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이 3.03으로 가장 높은 반면, ‘약속한 날짜 출석’(2.90), ‘전화연락시 응대’(2.91), ‘보호관찰관의 지도 순응’(2.92)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보호관찰 대상인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보다 긍정적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6

보호관찰관의 의견

(단위: 명, %)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모름/무응답	전체	평균
이 대상자는 보호관찰관과 약속한 날짜에 잘 나온다	4 (2.2)	43 (23.6)	102 (56.0)	32 (17.6)	47 (25.8)	134 (73.6)	1 (0.5)	182 (100.0)	2.90
이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한다	2 (1.1)	22 (12.1)	126 (69.2)	31 (17.0)	24 (13.2)	157 (86.2)	1 (0.5)	182 (100.0)	3.03
이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잘 따른다	3 (1.6)	42 (23.1)	103 (56.6)	33 (18.1)	45 (24.7)	136 (74.7)	1 (0.5)	182 (100.0)	2.92
이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이 전화연락을 하면 잘 받는다	8 (4.4)	35 (19.2)	104 (57.1)	34 (18.7)	43 (23.6)	138 (75.8)	1 (0.5)	182 (100.0)	2.91

2)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비행학업중단청소년에게는 <표 III-137>에 나타난 것과 같이 지난 1년 동안 ‘담당 보호관찰관의 변경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73.0%가 ‘변경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절반 이상의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담당 보호관찰관의 변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7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 여부 (단위: 명, %)

	2차 조사
없다	47 (27.0)
있다	127 (73.0)
전체	174 (100.0)

담당 보호관찰관이 변경된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확인한 결과, '1회'(39.4%), '2회'(25.2%)가 가장 많았고, 최고 '5회'까지 담당 보호관찰관이 변경된 경우도 있어 보호관찰 청소년과의 관계형성 및 지도의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III-138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 횟수 (단위: 명, %)

	2차 조사
1회	50 (39.4)
2회	32 (25.2)
3회	20 (15.7)
4회	19 (15.0)
5회	6 (4.7)
전체	127 (100.0)

<표 III-139>에 따르면, 담당 보호관찰관이 '나의 문제점 파악에 노력하신다'는 항목에 대해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평균점수는 1차년도 3.25에서 2차년도 3.43으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자들이 보호관찰관과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III-139 나의 문제점 파악에 노력하신다

(단위: 명, %)

조사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평균	t
1차 조사	1 (0.5)	8 (4.3)	122 (65.6)	55 (29.6)	9 (4.8)	177 (95.2)	186 (100.0)	3.25	-3.416**
2차 조사	3 (1.6)	3 (1.6)	84 (45.4)	85 (45.9)	6 (3.4)	169 (96.6)	175 (100.0)	3.43	

*p<.05 **p<.01 ***p<.001

<표 III-140>에 따르면, ‘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려고 하신다’는 항목에 대해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평균점수는 1차년도 3.16에서 2차년도 3.39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대부분의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은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려고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40 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려고 하신다

(단위: 명, %)

조사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평균	t
1차 조사	1 (0.5)	14 (7.5)	125 (67.3)	46 (24.7)	15 (8.0)	171 (92.0)	186 (100.0)	3.16	-4.230***
2차 조사	2 (1.1)	6 (3.4)	88 (50.4)	79 (45.1)	8 (4.5)	167 (95.5)	175 (100.0)	3.39	

*p<.05 **p<.01 ***p<.001

<표 III-141>에 따르면, ‘나를 잘 도와주신다’는 항목에 대해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평균점수는 1차년도 3.33에서 2차년도 3.46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상당수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은 보호관찰관이 자신을 잘 도와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41 나를 잘 도와주신다 (단위: 명, %)

조사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평균	t
1차 조사	0 (0.0)	7 (3.8)	112 (60.2)	67 (36.0)	7 (3.8)	179 (96.2)	186 (100.0)	3.33	-2.564*
2차 조사	3 (1.6)	5 (2.9)	75 (42.9)	92 (52.6)	8 (4.5)	167 (95.5)	175 (100.0)	3.46	

*p<.05 **p<.01 ***p<.001

<표 III-142>에 따르면, ‘나의 문제를 의논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평균점수는 1차년도 3.11에서 2차년도 3.30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여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상당수는 보호관찰관에게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42 나의 문제를 의논한다 (단위: 명, %)

조사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평균	t
1차 조사	3 (1.6)	20 (10.8)	114 (61.3)	49 (26.3)	23 (12.4)	163 (87.6)	186 (100.0)	3.11	-2.900**
2차 조사	4 (2.3)	15 (8.6)	80 (45.7)	76 (43.4)	19 (10.9)	156 (89.1)	175 (100.0)	3.30	

*p<.05 **p<.01 ***p<.001

3) 보호관찰 지원

(1) 이용 경험

현재 보호관찰소를 통해 지원 받고 있는 프로그램의 이용현황을 파악한 결과, <표 III-143>에 나타난 것과 같이 ‘검정고시학원 교육비 지원’이 3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습·진로지도’

26.8%,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21.4%, '경제적 지원' 18.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숙소정보 제공'(4.2%) 이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숙소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많지 않은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I-143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 이용 여부(복수 응답) (단위: 명, %)

이용 여부	경제적 지원	학습/ 진로 지도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숙소 정보 제공	검정고시 교육비 지원	의료 지원	심리 상담지원	부모/ 보호자교육 · 상담지원
있다	31 (18.5)	45 (26.8)	36 (21.4)	7 (4.2)	52 (31.0)	19 (11.3)	21 (12.5)	22 (13.1)
없다	138 (81.5)	123 (73.2)	132 (78.6)	161 (95.8)	116 (69.0)	148 (88.7)	147 (87.5)	146 (86.9)

(2) 만족도

보호관찰지원 프로그램의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 각 프로그램별 만족정도를 평가한 결과, <표 III-144>와 같이 '검정고시학원 교육비 지원'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90.2%로 높았고, 평균 역시 3.37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리상담 지원'의 경우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90.0%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진로지도' 역시 긍정적인 평가가 93.0%로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하였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역시 85.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III-144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에 대한 만족도(2차 조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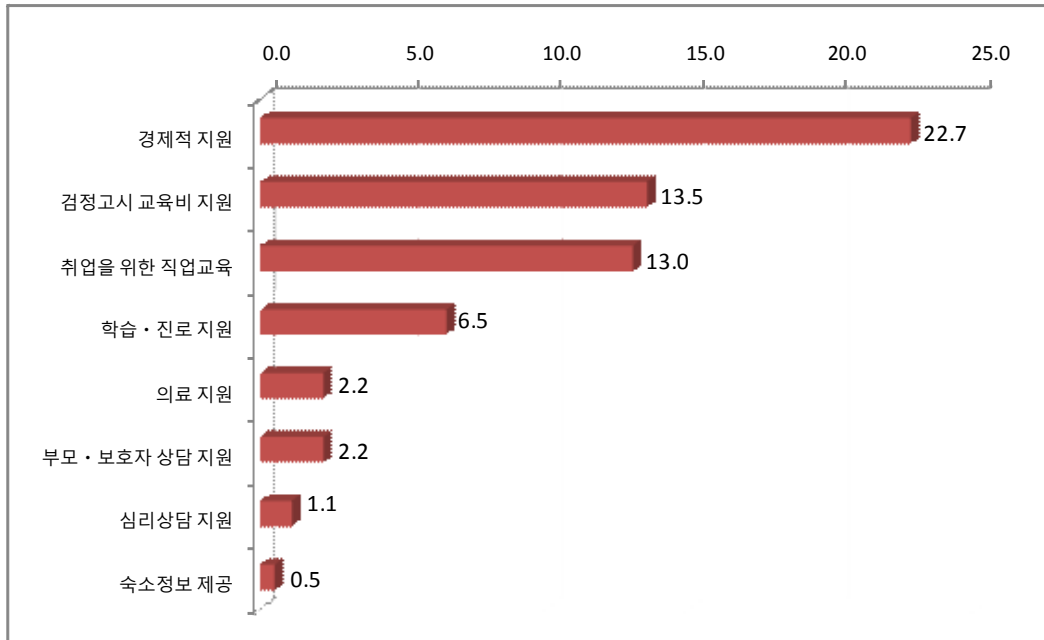
	만족도							평균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불만	만족	전체	
경제적 지원	2	5	20	4	7	24	31	2.84
	(6.5)	(16.1)	(64.5)	(12.9)	(22.6)	(77.4)	(100.0)	
학습 · 진로 지도	0	3	25	15	3	40	43	3.28
	(0.0)	(7.0)	(58.1)	(34.9)	(7.0)	(93.0)	(100.0)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0	5	20	10	5	30	35	3.14
	(0.0)	(14.3)	(57.1)	(28.6)	(14.3)	(85.7)	(100.0)	
숙소정보 제공	1	2	3	1	3	4	7	2.57
	(14.3)	(28.6)	(42.9)	(14.3)	(42.9)	(57.1)	(100.0)	
검정고시 교육비 지원	1	4	21	25	5	46	51	3.37
	(2.0)	(7.8)	(41.2)	(49.0)	(9.8)	(90.2)	(100.0)	
의료 지원	1	3	8	6	4	14	18	3.06
	(5.6)	(16.7)	(44.4)	(33.3)	(22.2)	(77.8)	(100.0)	
심리상담 지원	1	1	12	6	2	18	20	3.15
	(5.0)	(5.0)	(60.0)	(30.0)	(10.0)	(90.0)	(100.0)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 · 상담 지원	1	3	12	4	4	16	20	2.95
	(5.0)	(15.0)	(60.0)	(20.0)	(20.0)	(80.0)	(100.0)	

반면, ‘경제적 지원’과 ‘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각각 22.6%, 22.2%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가장 불만족스러운 지원 프로그램은 ‘숙소정보 제공’(42.9%)으로 나타났다. ‘숙소정보 제공’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자도 적을 뿐 아니라 이용 후 만족도도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지원받고 싶은 프로그램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보호관찰 기간중 지원받고 싶은 프로그램은 [그림 III-6]에 나타난 것과 같이 ‘경제적 지원’이 2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검정고시 교육비 지원’ 13.5%,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13.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현재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청소년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검정고시 지원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지원을, 장기적으로는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이용경험 및 만족도가 낮은 숙소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요청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 지원받고 싶은 프로그램(N=185, %)

8. 소결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2차년도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업지속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 조사 이후 대부분의 청소년(84.9%)이 여전히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86명 중에서 20명(10.8%) 정도만 복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9명(4.9%)은 학업을 재중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상당수는 기존의 교육체계 내에 재진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진입을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학업을 재중단한 이유로 검정고시나 특기소질을 살리기 위한 긍정적 의견보다는 공부하기 싫어서라든지 학교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등 부정적 의견이 주로 언급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학업중단시 학교로부터 다양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 중단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업중단 이후 경험이나 인식과 관련해서는 아르바이트나 취업해서 일을 했다는 응답이 67.7%로 가장 많았고, 검정고시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61.8%로 높은 편이었다. 학업중단 후 평균 근무시간은 평일에 약 8시간, 휴일에도 약 6시간 이상 일하는 반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평일 약 3.5시간, 휴일 약 2.5시간으로 나타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을 위해 보내는 시간보다는 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업중단 이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돌아다니는 ‘무업형’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미·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직업기술 교육, 대안학교와 같은 긍정적 활동에 참여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 1년 동안 문제를 일으켜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5.1%로 형사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다만, 학업중단 이후 가출을 한 비율은 1차년도와 비교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이후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경로는 인터넷(61.6%)이며, 교육·복지·고용관련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1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이후 필요한 정보로는 직업에 관한 정보 및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학업중단 이후 진로정보 탐색 과정에서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은 인터넷이나 지인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높고,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는 이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지난 1년 동안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일상생활 및 생애사건의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의 변화는 거의 없었고,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친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생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넷째,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혹은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는 1차년도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의 경우 1차년도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는 반면에 친구의 비행성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에 같이 어울려 다니던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의 비공식통제는 1차년도와 비교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물리적·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은 변화가 없거나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심리적 측면에서는 1차년도와 비교해 볼 때 2차년도의 결과는 변화가 크지 않거나 다소 나아지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을 반영하는 자아존중감은 1차년도 2.98에서 2차년도 3.03으로 향상되었고, 일탈이나 범죄의 주요한 이론적 변인으로 일컬어지는 충동성도 1차년도 1.92에서 2차년도 1.86으로 조금 나아진 양상을 보였다. 반면, 자아탄력성이나 자아행복감,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은 더 나빠지지도 더 좋아지지도 않은 채 1차년도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학업중단이 심리적 측면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피해경험 대비 일탈행위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 문제행동과 관련해 피해자이기보다는 가해자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일탈행동의 감소경향이 자기보고식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소-보고(under-report)의 경향으로 인한 효과일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년도 대비 흡연과 음주, 도박 등의 유형에서는 오히려 일탈행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행동은 감소하는 반면에 사소한 문제행동은 증가하는 경향도 보인다.

2차년도에서는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SNS에서의 피해경험 및 일탈경험을 질문하였는데, SNS에서 정보유출이나 욕설, 따돌림,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자주 경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프라인에서의 피해-가해 경험과 달리 SNS에서는 가해경험보다는 피해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양상이 조금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자기보고식 조사에 나타난 문제행동과는 별개로 보호관찰소 및 법원에 의해 처분을

받은 범죄유형을 살펴본 결과, 1차년도와 비교해 폭력범죄 및 교통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절도범죄 및 강도범죄, 약물범죄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범죄로 인해 받게 된 처분으로는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장기보호관찰’이 가장 많았고, 기타 처분의 내용으로는 ‘소년부 송치’,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가처분으로는 ‘야간의출제한명령’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1차년도와 다르게 ‘재범 위험 행위제한’도 일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부가처분으로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검정고시 등 보호관찰의 지시에 따를 것’등이 언급되었다.

여덟째,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업중단청소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2차년도에는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및 보호관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을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년 동안 담당보호관찰관이 바뀌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73.0%)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으며, 1차년도와 비교해도 보호관찰관과의 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청소년에 대한 평가는 보호관찰관에 대한 평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는데, 특히 ‘약속시간 준수’와 ‘전화연락 응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검정고시 교육비 지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만족도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습·진로지도’ 및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에 대한 이용경험도 높은 편이며, 이에 대한 만족도도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나, 실제 이용이나 만족도와는 별개로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경제적 필요의 충족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IV 장

심층면접에 나타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변화

1. 조사대상자의 특성
2. 학업중단 지속여부
3. 일상생활의 변화
4. 심리적 변화
5. 문제행동과 피해경험
6.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7. 소결

제 VI 장

심층면접에 나타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변화*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면접대상이 된 청소년은 모두 14명이다. 이들 중 4명은 예비조사를 위해 만난 대상자들로 작년과 올해의 변화과정을 알 수는 없으나 심층면접분석에는 포함시켰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면접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모두 10명이다. 작년 면접대상자가 12명이었는데 이들 중 1명이 보호관찰 종료후, 면접거부의사를 밝혔고, 1명은 학교에 복교하여 보호자와 본인이 면접을 꺼려했다. 대상자들의 성별을 보면 남학생은 12명, 여학생은 2명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면접대상이 된 10명의 학생들 중 면접 이후 학교로 복교하여 현재도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사례는 여학생 2명과 남학생 1명 총 3명이었다. 나머지 7명의 대상자중 6명이 학업중단 지속상태였으며 한명은 복교했다가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재비행여부를 보면 네 명의 대상자들이 작년 면접 이후 재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장은 김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IV-1 조사대상자의 특성

사례	나이	성별	학업중단지속여부	재비행여부	거주 지역
사례 1	18세	남	학업중단지속	Y	서울
사례 2	20세	여	복교	N	경기도
사례 3	20세	남	학업중단지속	N	서울
사례 4	18세	남	복교 후 학업중단	N	서울
사례 5	20세	남	학업중단지속	Y	서울
사례 6	19세	여	학업중단지속	N	서울
사례 7	20세	남	학업중단지속	Y	경기도
사례 8	18세	남	학업중단지속	Y	경기도
사례 9	17세	남	올해 첫 면접	올해 첫 면접	경기도
사례 10	19세	남	올해 첫 면접	올해 첫 면접	경기도
사례 11	19세	남	올해 첫 면접	올해 첫 면접	경기도
사례 12	19세	남	올해 첫 면접	올해 첫 면접	경기도
사례 13	17세	남	복교	N	경기도
사례 14	18세	여	복교	N	경기도

올해에는 보호관찰관에 대한 심층면접도 이루어졌는데, 두 명의 보호관찰관을 통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프로그램의 실태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심리·환경적 특성에 관해 조사하였다. 이들의 경력은 각 2년 4개월과 3년으로 길지 않으나 소년보호만을 담당하여 유용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표 IV-2 전문가 특성

사례	경력	근무지역
보호관찰관 1	2년 4개월	경기도
보호관찰관 2	3년	경기도

2. 학업중단 지속여부

1) 방황 이후 제자리로-학교로 돌아간 아이들

학업 중단 후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간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학교로 돌아가 면접 당시까지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학생들은 다른 피면접자들에 비해 가정환경이나 기타 주변 상황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사례2의 여학생도 중등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한 후 방황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간 사례이다. 작년에 밝고 명랑하던 모습에 비해서 면접에 큰 저항감을 보였고 대부분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이러한 태도는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 기인하는 것 같았다.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보호관찰의 재비행 방지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사례2의 경우는 역으로 작년보다 더 큰 저항감을 보였다. 복교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후 결정문에 복교를 하도록 지시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전체적인 면접내용을 보면 친구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고 싶은 열망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Q : 작년에 면접하고 복교했어?

A : 네.

Q : 지금 다녀?

A : 네.

(중략)

Q : ○○고등학교 가게 된 제일 큰이유가 뭐야?

A : 친구들이 넣어줬어요.

Q : 전에 만나던 친구들?

A : 네.

(중략)

Q :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진로가?

A : 별로 신경 안써서 몰라요..

Q : 다니고 나서 생각해볼 거야?

A : 네.

Q : 학교 지내기 어때?

A : 재밌어요...

Q : 어떤 점이 재밌어?

A : 학교 가면 별로 못 만난 애들도 학교가면 보니까..

Q : 친구들 몇 명이나 있어?

A : 3년제에 3학년 애들도 많고 2년제는 저랑 같이 복교한 친구들도 많고..

Q : 학교 다니기 이런 점이 안 좋다 이런 건 있어?

A : 없어요..

(사례2)

대상자가 다니는 학교는 2년제 특성화 고교로 대상자는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 이외에 학업이나 졸업이후의 진로 등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었으나 대상자에게 소속감을 주고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비행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사례2와 달리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사례13은 학교에서 나이 어린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보람과 재미가 충만한 것으로 보였다. 사례13은 작년 면접에서도 가정환경이 가장 안정적이었고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착실히 하는 대상자였다. 때문에 올해 면접에서 가장 적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상외의 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Q : 엄마가 요즘 학교 가니까 많이 좋아 하셨겠다. 엄마랑 사이는 좋아지고?

A : 네 완전 좋아하죠. 엄마랑은 사이좋아요. 가족이랑은 다 사이 좋아요.

Q : ○○ 고등학교는 인문계라고 했지? 여기는 니가 다니던 데는 아니지. 그럼 아는 사람은 없어?

A : 한 명 있는데요, 여기 근처에 가면 아는 애들도 많고 챙피하고 해서 좀 먼데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도 한명 있더라구요.(웃음)

Q : 그럼 니 위에 학년 애들은 다 너랑 동갑이잖아. 애들도 알아? 너 복교한 거? 건들진 않아?

A : 네 안 건들여요, 2학년 애들도 1학년 애들도 다 친해요

Q : 그럼 1학년 애들이랑 말 편하게 하니?

A : 아니요. 근데 1학년 애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말 편하게 하라고, 같이 밥먹고 놀기도 하는데.. 아직도 ‘형 뭐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해요.

(중략)

A : 네 재미있어요, 작년부터 다니고 싶었고

Q : 근데 학교가 왜 가고 싶었어?

A :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창문 보면 애들 학교 가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원래 중학교 때는 학교가기 싫었는데, 막상 아무것도 안하고 노니까 ‘내가 지금 뭐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Q : 학교 안갈 때 부모님들이랑 갈등은 없었어?

A : 있었어요. 학교 안가고 집 들어오면, 왜 안 갔냐고 하셨죠. 그때는 막 대들고 그때는 성격도 안 좋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선생님이랑 이거 상담할 때 대충~ 이렇게 (눅듯이) 앉아서 했는데 (웃음). 근데.. 학교 안 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혼나고 ..그래도 꾸준히 안 갔어요. 가기 싫었어요. 재미없고, 지루하고

Q :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때는, 그럼 검정고시 본 이후야?

A : 검정고시 보기 전이죠. 아 .. 원래는 고졸 검정고시를 아빠가 보라고 했는데..고졸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입을 보고 고등학교에 간 거죠.

Q : 뭐 친구의 영향이나 그런 건 아니고 너 혼자 느낀 거였어?

A : 네 저 혼자요.

(사례13)

사례13의 성공적인 복교생활은 본인의 성향과 안정적인 가정환경과 좋은 선생님이라는 삼박자가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사례13은 면접대상이 된 비행청소년 가운데서도 예외적인 사례이다. 면접내용을 보면 학과 공부도 큰 어려움 없이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다시 학업을 중단하거나 재비행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Q : 혹시 복교한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게 있나..하고..

A : 어려운거 없어요.

Q : 공부는?

A : 네 공부요? 처음엔 안하다가 어렵기도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Q : 담임선생님이 너 지금 상황을 다 아서? 관찰 가는 것도 아시고?

A : 네 다 아시는데 근데 그건 선생님이랑 저랑 아는 비밀로 했어요, 애들은 그냥 저 1년 째는 착한 형으로 알고 있어요

Q : 담임선생님이 여자선생님이셔 남자선생님이셔?

A : 네 남자선생님이신데 좀 연세가 많으시고, 제 상황 아시고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저를 따로 불러서 처음부터 다 알려주시고.. 한번은 실수라고 이제부터 열심히 하라고 하시면서,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몰래 공부도 가르쳐주시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많이 따라갔어요(웃음)

Q : 그래? 그래서 몇 등 정도나?

A : 잘하진 않아요, 그래도 한 300명중에 반?

(사례13)

사례14는 작년 보호관찰을 받을 당시, 가출후 남자 청소년들에게 잡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갈취와 절도의 공범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 성매매로 인해 임신과 낙태, 성병감염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였었다. 그러나 올해는 한층 의젓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미용기술을 배워주는 학교에 다니며 학교생활에 적응해서 즐겁게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면접 당시 교복 입은 모습이 부러워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러한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피면접자와 잘 맞는 것으로 보였다.

Q : 학교는 좀 어때? 학교 얘기 좀 해볼까?

A : 학교.. 학교 거의 친구들이 다 거기 다녀서..

Q :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옛날 친구들?

A : 네. 중학교 때 친구도 있고, 이번에 올라와서 친해진 애들도 있고.. 그래서 딱히 불편한거 없어요. 그냥 다 재밌어요.

(중략)

Q : 근데도 1학년.. 원래 한 살 어린 친구들이 야간으로 온다는거지?

A : 네. 그렇더라고요.

Q : 학년은 같고?

A : 네. 학년은 똑같은데 나이만 다른 거 예요.

Q : 그럼 지금 ○○는 1학년으로 아예 들어간 거야?

A : 네.

Q : 그럼 나이 어린애들하고 관계가 좀 불편할거 같은데?

A : 다 안 친해요.

Q : 개네들하고 아예 그냥 썬까고 지내?

A : 네. 동갑 애들 몇 명만 그냥 인사하고 지내지 언니 오빠들도 그냥 좀 친해졌..

Q : 공학이야? 남녀 합반이야?

A : 네. 좀 친해졌다는 언니, 오빠들도 그냥 인사만하지 나이 어린애들이랑 그렇게 안 친해요.

Q : 나이 어린애들은 개네들끼리 놀고? 그러면 지금 거기서는 뭘 배워? 인문계야?

A : 미용과.

(중략)

Q : 근데 어떻게 가고 싶었나? 그 전엔 안가고 싶다가?

A : 전에는 딱히 생각도 없고 그랬는데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례14)

학교가 비행을 예방하고 학생들에게 소속감을 주면서 동시에 졸업장 취득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므로 특성화 학교도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나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지도와 상담 등 내실 있는 운영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는 있었다. 물론 비행학생들은 끈기 있게 배우려는 자세가 부족한 특성이 있고 학교도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때문에 보다 다양한 종류의 학교들과 대안학교들이 설립되어 학생들의 욕구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사례14의 경우에도 면접 내용을 유추하면 학교 프로그램이 주로 성인 위주로 운영되고, 기술 습득이 가능할 만큼 충실한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Q : 학교가 재미있는 걸 안 가르쳐줘?

A : 아뇨, 재밌긴 한데..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거기 아줌마들도 계셔서.. 딱 보면 거의 다 아줌마 위주로 막 하고..

Q : 수업을?

A :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Q : 자격증을 따야 졸업이 되는거 아닌가?

A : 네, 맞아요.

Q : 그럼 자격증을 어쨌거나 따야 될 텐데. 그래야 졸업이 되니까.

A : 자격증을 내일만 따고 나갈거라서.

Q : 네일.. 아 그 중에 하나만 따면 되? 뭐 헤어든, 네일이든..

A : 헤어는 그거.. 졸업만 하면 자격증 주고..

Q : 아 그거는? 헤어는?

A : 네. 나머지는 다 알아서(해야 되요).....

(사례14)

2) 다시 학교 밖으로-복교후 학업을 재중단한 아이들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문제 행동으로 인하여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업을 중단한 후 다시 학업으로 복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는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정환경이나 심리적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으므로 복교한다 하더라도 재적응에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심층면접에서 본인이 밝히는 재중단의 원인은 선생님이나 급우와의 갈등,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그러한 표면적 원인 뒤에 숨겨진 심층적 원인은 보다 복잡적이고 다중적이라고 느껴진다. 사례4의 경우, 학교를 중퇴한 뒤 복교하였지만 자신의 나이가 많다는 것에 자괴감이 있었고 적응을 잘 하지 못하였다. 이는 앞서 사례13이 어린 동급생들과 즐겁게 학교생활을 영위해가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잦은 결석, 급우와의 문제, 선생님과 갈등 등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들이 반복됨으로써 다시 한 번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Q :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A : 복교했다가 자퇴했어요.

Q : 왜?

A : 힘들어서요.

Q : 어떤 점이 힘들어서?

A : 한살 어린애들이랑 다니다 보니깐.. 적응이 안돼요..

Q : 애들이 어떻게 해요?

A : 그런 건 아닌데.. 무시한단 느낌 받아서.

(중략)

Q : 선생님이 학업중단숙려제라 해서 학교관두기 전에 얼마동안 생각해보라 그런 기간 있지 않아?

A : 네. 근데 제가 안했어요.

(중략)

Q : 복교해서 지각하고 담배피고 그런 건 없었어요?

A : 무단결석은 많았어요..

Q : 무단결석 며칠이나 했어?

A : 이 주나 삼 주요.

(중략)

Q : 애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A :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해요.

Q : 싸우거나 그런 적은?

A : 싸웠죠..

Q : 때렸어?

A : 네..

Q : 애들 많이 다쳤어?

A : 부모님이랑 얘기하고 사과하고 끝났어요.

Q : 애들은 어떻게 다쳤는데?

A : 심하게 다치진 않았어요..

(사례4)

사례4는 작년 면접에서도 연구자와 눈도 맞추지 않고, 대부분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여 면접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린 동급생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갈등이 폭력으로 표출되었으며 무단결석을 하기도 하다가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다. 다시 보호관찰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추가 비행을 저지르지지는 않았으나 향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였다.

사례10은 중학교는 졸업했으나 고등학교에서 두 번의 학업중단 끝에 현재 학업중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례10은 예비조사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면접한 대상자이다.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것이 복교 후 학업을 재중단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루하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으며 즐거나 멍한 상태에서 수업시간의 대부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사례14가 직업기술 학교에 입학해 즐겁게 생활해나가는데 반해 사례10은 인문계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대학 진학을 위한 무조건적인 인문계 일반고교 진학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Q : 지금 학교는 안다니고 있는 거지?

A : 네.

Q : 언제부터?

A : 자퇴를 두 번 했어요. 1년 전에 한번하고 2년 전에 한번하고.

Q : 그럼 친구들이 지금 고3인가?

A : 네.

Q : 중학교는 잘 다니다가 왜 고등학교 때...?

A : 일이 좀 하고 싶어서요.

Q : 고 1때?

A : 네.

Q : 고 1때는 일이 하고 싶어서 (자퇴)했고, 그럼 고2 때는?

A : 학교에 가면 그냥 잠만 자가지고요.. 공부도 안하고.. 그냥 일을 좀 빨리 시작했어요.

Q : 얼마나 다니다 자퇴한 거야?

A : 학교요? 고등학교요? 한 달 좀 안돼서...

Q : 무슨 사건이 있었어?

A : 아니요. 지루해가지고...

Q : 그러다 언제 복교했어?

A : 고2때 고1로 복교했어요.

Q : 그때는 얼마나 다녔어?

A : 그때도 한 달 다녔어요. 다시 한 번 마음먹었는데...아니었어요.

Q : 왜 아니었어?

A : 잠만 자고 그냥 시간만 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귀에 안 들어오고)...

(사례10)

학업과 진학이 가장 큰 목적인 일반 학교에서 학업에 흥미를 잃고 성적이 뒤처지게 되면 학교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례10은 고등학교에 진학후 처음으로 자퇴를 하고 다시 복교 후 한 달 여 만에 자퇴하게 된다. 사례4와 마찬가지로 자신보다 나이 어린 동급생들과 학교를 다니는 일이 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례4가 동급생들이 자신을 깔본다고 여겨 폭력을 행사한 것과 달리 사례10은 나이 어린 동급생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상황자체가 부끄러웠다고 한다.

사례11의 경우도 예비조사를 위해 만난 대상자로 작년의 상황은 알지 못했다. 체구가 작고 달변이었는데 다른 면접자들에 비해 어린 나이에 상대적으로 다양한 비행전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학교 1학년부터 학업중단(유예)과 복교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 세 번이나 유예하고, 현재는 학업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Q : 처음에 학교 유예된 계기가 있었어요?

A :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깐 방황을 하게 되고..반항도 하고..공부라는 자체가 싫었어요.

Q : 학교를 안나가다보니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거구나?

A : 그런 것보다 연예활동도 해보고 피팅 쪽도 해보고

Q : 피팅?

A : 피팅 모델이요.. 연예계활동도 해보고 목공도예도 해보고 싶었고..학교 보다 이런 쪽이 더 맞더라고요

Q : 학교가 너랑 잘 안 맞는다는 거니?

A : 네 공부라는 게 잘 안 맞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싫어하는 과목이 있자나요. 좋아하는 과목이 잘됐으니까 좋아하게 되겠죠.. 저도 좋아하다보니깐 다른 것도 다 해보고 싶었어요.

(중략)

Q : 중학교 2학년 때는 복교 했었자나

A : 다시 다니고 싶었는데 재판이 딱 걸렸어요. 사고 친 게 딱 걸려서 빠져나갈 생각만

하다가 거짓말이 되게 심했거든요 인정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따지고 들어가서 대들고 그러다 보니깐 경찰서 가서도 도망갈 생각만하고 도망가서 나중에 구인돼서 몇 개월 동안 도망 다니다가 구인되고.. 이젠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또 눈초리가 안 좋아져요 학교를 안다니다 보면..아들이 뭐하나 부모님께 뭐하나 물어보면 제 아들은 건달이다 이럼 쪽팔릴 거 아니에요 또 비행청소년들은 학교 안다니면 다른 친구들이 너 어디까지 나왔다 물어보면 따름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중졸까지 나왔다 하면 저는 중졸까지 나왔다 하면 쪽팔려서 싫어요. 부끄러워요.. 좀 개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기도 하고....복교해서 이제 후배랑 다니다 보니깐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러다가 안다니고..후배가 싫어서..그래서 소년원 들락날락 했어요..

(사례11)

사례12도 예비조사를 위해 올해 처음 만난 대상자였다. 중학교를 한번 유예하고 다시 입학후 졸업했지만 고등학교를 중퇴 후 완전히 학교를 그만둔 상태였다. 선생님들이 자신과 같은 복교생들을 의심하는 것이 짜증났다는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전반적으로 고등학교의 엄격한 규율에 적응하지 못했고 주변의 낙인으로 인해 심적 갈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A : 좀 긴데.. 중 3때 유예 당하고요 안 나가서 다시 1년 뒤에 복교해서 다니고 중학교 졸업하고 000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Q : 그냥 일반이죠?

A : 인문계요. 그리고 6개월 다니고 자퇴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다니고 있다가 지금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Q : 그럼 중3때 유예하고 나서 검정고시로?

A : 아뇨 중학교 복교해서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자퇴했어요.

(중략)

Q : 처음에 유예한 이유는 뭐 때문이니?

A : 처음에는 학교 안 나가고...친구들이랑 밖에 돌아다니고..

Q :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

A : 네..그냥 학교 나가기가 싫어가지고... 구치소에 가니깐 어른들이 중학교는 다니라고 해서 중학교를 다녀야했다고 생각했어요.

Q : 그럼 그냥 학교 다니기가 싫었던 거야? 아니면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서?

A : 네.. 친구들과 노는 게 재미있어서.

Q : 그럼 다시 중학교에 재입학하게 된 거는 부모님이 권유해서? 아니면 돌아가고 싶어서?

A : 그거는...구치소 가니까요..중졸도 못하고,,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중학교를 졸업하자 해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깐 뜻대로 안돼서 자퇴했어요.
(중략)

Q : 고등학교 입학해서 자퇴한 이유는 있어요?

A :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서요..중학교 때랑 틀려서요..규칙도 많고.. 다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선생님과 트러블이 생기고..복교했던 이유로 막 복교한 애들만 찢러보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나면 너희들이 담배 피웠지 막 이렇게요... 2,3학년 들이 담배 피면 저기서 하면 안되는데.. 하고 저는 안했죠 근데 자꾸 찢러보는 거예요.. 바로 앞애가 화장실이 여서..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랑 싸웠어요..

(사례12)

3)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아이들

2차년도 심층면접대상자 10명중 6명은 지속적 학업중단 상태이다. 사례9를 제외한 6명의 대상자들은 작년 면접 당시에 학업중단 상태였고, 현재까지도 학업중단 상태인 것이다. 이들에게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 자체가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질 만큼 학업중단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사례3의 경우, 중학교에서만 학업중단을 두 차례 한 이후, 지속적인 학업중단 상태였다. 작년 면접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비행으로 인해 교내에서 낙인이 찍힌 상태였고, 체벌을 당한 것에 대한 모멸감이 컸으며 교사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높아 자퇴를 하게 된 원인을 교사 탓으로 귀인 했었다. 바로 밑의 동생도 자퇴를 한 상황으로 작년 면접 당시에도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비록 학업중단은 지속된 상태였지만 김정고시를 보겠다는 의지는 비쳤다.

Q : 중학교 때 관둔 거였지?

A : 중학교 2학년 때요.

Q :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A : 제가 몇 달 전에 일하다 교통사고 나서 쉬고 있어요.

Q : 면담한 이후로 복교는?

A : 안했어요.

(중략)

Q : 다른 기술은? 자동차 정비?

A : 일단은.. 검정고시부터 보고 그런 건 나중에 차차 생각해서 해볼려고요.. 지금 급한게 검정고시라서요..

Q : 중학교?

A : 고등학교 들어갈 검정고시요.. 중졸 검정고시

Q :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고등학교도 볼 거예요?

A : 네 봐야죠.

Q : 장래계획은?

A :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검정고시부터 합격하려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볼게요..

(사례3)

사례1도 검정고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실제 학생들의 의지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보호관찰관도 비행청소년들의 변화에 대한 의지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A :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 아이들조차도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검정고시나 학교 복교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줘도 다시 그만두고 지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아도 안할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힘들죠.

(보호관찰관 2)

사례5는 작년 면접 당시 포크레인 기사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으나 아버지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상태였었다. 학교로 왜 돌아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단순히 복교할 마음이 없었다고 했으며 공부가 머리가 들어오지 않아 검정고시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Q : 복교를 안 한 이유가 모야?

A : 복교는 할 마음이 없었어요. 검정고시나 봐야겠다.. 했는데 공부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안 보게 됐어요.

(사례5)

사례6은 올해 초에 검정고시를 보고 떨어진 후 다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정환경이 원만했고 비행전력도 심각하지 않은 명랑하고 평범한 여고생이었는데 일년 동안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 스스로 그냥 노는 것이 좋아서라고 밝혔듯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생활에 만족해서 딱히 학교로 돌아갈 의미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집안 사정상 대학진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으나 사실 집안 사정에 앞서 본인의 의지도 희박해 보였다. 작년에는 보컬강사가 꿈이라고 했지만 힘든 아르바이트와 유흥으로 하루하루를 허비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Q : 학교에 못 돌아간 건 나이가 있어서?

A : 나이도 있고..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Q : 그럼 이제는 장래에 뭘 하고 싶어?

A :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은 검정고시 합격만 생각하고 있어요. 알바랑..

(중략)

Q : 진로나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A : 했죠..근데 생각하는 건 없다고 얘기했어요..대학교는 아직 생각중이고.. 엄마는 가라는데.. 엄마 계획은 오빠가 20살인데 작년에 갔다가 오빠가 제가 가니깐.. 오빠가 군대 가면 제가 가서 등록금 내주면 되니깐.. 근데 오빠가 떨어져서 망했어요..

Q : 그럼 오빠는 재수 준비해?

A : 네.. 저는 갈까 말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가면 엄마가 2배로 내야 되니깐.. 지방 쪽에 큰외삼촌 집근처에 대학이 있어서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례6)

사례7은 작년 면접 대상자중 가장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심리적 문제가 심각했으며 술과 담배, 폭력으로 인해 몸도 많이 망가진 상태였다. 악화된 집안사정으로 학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Q : 작년에 면접하고 지난 1년 동안 학교 갈 생각은 안했어?

A : 네. 자격증 따고 일해야겠다.. 생각했어요.

Q : 앞으로 계획은 어때?

A : 경기희망리본본부라고 취업성공패키지랑 비슷하게 있는데 수원 수급자들만 다니는 곳인데 거기서 자동차 정비하면서 카센터에서 일하면서 일 배우고 있어요.

(사례7)

작년 면접 당시 담당 보호관찰관의 관심과 본인의 노력으로 마음을 다잡은 듯이 보였으나 올해 다시 만난 사례8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보호관찰이 연장된 상태였다. 비행친구들과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형이 대학을 다니는 지방에 내려갈 계획이라고 했으나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재비행을 저지른 것이다. 지난 면접에서 다시는 학교에 돌아가기 싫다고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지속적인 학업중단 상태로 남아있었다.

Q : 복교를 안 한 가장 큰 이유가 나이 때문에?

A : 나이 때문도 있고..지금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가는 게 싫어요.. 이유 없이..

(중략)

Q : 학교 관두고 나서 지낸 시간은 어때?

A : 복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다신 가기 싫어요. 지금으로서는 그 마음이 아예 없어요..

Q : 그럼 이제 뭐할 거야?

A : 검정고시 보고.. 기술을 배우든가.. 알바를 더 하던가 해서.. 내년에 군대 가려고요..

(사례8)

사례9는 예비조사를 위해 진행된 심층면접에서 처음으로 사례에 편입된 대상자로 학업을 재차 중단한 것은 아니고 중학교 2학년에 중단 후 17세인 현재까지 중단상태였다. 중학교로 돌아가기는 싫으나 고등학교만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면접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유추하면 학교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교사와의 갈등이 잦았고

중학교 재학시는 ‘학교짱’으로 불릴 만큼 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Q : 학교는 언제 그만둔 거니?

A : 중2때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 뒀어요. 그리고 또 제 친구들은 3학년 올라가고 저는 유예를 해서 다시 했어요. 학교 다시 들어갔는데 뭔가 안 맞는거예요. 저랑 학교랑.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기로 했죠. 중2때 그만뒀어요.

Q : 중2때 그만둔 거구나 그럼.

A : 네, 중2요.

Q : 그러면 친구들은 지금 고 1인가?

A : 네.

Q : 혹시 왜 그만두게 됐는지 물어봐도 돼?

A : 불편한 게 그냥 너무 많았어요. 선생님들이랑 다투는 것도 많았고.. 제가 학교에서 잠을 많이 자가지고...

Q : 아, 잠자는 것 때문에... 그럼 집에서는 안 잤어?

A : 아뇨, 집에서도 자는데 잠이 많아서요.

Q : 학교생활이 잘 맞지는 않았나보네.

A : 네.

Q : 다시 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A : 고등학교는 갈 거예요. 제 미래 때문에.

Q : 그럼 중학교, 그 학교만 가고 싶지 않은 거야?

A : 네.

(사례9)

사례1은 다른 사례와 달리 현재는 학업 중단 상태이나 학교에 복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2년제든 어디든 고등학교면 ‘아무데나 다니고 싶다’고 말하는 대상자의 태도는 학업에 대한 의지보다는 사회와 주변인들에 떠밀려 학교로 돌아가려는 것으로 보였다. 대상자는 불과 4살에 부모님이 이혼하여 아버지, 고모 부부의 돌봄을 받고 성장하였다. 작년 면접에서 학업중단을 많이 후회하였고, 이른 시기부터 다양한 비행전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분노수준이 높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였다.

Q : 중등 준비하고 있어?

A : 네..

Q : 중등만 되면 학교로 갈라고?

A : 네 근데 떨어져서..

Q : 학교로 돌아가고 싶었어?

A : 네 학교 다니고 싶죠..

Q : 복교할 가능성은 있어?

A : 모르겠어요.. 2년제 다니던지 아니면 고등학교 아무데나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Q : 앞으로 계획은 어때?

A : 이번 8월 달에 시험 보고 내년 1월달에 학교 찾아보고 너무 늦었다 생각하면 기술고쪽으로 가고 인문계밖에 안되면 2년제 가려고요.

(사례1)

3. 일상생활의 변화

1) 더해진 가난

부모의 이혼 후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성장한 사례7은 그나마 가끔씩 만나던 아버지와 연락도,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생과의 연락도 몇 개월째 끊긴 상태였다. 아버지와 동생, 대상자 모두가 서로를 버거워하거나 서로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으며 작년 면접에서도 지병으로 고생하던 할머니의 건강은 더욱 안 좋아진 상태였다. 대상자가 하는 아르바이트가 할머니와 본인의 생계 대부분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Q : 할머니 건강은 어떠셔?

A : 지금도 아프셔요.

Q : 의료비 지원은 받아?

A : 받는데요.. 돈이 안 들어와요

Q : 어디서 받는데? 어디 신청했는데?

A : 기초수급자요..

(중략)

Q : 동생은?

A : 집에 나가서 아빠랑 살고 있어요.

Q : 아빠랑? 잘 살어?

A : 연락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Q : 왜 연락 안 해?

A : 연락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Q : 아버지가 재혼했다 하셨나?

A : 네.

Q : 너도 아버지랑 살면 안 돼?

A : 차라리 그럴 바엔 저 혼자 살려고요

Q : 아버지 재혼하신 분이랑 자제분이 있다고 했나?

A : 네.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잘 몰라요.

(중략)

Q : 동생이 아버지한테 갔고.. 그거 말고 큰 변화 같은 거 있어?

A : 딱히.. 없어요.

Q : 아버지는 어떠셔?

A : 저도 연락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Q : 연락 안한지 얼마나 됐어? 그때는 가끔씩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A : 그땐 했는데.. 3~4개월 정도 됐어요. 안한지..

Q : 할머니 건강은 안 좋으신 거고?

A : 허리도 안 좋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시고..

(사례7)

사례8도 현재 기초수급대상자이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한 상태이며 암에 걸린 아버지의 건강은 작년에 비해 호전되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져 현재 가게를 내놓은 상태였다. 대상자의 어머니는 하루 2시간의 수면만을 취하며

가게 운영과 청소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형은 대학 졸업후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으나 가족과 거의 연락을 두절한 상태였다. 사례8도 사례7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 가족의 유대와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Q : 어머니 하시는 미장원은 잘 되고?

A : 아뇨.. 가게 내뺐는데 안 나가요..

Q : 왜?

A : 적자 나세요...

Q : 아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A : 버스운전하고 지내세요.

Q : 작년보다 몸은 어떠셔?

A : 그때보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제는 멀쩡해요.

Q : 무슨 암이라 그랬지?

A : 위암이요.

Q : 수술 하신거야?

A : 네..

Q : 위암은 예후가 좋으니깐.. 다 완치하실 수 있지 않나?

A : 근데 그게 위 안에 생긴 게 아니라 뒤쪽에 척추 쪽에 생겨서 임파선에 같은데 가고 상황이 안 좋았대요 되게..

Q : 아버님은 자주 만나 ?

A : 아뇨.. 한 달에 세 번? 정도 밖에 안 만나요. 아빠도 집에 잘 안계시니깐 관광 나가고....
엄마도 못 봐요.

Q : 왜?

A : 대출금 밀리고 그래서 저녁때 청소하러 다니시거든요.. 여기서 7시에 출근하시고 다음날 새벽까지 청소하시고..또 2시간 자시고 미용실 나가고..

(사례8)

2) 관계의 변화-포용과 포기 사이

면접대상자들 중 부모님 또는 현재 보호자와의 관계가 좋아졌고 갈등도 많이 줄었다고 말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는 청소년들의 비행이 감소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들이 대상자들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 때문으로 보인다. 부모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성인이 되어가는 청소년들에게 더이상의 잔소리나 간섭이 무용하다고 생각하여 포기와 포용이 뒤섞인 태도로 자녀들을 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Q : 고모랑 관계는?

A : 좋은 것 같아요...

Q : 1년 전에는 어땠어?

A : 고모가 맨날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우셨는데 거의 엄마 같이 행동해주셨는데 사고 쳐도 경찰서 가도 맨날 나가라 하고 그랬어요... 다 빈말이었던 것 같아요..

(사례1)

사례2의 경우도 대상자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배려하여 부모가 삼촌집에 대상자를 맡기고 있는 상태였다. 가족들이 거주하는 인천을 떠나 수원 삼촌집에 거주하면서까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대상자는 학업에 열중하는 것도,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느라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대상자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학교에 잘 적응해서 다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듯 보였다.

Q : 이사는 어떻게 한 거야?

A : 원래 수원 살다가 인천 갔는데 적응 못해서 다시 수원 와서 삼촌 집에서 살겠다고 해서 살았어요. 다른 가족은 인천에 그대로 있고..

Q : 삼촌 집에서 사는 건 불편하지 않아?

A : 불편한건 별로 없어요..

Q : 여기(수원) 오게 된 제일 큰 동기가?...

A : 아직 애들이랑 놀고 싶어서요.

(중략)

(사례2)

특히 사례4는 학교에 복교 후 학내 폭력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재중단한 사례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면접자와 ‘눈맞춤’을 전혀 하지 않고 짧은 단답형의 대답만 쏟아내는 피면접자의 태도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 대상자가 자퇴를 결심했을 때, ‘네 맘대로 하라’는 아버지의 말은 차라리 포기에 가까운 것이고 서로 ‘잘 하려고 하는’ 상황은 문제의 본질에 직면하는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로 보였다. 대상자의 방어수준이 높아 자세한 가정환경을 알 수 없었으나 작년 면접 당시에도 대학생인 누나도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가족간의 문제가 끓을 대로 끓은 것으로 보인다.

Q : 선생님이 학업중단숙려제라 해서 학교관두기 전에 얼마동안 생각해보라 그런 기간 있지
않아?

(중략)

A : 부모님이랑 약속했는데 엄마가 병원에 있어서 아빠랑 얘기했는데 니 맘대로 하라고..자기는 상관없다고.. 나는 검정고시 딸 거니까..

Q : 그런 이야기가 어떤 거?

A : 학교에서 그런 일(폭력) 있고.. 선생님 상담 같은 거 하고... 담임선생님이 아버지랑 얘기 많이 했는데 그냥 자퇴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어요.

(중략)

Q : 장래계획은?

A :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검정고시부터 합격하려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볼게요..

Q : 부모님은 그때 공부하라고 아버님이 그러셨는데 지금도 그래요?

A : 지금은 안 그러셔요. 지금은 제가 뭘 하든 가만히 있으세요.

Q : (작년)면담한 이후로 부모님 관계는?

A : 나아졌죠..

Q : 부모님이 어떻게 대하는데?

A : 서로 잘 할라 해요..

(사례4)

반면 사례3과 사례11의 경우 부모님의 지지가 비행을 완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사례3의 경우, 대상자 자신과 부모 양자가 모두 서로에게 한발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도 지난 일 년 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성실하게 지낸 것으로 평가했다.

Q : 부모님하고 관계는 좋아졌나?

A : 네 예전보다는.. 아빠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면 옛날에는 대답도 안 해줬는데.. 지금은 물어본 거 대답해주시고.. 저한테 다정하게 얘기해주세요 엄마도 그렇고..

Q : 부모님이 커서 믿고 그러시나요?

A : 네.. 기다리고 지켜보고 계세요..

(중략)

Q :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던 것 같아요.. 변한 점 있어요? 심리상태나 이런거..

A : 그냥 일반 하면서.. 돈만 벌었지.. 공부에 관한 건 없었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고 안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성실해진 것 같아요..

(사례3)

사례11은 새아버지와 가족들이 면접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그로 인해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였다. 대상자 스스로 말하듯이 돈이 없으면 다시 ‘움직이는(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비행청소년의 특성인데, 새아버지의 경제적, 심리적 지원이 대상자의 재비행을

억제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Q : 두 분은 언제 이혼하신건가요?

A : 중학교 1학년때가 6학년때요

Q : 그래서 아빠랑 살다가 엄마한테 간 건가요?

A : 네 고등학교 1학년때요 가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간 거예요. 그래서 막상 들어오니깐 적응도 안되고.. 누나들도 다 거기가 있었거든요.

Q : 거기는 엄마 사는데?

A : 네 엄마, 아빠, 누나 2명이요... 근데 적응도 안되고 새아빠한테 친아빠처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3일만 지낸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갈라하니깐 엄마가 붙잡고 공부도 시켜주고 할테니 뭐라도 해봐라 해서... 검정고시를 봐서 합격했어요... 검정고시 따면 그냥 기쁨 줄 알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러다가 새아빠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너무 고맙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저씨라 부르다가 점점 가면서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보니깐 지금까지 왔어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고 하다보니깐... 또 비행청소년은 돈이 없으면 움직이게 되요..

(중략)

Q : 어머님과 누나들과 계속 사는 거지?

A : 네

Q : 아버지하고는 가끔 연락만 하고?

A : 친아빠랑은 안하고 있어요... 가끔 보고 싶기도 한데 언제 한번 날잡고 만나려고요..

(사례11)

사례12는 부모의 이혼이 도리어 어머니와 대상자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적인 아버지가 집을 떠난 이후에 생긴 변화로 보인다.

Q : 어머니하고 사이가 원래 좋았어요?

A : 아뇨 좋지 않았어요.

Q : 언제부터 어머니랑 관계가 좋진 않았는데 언제 회복이 됐어요?

A : 아빠랑 이혼하시고..원래는 엄마는 싫진 않았어요.. 아빠가 싫었지..

Q : 아빠 어떤 점이 싫었어요?

A : 그냥 술 먹고 들어오고..그러면 자기 기분 안 좋을 때 훈계하고 자기 내키는 대로 해서요.. 처음에 었나간 것도 아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리고 그러니깐..

(사례12)

3) 여전한 생활의 중심,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대상자들의 생활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면접대상이 된 청소년들의 대부분의 집안환경이 어려워 본인의 용돈을 벌거나, 수입을 유흥에 쓰고자 하는 목적이 일차적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접하는 사회생활이 청소년들에게 보람과 기쁨을 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7의 경우는 대상자들 가운데서 가장 환경이 어려워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도 다니지 않고, 아픈 할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상 본인 스스로도 가장 중요한 일과로 '일하는 것'을 꼽고 있었다.

Q : 요새 일과는 어떻게 돼?

A :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먹고 3~4시 되면 인력 사무실 나가서 자리 있냐고 물어보고 자리 있으면 용인이나 이천이나 화성이나 물류 나가고, 아침에 자고 12~1시에 일어나고 힘들면 안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Q : 일당은?

A : 6만5천원 줄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6만원씩 줘요.

Q : 요새 제일 관심사가 머야?

A : 운전이요... 자동차 만지는 게 제일 관심사예요.

Q : 자동차 공부하고 그래?

A : 따로 하지는 않는데... 직접 카센터 가서 해보고 그래요..

Q : 경기희망리 본부는 얼마나 다녀야 자격증이 나와?

A : 저도 자세하게 몰라서... 오늘 뵈기로 했어요.

Q : 근래에 본인한테 젤 중요한 일과는 머야?

A : 일다니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례7)

사례12도 학업중단이후 비교적 강도 높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였다. 부모의 이혼 이후 어려워진 집안환경이 대상자로 하여금 가장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대상자 스스로 가장 뿌듯한 기억으로 꼽은 것이 첫월급을 어머니께 드린 것이라고 한다.

Q : 학교 안다니 후에 어떻게 살았어?

A : 알바했어요. 배달하고 서빙하고 주유소하고.

Q : 학교 관두고 나니깐 생활 패턴이 변했니?

A : 일단은 학교 안다니니깐 아침에 꼭 일어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밤까지 돌아다니고 새벽까지 놀다가 자고... 일 다시 가고... 거의 밤에 많이 놀았어요. 원래 보호관찰 받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아직 버릇이...

Q : 지금도 그래요?

A : 아뇨 지금은 검정고시 준비하니깐... 아침에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온 거예요

Q : 학교를 안다니는 때는 무질서 했는데 이제는 좀 약간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거니?

A : 예

Q : 최근 몇 개월 동안 자기한테 일어난 변화가 모가 있었니? 어떤 계기가 있었니?

A : 제가 동생이 3명이 있어요. 그전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엄마 아빠가 그때까지 같이 살아서 저는 집안일에 대해서 생각 안하고..놀다가 구치소 다녀오고 나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돈이 막 필요한데 엄마가 말씀을 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가장이 돼야겠다 생각해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중략)

Q : 요새 몇 개월 동안 가장 즐거웠던 경험이 모가 있어요?

A : 즐거웠다기보다는 뿌듯한 점이 많았어요.

Q : 어떤 거?

A : 알바비가 처음에 딱 들어 왔을 때 엄마한테 용돈을 드렸거든요 처음으로..

(사례12)

사례6도 지속적 학업중단상태에서 넉넉지 못한 집안사정에 도움을 주고자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학업보다는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부대끼는 노동활동이 대상자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보였다.

Q : 그럼 이제는 장래에 뭘 하고 싶어?

A :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지금은 검정고시 합격만 생각하고 있어요. 알바랑..

Q : 어떤 알바?

A : 서빙이요

Q : 어디 가서 서빙해?

A : 고기집이요

Q : 힘들지 않나?

A : 재밌어요... 잘 맞아요. 저랑.

Q : 어떤 점이?

A : 사람이 많잖아요.. 알바하는 애들도 많고 또래들도 많고..

Q : 복적복적 한 거?

A : 네...

(사례6)

비교적 집안사정이 넉넉한 사례4도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치킨 배달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해서 번 돈의 대부분은 유흥비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년 동안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지는 않더라도 몇 달간의 간헐적 아르바이트는 거의 모든 대상자들이 가지는 공통 경험이었다(사례1 참조).

Q : 알바는 했었어?

A : 알바 6개월 정도 했는데..

Q : 뭐했어?

A : 가산동에 주차 알바 했는데.. 월급 올라가서 직위 올라가고 계속하다가 그거 하면서 하니깐 공부를 못해서 그냥 왔어요..

Q : 얼마 받았는데?

A : 145만원이요

(사례1)

Q : 내년 1월까지지는 어떻게 지내게?

A : 알바하데요. 지금 알바해요.

Q : 무슨 알바?

A : 치킨이요.. 배달

Q : 무슨 치킨?

A : ○○○요.

Q : 얼마 받아?

A : 일당 아니고 월급이에요. 월급 150만원이요

Q : 몇 시부터?

A : 12부터~밤11시오

(사례4)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학업중단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처럼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달씩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고 할 수 있다.

Q : 알바나 이런 건?

A : 하다가 최근에 그만 뒀어요..

Q : 뭐했어?

A : 핸드폰 가게에서 일했어요.

Q : 얼마나 했어?

A : 두달 정도 했어요..

Q : 월급 많았어?

A :과는 대로 받는 거라. 그렇게 별로 못 벌었어요.. 그냥 쓸 만큼..

Q : 얼마나 쥐 돈은?

A : 모르겠어요... 가불받은 적도 있고.

Q : 알바 하면 뭐하는 데에 썼어?

A : 저한테 썼어요... 그냥... 이것저것...

(사례2)

Q : 그래서 돈을 좀 벌었어?

A : 네, 지금 계속 벌고 있어요.

Q : 어떻게 버는데?

A : ○○떡볶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2년째 일하고 있어요.

Q : 그럼 고1때 자퇴하고는 무슨일 했었어?

A : 처음에 주유소 같은 것도 하고, 배달도 하고... 여러 군데 돌아다녔어요.

Q : 그렇게 여러 군데서 일하다가 ○○떡볶이에 2년 전에 딱 들어간 거야?

A : 네.

Q : 사장님하고 알게 된 거야? 어떻게?

A : 친구 소개로... 면접 갔다가...

Q : 그럼 거기서 어떤... 조리도 해? 아니면...

A : 주방도 하고 카운터도 보고 콜도 받고...

Q : 몇 명이서?

A : 두 명이에요.

Q : 사장님하고?

A : 사장님은 안 오세요. 이모가 주방보고 제가 카운터보고...

(중략)

A : 네, 주문만. 배달은 배달 업체 써요.

Q : 배달 업체?

A : 네, 배달만 해주는 데 있어요.

Q : 얼마나 받아 그러면, 월급은?

A : 한 달에 그냥 220.

(사례10)

아르바이트는 학업중단 청소년, 특히 비행청소년들의 생활에 필수요건이지만 이들을 현재 상태에 묶어두는 족쇄이기도 하다. 장래를 위해 기술을 습득하고 학업에 매진할 시간을 아르바이트로 대체한다고 할 수 있다.

A : 자기들은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주로 하는 것이 재밌게

할 수 있는 오토바이 배달이라던지, 그런게 많고요 인생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죠. 변화되려 하는것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 힘들죠.

(보호관찰관 2)

배달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종이다. 그러나 헬멧을 쓰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 발생율도 높다. 사례3은 용돈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큰사고가 나서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었다.

Q : 사고는 언제?

A : 2월 달인가 3월 달에요..

Q : 어떻게 됐어요?

A : 내측 측부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했어요..

Q : 어떻게 사고 났어요?

A : 1차선에서 직진하는데 2차선 차량이 급정거 하더니 불법 유턴하다가 부딪혀서 사고 났어요.

Q : 머리는 안 다쳤어?

A : 네 눈위에 찢어지고 턱이랑 광대뼈랑 금가고..

Q : 병원엔 얼마나 입원했어?

A : 1달 반이요.

Q : 무슨 배달했어?

A : 떡볶이요.

Q : 헬멧 안 썼어?

A : 안쓰고 있어서 눈이 찢어졌죠..

(사례3)

4. 심리적 변화

1) 헤어 나올 수 없는 무력감

지난 1년간 학생들의 일상생활은 복교 후 학교를 다니는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일반고와 특성화고, 2년제와 3년제를 떠나 학교에 적응하며 소속감을 느끼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규칙적인 일과를 보내게 되고, 이는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달리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을 즐기는데 보내며 하루 일과도 밤낮이 바뀌어 규칙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는 등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무기력한 하루 일과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대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비행청소년들의 노동활동이나 검정고시는 장래 희망, 미래의 계획과 괴리된 채 수행되므로 생활과 마음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Q : 하루는 어떻게 지내?

A : 지금은.. 아직 학원 안다니고 있고.. 무조건.. 애들이 학교 끝날 시간에 나와서.. 요즘 새로 아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이 노는 방식이 노래방 가거나 카페 가서 얘기하면서 공부하는데..저는 고등학교 공부를 모르니깐.. 가만히 옆에 있다가 웃고 떠들고 와요..

(사례1)

Q :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

A : 일하고 집에 와서 자요

(중략)

Q : 돈 벌면 뭐해?

A : 놀아요..

Q : 머하고 놀아?

A : 친구들이랑요.

Q : 작년에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피운데 지금은?

A : 술은 안 먹어요.. 담배는 아직도 피구

Q : 돈은 애들하고 노는데 다 써?

A : 네..

(사례4)

Q : 주로 뭐하고 지냈어?

A : 친구들이랑 놀면서 일도 하고 그랬어요.

Q : 무슨 일 했어?

A : 콜센터 비슷한데 전화 받는 일ियो.

(중략)

Q : 요새 하루는 어떻게 지내?

A : 일어나서 밥 먹고..

Q : 몇 시에 일어나?

A : 틀려요... 잠 안 잘 때도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 날때도 있고... 저녁에 늦게 일어날 때도 있고...

Q : 뭐해 그럼?

A : 피시방 가고 친구들 만나고... 피시방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자고.. 똑같아요. 하루 일과가
(중략)

Q : 김정고시는 포기야?

A : 포기하진 않았는데... 거의 반 포기죠... 다음 년도 4월달에 군대(가면 못봐요) 그때까지 안가면 해볼 마음은 있어요... 공부가 아예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하고 싶은데...

Q : 젤 큰 관심사는 모아?

A : 없는 것 같은데...

(사례5)

Q :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돼요?

A : 저는 새벽 5시~6시쯤 있다가 아침 먹고..

Q : 새벽까지 뭐하는데?

A : 똥굴거리든가 핸드폰 하든가... 친구들이랑 전화하던가... 그리고 아침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학원가요... 6시에 출발해서 7시에 학원가고... 학원에서 10시까지 할 때도 있고... 40분만 있는데도 있고... 합격한 게 있어서 합격한건 안 들으니깐... 못 합격한 것만 들으니깐...

Q : 그리고?

A :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놀아요... 반복적이에요... 일찍 자는 날에는 1시 2시쯤에 잤다가 또 자고 6시에 일어나서 학원 갔다가... 친구들 만나거나 그래요.. 거의 안 그래요(일찍 안자요)...

Q : 일찍 자는 날이 없어?

A : 네...

Q : 새벽까지 안자면 안 피곤해?

A : 계속 자니깐요.. 그게 더 학원 다니기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것도 없어요... 애들은 학교 간다... 일한다 하니깐...

Q : 요즘 켈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게 뭐야?

A : 검정고시...

(사례6)

Q :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돼?

A : 아침에 일어나면 1시 2시... 그러면 씻고 티비 보다가 전화 오면 나가는 거죠...

(중략)

Q :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게 머야?

A : 검정고시나 합격하는 거요.

Q : 또?

A : 밥 먹는거요..

Q : (웃음)장난하지 말구...

A : 진짠데... 그거 말고 할 게 없어요... 친구도 안 만나구...

(사례8)

2) 치유되어가는 마음

작년 면접에서 자살시도, 자해, 우울 등 정신증적 문제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례들이 있었다(사례 1, 사례7, 사례8 등).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이런 증상들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사례는 없었으며, 심리적으로 안정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심리현상은 무력감과는 별개의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모와의 갈등이나 비행으로 인한 재판, 보호관찰, 소년원 입소 등의 질풍노도 같은 사춘기가 지나가고 성인기에 가까워지는 만큼 부모와의 갈등이 줄어들고 연령에 의해 다양한 대안들이 펼쳐지면서 우울이나 자살충동 등 본인들이 지각하는 심리적 문제가 많이 감소하는 것이다. 안정화되어 가는 과정은 일종의 연령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바, 보호관찰관들도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대인 중학생들의 상황이 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A :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그만 두면 할 게 없다.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별로 없고 결국 애들은 밤낮이 바뀌면서 무기력한 생활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보호관찰관 입장에서도 대안이 없다는 게 아쉽구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알바라도 할 수 있으니깐 너네가 나중에 공부하고 싶을 때 나중에 다시 한 번 시작해보자... 할 수 있는데...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좀 다른 거 같아요... 중학생이 좀 더 심각한 거 같아요...

(보호관찰관 1)

Q :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같아요?

A : 많이 건강해졌죠... 나쁜 짓은 하기 싫고 나쁜 짓 하는 애들 보면 말리고 싶고... 보호관찰 한두달 정도 남았으니깐 끝나면 다신 안 와야죠...

Q : 작년에 이후로 우울하다거나 자살충동 느낀 적은?

A : 없어요...

(사례3)

Q : 작년에는 기운 없어 보이고 우울해보였는데 이제는 괜찮아?

A : 그때는 많이 췌여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는 차근차근 다 풀려서... 한결 나아진 것 같아요...

Q : 어떤 일이 췌였는데?

A : 재판도 많았고... 경찰서도 많이 가야되고...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사례7)

Q : 혹시 모 학교 그만두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한적 있었니?

A : 네 고1때 어머니가 들어오시고 난 후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 저녁에는 일... 외박이 원래 저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근데 일주일이나 이 주일에 한번밖에 (외박을) 못했어요..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울고 싶었던 날도 많았고 화도 낸 적도 많았고..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짜증나고 열이 받아서 흥분을 많이 해요..힘들면 그때 울어요..

Q : 그때가 고1이면 학교 관둔지 꽤 됐을 때자나 그치? 근데도 그런 감정이 있었던 거구나?

A : 그때 고등학교 1학년 4월 검정고시 합격할 때였거든요... 3개월 동안 그렇게 지내면...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Q : 지금은 어떠니?

A : 괜찮죠. 이제... 저한테 좋은 습관이죠..부지런해졌으니깐...

(사례11)

대상자들은 분명 심리적으로 건강해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무력한 생활이 지속되고, 가정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5. 문제행동과 피해경험

올해 추가로 면접대상자가 된 4명을 제외한 10명의 피면접자 중 3명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재비행을 저질러 추가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1명은 경찰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은 친구형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1년이 연장되었다. 사례5는 대상자가 판매한 인터넷 게임 아이템에 문제가 있어 구매자가 이를 신고하여 경찰조사 중에 있었다. 사례7은 공동상해로 소년감별소에 한차례 들어갔다 왔으며 사례8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2년이 연장되었다.

사례12는 올해 처음으로 면접대상자가 되어 작년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강도 상해로 인해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에 오토바이 절도를 저질러 추가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사례11의 경우는 추가 비행이 아니라 과거의 여죄가 드러나 추가 처분을 받게 되었다.

Q : 언제 끝나?

A : 1년 남았어요.

Q : 추가되고 연장 된거야?

A : 추가 된거예요.

Q : 어떻게?

A : 사고 친 건 아니고 친구들끼리 편의점에서 친구들이 술 먹고 취했는데.. 경찰한테 걸려서..

Q : 얼마나 연장됐는데?

A : 2년이요.. 신분증 도용됐다고..

Q : 누구 신분증인데?

A : 제 친구의 형이요.

Q : 그 친구는 괜찮은거 아냐?

A : 형의 허락을 안받고 갖고 왔다고..

Q : 이 사건은 언제인데?

A : 작년 12월달이요.

(사례1)

재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도 있으나 작년 면접에서도 나타났듯이 보호관찰기간 동안은 청소년들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사례5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인들도 ‘걸릴까봐’ 시비에 말리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Q : 그 사이에 추가로 사고는?

A : 하나 있어요. 똑같은 건데 조사를 아직 안 받았어요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아야 되요.

Q : 언제?

A : 2월달예요

Q : 무슨 일이 있었는데?

A : 친구랑 같이 게임하는게 있는데 제 현금주고 게임머니를 사서 아이템을 샀는데 게임을 안하다보니깐 아이템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돈을 받았는데... 한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와서 이 게임에서 아이템이 문제가 있다 돈을 돌려달라... 저는 난 내 돈주고 샀는데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럼 내 방식대로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요.

Q : 그래서 어떻게 됐어?

A : 아직 몰라요. 가야 되요 경찰서... 아직 불이익 받은 건 없어요.

Q : 잘못 해서 산거야 아이템을?

A : 아뇨... 그 아이템이 어떻게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전 제돈 주고 사서 구입을 했는데... 모르죠 어떻게 잘못 됐는지...

(중략)

Q : 보호관찰 받으면서 다른 사고 치면 안된다는 압박감 같은 거?

A : 네... 공공장소에서 시비가 붙어서 저희를 때리면 방어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걸릴까봐 맞고만 있어야 되니깐... 보호관찰 안받고 있다 하면 (상대방을) 때릴 거 같아요 같이... 근데 보호관찰 받고 있으니깐...

Q : 그런 일이 있었어?

A : 사우나에서... 어떤 아저씨가 자는데 시끄럽게 해서... 친구가 욕을 했는데... 그 아저씨가 소화기를 갖고 와서 먼저 맞고 넘어뜨렸는데... 친구 (저를) 말리고 그랬어요.

Q : 경찰서에서 안 오고?

A : 와서 합의하고 좋게 끝냈어요.

(사례5)

Q : 어떻게 살았어?

A : 작년에 들어갔다 왔어요.

Q : 왜? 어디를?

A : 감별소요... 공범 때문에...

Q : 보호관찰 받으면서 나랑 작년에 상담한 이후에?

A : 옆에서 술먹다가 시비 붙어서 말렸는데.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Q : 감별소 갔다 온 거야?

A : 네.

Q : 얼마나 있다 왔어?

A : 4주요

(사례7)

Q : 형한테 안가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니?

A : 사고 한 번 더 쳐서 연장됐어요.

Q : 무슨 사고?

A : 무면허 운전이요..

Q : 어떻게 하다가?

A : 친구가 오토바이 훔쳐 와서 타다가 걸렸죠.. 면허 없어서 걸렸어요.

Q :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이구나?

A : 네..

Q : 오토바이 무면허로 얼마나 연장이 된 거야?

A : 2년이요.

(사례8)

한편 재비행을 저지른 대상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경험에 있는 대상자들도 있었다. 최근 스마트폰 SNS의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SNS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왕따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사례9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면접자들은 SNS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9의 경우,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진을 도용하여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한 사례이다.

Q : 혹시 SNS 때문에 곤란한적 없었어?

A : 아니요.

Q : SNS상에서 누가 니 욕을 했든지, 사진을 올렸든지, 따시켰든지...

A : 아! 있어요.

Q : 불러놓고 막 욕을 했든지..

A : 그런 건 아니고요. 누가 제사진 올려서요.. 도용을 해가지고...

Q : 도용을 했다고?

A : 아니, 그러니까 애 ○○짱 ○○○이라고... 제가 위에 벗은 거, 위에만. 제가 문신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어디서 사진 가져왔는지 그런 거 올리고...

Q : 진짜 니 사진 맞아? 조작된 건 아니고?

A : 아니예요. 제 사진이에요.

Q : 그래서 어떻게 했어?

A : 신고했죠. 그.. 사이버에... ○○○ 경찰서에..

(사례9)

대상자들의 재비행여부는 이전의 비행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업중단 학생들중 다시 학교에 복교하거나 복교의지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검정고시를 보려 하는 학생들은 사례2를 제외하고 과거 같이 비행을 저질렀던 친구들과는 멀어졌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상태이다. 이는 친구 관계가 학업중단 지속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사례3, 사례6은 전에 같이 어울려 비행을 저질렀던 친구들과 현재는 연락도 하지 않거나 연락은 하지만 만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Q : 그때 만났던 친구들은 만나요?

A : 요즘에 잘 못 만나는데 가끔씩 만나요... 다리 때문에 못 만나다 보니깐 가끔씩 봐요 친구들도 바빠서... 만날 시간이 별로 없죠...

Q : 작년에 학업중단 한 친구들은 몇 명 안됐었는데?

A : 그 친구들은 일하고 있어요. 학교 안다니고..

Q : 나머지 친구들은 다 학교 다니고?

A : 대학교 안다니고 고등학교만 나오고 일하는 애들도 있고.. 대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사례3)

Q : 전에 사고 칠 때 만났던 친구들 만나요?

A : 아뇨... 친한 친구 한명 있고... 중학교 동창 애들... 고등학교는 자퇴했으니깐 없고..

Q : 착실한 친구들이예요?

A : 학교 안다니긴 하는데... 합격한 애들은 일하고... 합격 안 한 애들은 검정고시 준비하고...

Q : 작년에 보호관찰 받게 된 사건에 휘말렸던 친구들은 안 만나?

A : 연락 자체를 안 해요 보호관찰 받는 게... 어떤... 아직 안 나왔을 걸요? 연락도 안 해요.

Q : 그럼 학교를 안 다니더라도 보호관찰 받는 친구들은 없는 거예요?

A : 네. 없어요.

(사례 6)

사례14의 경우도 작년에 만나던 남자친구와 다른 친구들의 영향으로 학교를 다시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Q : 음... 그 남자친구나 아니면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학교를 다시 가게 된 건가 그게 궁금해서.

A : 아니 그게 그때 당시 남자친구도 학교 다니고 있었고, 엄마도 너도 고등학교는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고요. 친구들도 있어도 다 깨네도 학교 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저도 학교 가는게 나을 거 같아서 학교 간 거예요.

(사례14)

하지만 이전에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과 지금도 어울리고 있는 학생들은 이전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 사례4는 복교 후 다시 자퇴하였는데, 여전히 비행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으며, 사례5도 비행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며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례8 또한 작년 면접에서 지방에 있는 형에게 내려가서 관계를 끊겠다고 말했던 비행친구들과 여전히 어울리며 면접 당시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다.

Q : 작년에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부동산 이런데서 (물건)훔친 친구들이랑 만나?

A : 네..

Q : 그 친구들은 모해?

A : 아무것도 안 해요..

Q : 학교 가서 잘 다니는 친구들은 없어?

A : 네.

Q : 그 친구들 그대로 만나는 거야?

A : 네..

Q : 그 친구들도 집에 있어?

A : 네.. 일하고..

(사례4)

Q : 친구들은 그대로야?

A : 몇 명만 만나요.. 지금은 4~5명

Q : 그 친구들은 뭐해?

A : 같이 놀아요..

Q : 놀기만 해?

A : 한명은 일했다가 그만두고.. 또 한명은 기관에서 직업 훈련 받고 있고.. 대부분 같이 놀아요.

Q : 뭐하고 놀아?

A : 피자방 가거나 당구치거나..

(사례5)

Q : 친구들은?

A : 애들도 다 그대로 살죠..

Q : 그 (같이 비행했던)친구들도 그대로 만나는 거네?

A : 네...

(사례8)

6.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인사이동에 의해 비행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자주 바뀌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자와 선생님의 관계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잦은 담당자 교체는 청소년과 보호관찰관이 라포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피면접자들은 대부분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데 그 사이에 일회에서 삼회 정도 보호관찰관이 바뀐 것으로 나타나 적응기간이 짧고 담당자 교체 빈도가 잦다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과의 면접에서도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해 지도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A : 저희는 6개월마다 인사이동이 있어요. 중간 중간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보니깐 담당자도 힘들고 대상자들도 힘들고.. 보직을 유지 시켜 주니깐 아이들이 선생님은 어디 가시면 안되요 이런 말이 나와요..

(보호관찰관 1)

사례1은 보호관찰관이 바뀔 때마다 적응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례2도 자신을 잘 아는 보호관찰관이 편하고 새로운 보호관찰관이 왔을 때 모든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했다. 사례6도 이전 담당 교사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고 있었다.

Q : 보호관찰 선생님은 지난 1년 동안 바뀐 적 있어?

A : 두 번 바뀌었어요.

Q : 선생님 바뀌면 어때?

A : 적응하기 어려워요 선생마다 성격이 틀려서

Q : 이번 선생님은 어때?

A : 성격을 잘 모르겠어요,

Q : 어떤 선생님이 켈 좋았어?

A : 처음에 있던 선생님이요.. 여자 선생님... 출석 한번 안 해도 엄격하게 해서 열심히 했어요...

Q : 엄격하게 한 게 모야?

A : 학원을 안다니면 분류심사로 넘어간다... 거기로 가면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겁먹은 것 보다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 것 같아요...

Q : 그 다음 선생님은 덜 엄격했어?

A : 제가 알아봐달라고 얘기해야 하는 분위기에요...

(사례1)

Q : 보호관찰 선생님이... 1년 동안 몇 번 바뀌었어?

A : 한번이요.

Q : 인천에서 면접한 이후로 1년 동안에 여기로 와서 너 데리고 온 그분으로 바뀐 거야?

A : 네.

Q : 바뀌니깐 어때?

A : 별로 없어요..

Q : 전에 선생님한테 받고 싶어?

A : 네... 그건 있어요.

Q : 왜?

A : 저에 대해서 잘 아니깐... 바뀌면 다시 침부터 말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깐...

(사례2)

Q : 보호관찰 작년에 하고 나서 선생님 바꼈죠?

A : 한번이요

Q : 어때요 바뀌니깐?

A : 전선생님이 좋아요

Q : 어떤 점이?

A : 친구같고 편했어요.

Q : 이번 선생님은 어려워요?

A : 그런 건 아닌데요. 편한 걸로 보면 그전에 선생님이 편했어요.

Q : 한번 바뀐 거야?

A : 네

(사례6)

반면, 담당 보호관찰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사례는 담당 교사의 교체를 받기는 경우도 있다.

Q : 선생님 바뀌는게 불편하지 않아?

A : 솔직히 선생님들이 계속 만나다 보면 너무 익숙지르고... 바뀌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례5)

보호관찰소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담당 보호관찰관의 판단과 대상자들의 욕구에 따라 지원받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결정된다. 청소년의 성향과 집안환경, 현재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청소년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작년 면접 이후 일년 동안 대상자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받았으며 지원받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례2와, 사례4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다니는 학원의 학원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또한 문신제거, 상해,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소와 결연을 맺은 사회인들과 만남을 갖기도 하였고 직업전문학교와 연계되어 다양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Q : 보호관찰소에서 돈을 준다던지 다른 사람 만나서 밥먹고 그런 거 있어?

A : 한번 있는 것 같아요. 재판 받았을 때 공부방 2년 받아서 매주 목요일마다 공부방 가는데... 다른 애들은 오고 싶어서 오는데 저는 보호관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빠지고 가는 거였는데... 거기서 잘한다고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 줬어요.

Q : 공부방은 대학생들이 하는 거?

A : 고등법원에서 봉사 나오고 그런 거...

(중략)

Q : 검정고시 학원은 지원해봤어?

A : 네..

(사례1)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지만 프로그램의 충실성, 청소년 연령에 어울리는 적합성, 담당자의 성실한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만족도가 달라진다. 사례1은 학습지도, 검정고시 학원비 감면, 상담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지원받았으며 특히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상담 교사의 심리검사나 격투기를 통한 공격성 발산활동이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Q :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았어?

A : 진로 상담이 제일 좋았어요.

Q : 어떤 분이 해주셨는데?

A : 그냥 상담 선생님이요

Q : 어떤걸 상담해줬는데?

A : 처음에 제 얘기만 하다가 이튿날엔 2시간씩 상담 했어요. 하루는 이상한 나무(그림) 줬는데 사람들이 올라있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고... 저는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골랐는데 꼭 꼭대기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첫번째 가지든 두번째 가지든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러고.. 하고 싶은 게 모냐고.. 물어보고 그때는 없었는데 하게 된다면 건축이나 용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학교 프린트 뽑아서 알려주고 그랬어요.

(중략)

Q : 어떤 점이 좋았어?

A : 동영상도 보여주고.. 보고 느낀 점도 쓰고.. 더 수업도 재밌었고 그랬어요..

Q : 이중에서 더 받고 싶고 그런 거 있어? 안 받았지만 받고 싶은 거 있어?

A : 그때 한번 받았는데 유명한 권투장 갔는데... 거기서 선수들이랑 경기하면서 스트레스 풀었는데... 유명한 선수였는데.. 8명이 가서 그 사람이랑 스트레스 풀고... 분노조절 하고.. 좀 많이 했어요.

Q : 안 맞았어?

A : 다 같이 상담 받는 사람들끼리 대진표 짜서 했는데 재밌었어요... 보호 장비 다 끼고 했어요.

(사례1)

사례11도 특히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을 보였다. 아르바이트로 바빠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Q : 상담이나 이런 거 받은적 있어?

A : 네 많아요

Q : 어디서?

A : 청소년 지원센터 이런데서 받았어요... 보호관찰소에서 지원해줘서 받았어요. 검정고시 비용도 제가 다 냈는데 부족해서 선생님한테 부족해서 지원을 부탁 했어요.

Q :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상담은 얼마나 받았어?

A : 1년 정도 받았어요.

Q : 어땠어? 상담받고 나니깐?

A : 즐겁고 마음이 잡히는 게 좋았어요.

Q : 효과가 좋았구나.

A : 네 마음이 잡히는 게 좋았어요.. 성실하게 되는 거랑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게 좋았어요.

Q : 어떠한 문제를 상담해 주는 거야?

A : 똑같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면담처럼... 상담도 해주고 바로바로 풀어줄 수 있는 건 풀어주고 못 풀어주는 건 위로해주고..

Q : 그럼 너가 상담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는 거야?

A : 그쵸... 제가 만약에 놀러가는 경우가 있으면 일 빼서 놀러가기도 하고.. 근데 일 때문에 바빠서 신경 못쓰다 보니깐 거기서 찼렸죠.

Q : 찼린다는 게 어떤 의미니?

A : 상담 명단에서 빠졌어요.

Q : 빠더라도 다시 면담 받고 싶으면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야?

A : 신청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안 나가 보니깐 명단에서 빠지다 보니깐 아예 없어지게 된 거죠... 일 때문에 못나간다고 이야기해서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명단에 넣어서 검정고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사례11)

사례6의 경우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변호사인 멘토는 언니 같은 역할을 하며 대상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법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A : 건강검진 받았어요..

Q : 특별히 아픈덴 없는데?

A : 네. 받으라고 해서요.

Q : 어떤 사람하고 결연을 맺어서 식사를 하든가 지원해주던가 그런 건?

A : 예전에 변호사 선생님이 밥 사주셨어요. 예전에... 밥 먹으면서 상담하고... 커피숍 가던가...

Q : 어떤 상담?

A : 요즘에 사고 친 거 있냐... 주위에 안 좋은 일은 없냐? 누구랑 어떻게 지내냐...

힘든 거 있음 말해라 하고... 친구가 그런 일이 있어서 변호사 선생님께 상담 받으러 갔어요.

Q :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A : 친구가 조건을 당했어요. 아는 여자애가 어떻게 하다가 제 아는 여자애가 제 친구를 조건을 건거예요.. 그래서 개가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변호사 선생님이 밥 사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방법 알려주시고 해결됐어요..

(중략)

Q : 어떤 게 제일 좋았어? 그런 것(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A : 변호사 선생님 만난 거요.

Q : 한번 만난거야?

A : 아뇨... 계속 만나다가 사고 안치고 잘 하는 애들은 변호사님을 만나는데 없애준대요... 잘하니깐... 그래서 없어졌어요.

Q : 몇 번?

A : 한 달에 한번... 일 년 정도 만났어요.

Q : 열두 번 만난거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줬어?

A : 별일 없다고 하면 어떻게 지내냐 저는 친구들이랑 머하고 해서 머하고 지내요.. 선생님은 자기 남자친구 애기도 하고... 친구처럼 대해주시기도 해서 좋았어요... 언니 같았어요.

Q : 젊은 분이셨나 보네?

A : 네. 예쁘셨어요... 언니 같았어요. 변호사가 아니라.

(사례6)

상담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모두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들에게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프로그램의 속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 비행 청소년들은 결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고, 비행전력과 학업중단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므로 학업이나 직업훈련 이전에 심리적 회복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직업훈련을 하는 경우는 탈락율이 높고 복교를 하더라도 재중단할 위험성도 높다. 보호관찰관과의 면접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Q : 취업 성공 패키지는 어떤가요?

A : 의뢰를 많이 하는데 성인보다 낮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요. 성인 같은 경우는 교도소 출소하면 자격증 획득률이 높는데 청소년같은 경우 직업훈련보다 알바를 하겠다... 돈을 벌고 쓰겠다.. 직업훈련 언제 받고 언제 하겠느냐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보호관찰관 1)

사례7도 취업성공 패키지 과정을 수료하여 자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작년 면접과 달리

과정을 마치지 못했으며 재비행으로 추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Q : 그때 취업성공패키지 하고 있다 하지 않았나?

A : 하다가 중단돼서....

Q : 왜?

A : 하려고 했는데... 병점으로 가서 상담 받고 하다보니깐 너무 멀어서..

Q : 얼마나 다녔어?

A : 한달 상담 받고요. 아침 10부터 4시가 5시까지 해서 수료증 받고 했는데 노동부에서 지원받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안해서.. 귀찮고 그래서 안했어요..

Q : 2단계였나?

A : 네..

Q : 안한게 멀어서 그런 거야?

A : 네.. 귀찮아서..

Q : 얼마나 걸려?

A : 여기서 300번 타면 금방 가는데.. 돈도 5000원이나 들고...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그만 두었어요).

(사례7)

보호관찰관과 대상자들의 면접내용에서 드러나듯이 청소년들은 당장 손에 쥐고 쓸 수 있는 돈벌이에 급급하므로 작업훈련에 대한 절실함도 희박하다. 사례11은 어른들을 쫓아다니며 다양한 일을 했고 그 나이 또래에 비해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이 대상자에게는 장래를 위해 기술을 습득하거나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절심함을 희석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Q : 법사랑 위원이나 이런 거 하고 있어?

A : 없어요.

Q : 직업훈련 받은 적 있어?

A : 받을라다가 안 받았어요.

Q : 왜?

A :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싫었어요.... 잘 하는 게 있을 텐데 거기서 하나만 하기가 싫었어요.

(사례11)

반면 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해 별다른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사례11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교육을 오래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사오일 정도의 교육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대상자도 교육의 효과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Q : 혹시 가족하고 같이 보호자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거 받은 적 있어?

A : 네

Q : 어때?

A : 거기서 효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효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했는데..말이라도 잘 들어 볼까 했는데..막상해보니깐 미안한 마음밖에는 없죠..

Q : 이거는 가족이랑 다 같이 받지 않았니?

A : 아뇨 저는 엄마 아빠랑 같이 받은 적이 없고.. 보호자 교육 이런 것도 있고..

Q : 엄마 아빠 다 참석하셨어?

A : 친아버지만 참석했던 걸로 기억하고..

Q : 변화는 있었니?

A : 아뇨..

Q : 변화가 없어??

A : 똑같아요... 아주 약간 가까워지는 거? 다시 멀어지면 그만이잖아요..

Q : 아버지 행동이나 말이나 이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니?

A : 네..

Q : 얼마나 받으셨어 교육은?

A : 사오일 정도요

(사례11)

사례9의 경우도 부모-자녀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그러한 교육을 다른 가족들과 같이 받는다는 상황이 불편했던 것으로 보인다.

Q : 직업훈련이나 이런 건...?

A : 받아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받고 싶어요.

Q : 그럼 뭐, 엄마랑 같이 받는 건 받아본 적 있어?

A : 네, 받아봤어요.

Q : 엄마랑 같이?

A : 네, 엄마랑 와서.. 하루 교육 받았어요. 여기서.

Q : 어때, 괜찮았어?

A : 아뇨,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사람들 모여서... 상담을 할 거면 그냥 저 혼자 해야 하는데..
옆에 다른 사람 있으면 말을 못하잖아요.

(사례9)

다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9의 불만은 상담과 학업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이어졌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상담을 한다거나, 다수의 청소년들이 같이 공부를 배우는 상황이 청소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문제였다.

Q : 그렇구나. 그럼 이제까지 해봤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뭐였어?

A : 다 별로였어요.

Q : 다 별로였어?

A : 그냥 다 보통이었어요.

Q : 그럼 좀 어떻게 바뀌면 좋겠어? 니가 만족할 수 있도록...

A : 그냥 상담을 할 거면 한명씩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제 친구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 땀에 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뭐 힘든 일 있거나 그럴 때...

Q : 그런데 상담은 보통 일대일로 하지 않니?

A : 아니에요, 많이 해요. 교육도 좀 많이 들어가서 하고...

Q : 전에 대학생이랑 공부하고 이런 건... 그것도 별로였어?

A : 네, 그것도 좀 별로였어요.

Q : 왜?

A :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많았어요.

(사례9)

사례14의 경우도 보호관찰에서 지원받은 프로그램들이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Q : 뭐 솔직하게. 도움이 안되면 안된다고 얘기해도 되고.

A : 솔직히 도움 됐던건 없는 거 같아요.

Q : 그래? 검정고시는 그래도 네가 좀 해서 그 다음에 지금 학교로 온 거 아니야? 그것도?

A : 네 별로.

Q : 그것도 별로야?

A : 네.

Q : 그게 왜 별로일까?

A : 그거 되게 쉽게 나오던데. 공부 안 해도 다 풀고.

Q : 심리상담 같은 것도? 도움이 그냥 그래?

A : 그것도.. 딱히 뭐.. 그냥 얘기.. 얘기도 그 선생님 말고도 할 사람도 없었는데.. 그냥 그랬어요.
(사례14)

7. 소결

총 열네 명의 청소년이 심층면접분석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중 네 명은 올해 첫 대상자가 된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예비조사를 위해 만났는데 모두 남자 청소년이고 2회의 학업중단 경험과 2회 이상의 재비행경험이 있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면접대상이 된 다른 청소년들과 달리 작년과 올해의 변화된 모습을 알 수는 없으나, 반복된 학업중단 경험과 재비행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풍부한 질적 연구의 함의를 위해 포함시켰다. 나머지 열 명의 대상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면접대상이 된 청소년들로 성별을 보면 남자 청소년은 여덟 명, 여자 청소년은 두 명이다. 본문의 심층면접 내용은 주로 열 명의 대상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열 명의 청소년들 중 면접 이후 학교로 복교하여 현재도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사례는 여자 청소년 두 명과 남자 청소년 한 명 총 세 명이었다. 두 명의 여자 청소년은 모두 2년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며 남자 청소년 한명은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일반 고등학교로 복교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례13의 경우는 비행 전력이 전혀 없으며 원만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환경에서 성장하여 여타 면접대상자들에 비해 학업지속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올해 면접에서 예견된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례13의 변화는 보호관찰의 효과로도 볼 수 없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극적 변화도 아닌 것이다. 중학교 재학시절에는 성적도 좋아 복교해서도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으며 학교생활도 원만한 것으로 나타나 본인의 만족도도 높았다.

대상자중 여학생 두명은 2년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특성화 고교는 규율이 엄격하지도 않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아 대상자들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사례2는 친구들과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나 사례14는 이러한 학교생활이 자신의 미래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학교 프로그램이나 지도가 부실하다는 사실에 약간의 불만도 있었다. 그러나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일상생활에 규칙성을 부여하면서 비행예방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면접 이후 재중단 사례는 한명이 있었는데, 복교후 학업을 재중단한 사례4의 경우는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가 나이 어린 동급생, 교사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었다. 사례4는 다양한 비행전력을 가지고 있고, 부모자녀의 유대가 공고하지 못했으며, 공감능력도 부족해 보여 개인적 측면에서도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환경적 특성도 무시할 수 없었다. 열 명중 여섯 명의 대상자들은 학업중단 지속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인 사례6과 남자 청소년인 사례8은 작년 면접에서도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혔다. 사례3과 사례5의 경우는 나이가 많아 학교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며, 사례1은 복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사례7의 경우는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진학은 엄두도 못낼 상황이었다.

작년 면접이후 일상생활의 변화를 보면 사례7과 사례8은 경제적으로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결손가정으로 작년 면접에서도 보호자의 질병과 생계문제가 대상자들의 비행과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일년간 이들을 둘러싼 문제들은 더 심각해진 것이다. 이에 더해 가족간의 유대관계도 악화되었다. 사례7은 재혼한 아버지와 근래 들어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며 아버지에게 간 동생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으며 보호자인 할머니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다. 사례8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형이 가족과 연락을 두절된 상태였고, 어머니는 운영하는 가게가 어려워 하루 두 시간 남짓한 수면을 취하며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다.

지난 일 년 동안 청소년들의 몸은 훌쩍 커버렸지만 학교에 복교하지 않고 학업중단 지속상태인

대상자들의 무기력한 생활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면접에서 보호관찰관이 밝혔듯이 비행청소년들은 특히 변화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순간의 쾌감을 쫓아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낭비되는 시간의 중심에는 여전히 아르바이트가 있었다.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를 가능하게 하거나 삶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야간 아르바이트, 위험한 배달 아르바이트 등 각종 불법이 판치는 현장에서 이들은 손쉬운 착취의 대상이고 항상 상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번돈을 유흥에 쓰는 재미는 현실과 미래를 망각하게 한다.

한편, 이들이 무력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심리안정은 유지되고 있었다. 작년 면접에서도 나타났듯이 자살충동이나 우울감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연령효과라고도 할 수 있었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청소년 초기에 비행이 시작되었고, 비행은 학업중단, 보호관찰, 소년원 입소 등, 청소년들에게 난생 처음 사법당국과 접촉하는 경험을 하게 하였다. 비록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이나 스스로도 재판과정이나 학업중단 과정이 괴로웠음을 시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에 적응하고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부모 자녀관계의 갈등도 사그라져 극단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부모들도 자녀들이 성인기에 다다라감에 따라 더 이상의 간섭이나 갈등을 회피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관계가 회복된 측면도 있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에 대한 인정과 포기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적 안정과정은 모든 면접 대상자들이 공통으로 밝히는 바였다. 그러나 본인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심리적 문제가 완전히 좋아지리라는 확신은 가지기 어렵다. 이들을 둘러싼 환경이 호전되거나 변화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면 비행청소년들은 현실이나 주변인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 향후 다시금 정신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재비행 여부를 보면 열 명의 대상자중 네 명이 재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대상자들은 작년 면접에서도 이미 여러번 재비행 전력이 있어 지난 일 년 간 40%의 대상자가 재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재비행이 대부분 비행친구들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작년 면접에서도 비행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말한 사례들이 다수였고, 보호관찰에서도 교우관계를 관리하고자 하지만 비행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한 사례들은 사건사고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사례8은 친구들과 있다가 억울하게 걸렸다고 말하지만 보호관찰 대상자인 특성상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사례7과 사례1 등은 친구들과 더불어 유흥을 즐기기 위해 재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면접에서도 나타난 바, 보호관찰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심리 상담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만족을 표시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는 담당자나 멘토의 역량과 특성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보호관찰 선생님의 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컸다. 대상자들은 지난 일년 동안 일회에서 많게는 삼회까지 담당선생님이 바뀌었다고 한다. 선생님에 대한 불만 때문에 바뀐 것이 좋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들은 담당자가 바뀌면 반복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적응해야 하는 상황을 불편해했다. 또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불만도 있었는데, 다수의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끼리 모여 공부를 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 V 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제 V 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2차년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행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재복교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설문조사도 대부분의 청소년(84.9%)이 여전히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6명 중에서 20명(10.8%) 정도만 복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9명(4.8%)은 학업을 재중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심층면접결과에서도 학교로 돌아간 청소년들이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즉 비행청소년이 일단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상당수는 기존의 교육체계 내에 재진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진입을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업 재중단 이유로 검정고시응시,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규칙을 지키지 못해서 학업을 중단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이 본인들의 장래를 위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현실회피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재중단시에도 학교로부터 다양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층면접을 보면 이들의 비행전력과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교사나 동급생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도 나이 어린 동급생과 한 학년에서 배우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다. 교사의 입장에서 이들은 통제 불가능한 골칫덩어리들이며, 동급생들 사이에서도 이질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규율이 느슨하고 학업부담이 적은 특성화 고교로 복교한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복교한 학생들보다 학교적응력과 만족도는 높았다.

둘째, 아르바이트는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에서 중심을 차지한다. 설문응답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나 취업해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7.7%로 매우 높았고, 검정고시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61.8%로 높은 편이었다. 학업중단 후 평균 근무시간은 평일에 약 8시간, 휴일에도

* 이 장의 1절과 2절의 내용은 김지영 연구위원과 박성훈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약 6시간 이상 일하는 반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평일 약 3.5시간, 휴일 약 2.5시간으로 나타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을 위해 보내는 시간보다는 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업중단 이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돌아다니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는 ‘무업형’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미·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직업기술 교육, 대안학교와 같은 긍정적 활동에 참여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청소년들이 노동활동을 하는 것은 성장기의 귀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심층면접을 보면 비행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직업기술이나 학업을 배우는 것을 등한시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며 노동을 통해 들어오는 임금은 비행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즐기기 위해 사용하는 유흥비로 나가 결국 이들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재비행을 저지르게 하는 작용도 한다. 보호관찰관도 밝혔듯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은 의지가 부족하여 직업훈련과정을 연계해도 중도탈락율이 높다. 당장 돈을 손에 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며 금전적인 이득에 더해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 크게 다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 스스로 돈이 떨어지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말했듯이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청소년들 스스로 시간을 계획적으로 조절하고, 노동을 통해 번 돈을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내적 성숙함을 길러주는 것이다. 심리적 수련을 통해 마음이 건강해진다면 스스로 자신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세울 수 있고, 하루 일과를 계획하거나 직업을 배우거나 학업에 정진하는 일도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학업이나 진로탐색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학업이나 진로탐색을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경로는 인터넷(61.6%)이며, 교육·복지·고용관련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1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의 적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줄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정보 혹은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는 검정고시지원, 상담프로그램, 직업기술훈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담당보호관찰관의 성실성과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보들이 제공될 수도 있고,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끝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이들에게 보다 적절하고 풍부한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관심, 심층적인 진로선택 상담이 필요하다.

셋째, 지난 1년 동안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일상생활 및 생애사건의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동성친구나 이성 친구 혹은 선후배와 거주한다는 응답이 1차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자신이나

가족에게 발생한 사건 중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아졌다는 점,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점,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점, 시설이나 기관에서 생활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넷째,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부모애착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용돈 등 경제적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혹은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는 1차년도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의 경우 1차년도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으나, 친구의 비행성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기존에 같이 어울려 다니던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도 앞서 밝힌 연령과 보호관찰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심리적 측면에서 1차년도와 비교해 볼 때 2차년도의 결과는 변화가 크지 않거나 다소 나아지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을 반영하는 자아존중감은 1차년도 2.98에서 2차년도 3.03으로 향상되었고, 충동성도 1차년도 1.92에서 2차년도 1.86으로 조금 나아진 양상을 보여주었다. 반면, 자아탄력성이나 자아행복감,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은 더 나빠지지도 더 좋아지지도 않은 채 1차년도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측면에서 지난 1년 동안 학업중단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심리적 요인과 관련하여 2차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학력관이나 자립관 등이 일반학업중단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일수록 학력이 중시되는 풍조 속에서 학업중단을 미래의 불안요소로 인식하고 있고, 행동과는 별개로 저축, 돈 관리 등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일 년 간 비행청소년들은 성장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해졌고, 가족관계가 호전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변화의 주요 원인을 고찰하며 보호관찰과 연령효과라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에 따라 부모의 간섭도 덜해지고 스스로 시도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 비행이 억제됨으로서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상황을 피하게 되어 평온을 되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연령이 증가하여 가족으로부터 독립해가는 변화는 청소년과 가족 간의 거리를 확보해 갈등의 소지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집단따돌림, 성적인 놀림, 돈이나 물건 빼앗기기, 심하게 얻어맞기 등 주변으로부터 재산피해나 폭력피해를 당한 경험은 학업중단 이후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빼앗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공공장소의 기물 파손 등 비행행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학업중단 이후 비행 피해 및 가해행동의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비행학업행위의 감소경향이 자기보고식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소-보고(under-report)의 경향으로 인한 효과일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년도 대비 흡연과 음주, 도박 등의 지위비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심한 문제행동은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행동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앞서 기술한 보호관찰효과와 연령효과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본인 스스로 조심하게 되면서 비행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자기보고식 조사에 나타난 문제행동과는 별개로 보호관찰소 및 법원에 의해 처분을 받은 범죄유형을 살펴본 결과, 1차년도와 비교해 폭력범죄 및 교통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절도범죄 및 강도범죄, 약물범죄 등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범죄로 인해 받게 된 처분으로는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장기보호관찰’이 가장 많았고, 기타 처분의 내용으로는 ‘소년부 송치’,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가처분으로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1차년도와 다르게 ‘재범 위험 행위제한’도 일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부가처분으로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검정고시 등 보호관찰의 지시에 따를 것’등이 언급되었다.

여덟째,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및 보호관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담당보호관찰관이 바뀌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 평균적으로 약 2회 정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보호관찰 선생님의 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컸다. 대상자들은 지난 일 년 동안 일회에서 많게는 삼회까지 담당선생님이 바뀌었다고 한다. 선생님에 대한 불만 때문에 바뀐 것이 좋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들은 담당자가 바뀌면 반복해서 다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적응해야 하는 상황을 불편해했다.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으며, 1차년도와 비교해도 보호관찰관과의 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청소년에 대한 평가에서는 ‘약속시간준수’와 ‘전화연락응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보호관찰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검정고시 교육비 지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만족도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습·진로지도’ 및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에 대한 이용경험도 높은 편이며, 이에 대한 만족도도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나, 실제 이용이나 만족도와는 별개로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경제적 필요의 충족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가정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므로 경제적 지원에 관해서

는 재원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작년 면접에서도 나타난 바, 보호관찰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심리 상담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만족을 표시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는 담당자나 멘토의 역량과 특성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불만도 있었는데, 다수의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끼리 모여 공부를 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2. 결론

오랜 기간 청소년문제를 비롯해 형사사법제도를 연구한 Tonry와 Farrington(1995)에 따르면, 범죄예방전략(crime-prevention strategies)은 크게 상황적(situational) 예방전략, 지역사회(communitiy) 예방전략, 발달적(developmental) 예방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다(Tolan, 2004: 111 재인용). 상황적 예방전략은 목표강화, 자연감시의 증가 등을 통해 범죄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며, 지역사회 예방전략은 높은 실업률, 높은 이혼률과 같은 거시적 수준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주민들 간의 유대나 비공식 통제와 같은 공동체 요인은 증가시켜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발달적 예방전략은 일반범죄보다는 고위험군 청소년의 문제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진 전략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성향은 물론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범죄나 비행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세 가지 전략이 독립적으로 실천되기보다는 각각의 전략이 대상이나 맥락에 따라 혼합되어 실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비행학업중단청소년과 같이 고위험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적 예방전략에 지역사회 예방전략이 결합된 형태의 예방 프로그램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발달적 예방전략은 다시 개인수준의 접근(individual approaches), 가족에 대한 개입(family intervention), 또래집단에 대한 개입(peer group intervention),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개입(school-focused intervention)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개인수준의 접근과 관련한 것으로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외국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개인수준의 접근은 그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특정 집단에 적용한 프로그램이 다른 집단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족에 대한 개입은 청소년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천종호 판사 역시 소년법정에 선 청소년의 상당수가 “부모의 소중함, 특히 엄마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천종호, 2013: 297), 고위험 청소년과 가족해체 간의 높은 상관성을 언급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개입과 관련한 프로그램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방법 변화,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가족들 간의 정기모임 등이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문제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래집단에 대한 개입은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고위험 청소년의 태도나 가치를 바꾸고, 나아가 생활습관까지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말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고위험 청소년의 경우 또래집단 프로그램의 효과는 경우에 따라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개입은 주로 일차예방(primary prevention)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예방전략은 무엇보다 학교 당국의 의지와 교사의 전문성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경험적 연구들은 교사가 교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규범, 교사와 학생들이 폭력을 지지하지 않는 행동을 자주 표현할수록 학교폭력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Tolan, 2001: 120-122).

이러한 범죄예방의 관점과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을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단기적 측면에서는 첫째, 학교를 중심으로 신속한 조기 개입을 위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자주 결석을 하거나 이전에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으면서 복귀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 관련 기관, 보호관찰소 등에 적극적으로 알려 재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주로 학교내 상담교사나 지역내 상담센터에 보내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서나 보호관찰소를 통한 협조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관계능력을 함양할 기회를 가질 기회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천종호, 2013: 323). 따라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여 어른과의 관계 뿐 아니라 또래집단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다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전의 학업중단청소년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인관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심층면접과정에서 캠프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부모관계가 좋아진 사례도 있어 멘토링 프로그램이 어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또래집단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셋째, 조사 결과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2차년도에서도 학업중단시 학업숙려제를 비롯해 학업중단 이후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학업중단을 막지 못할 경우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상당수가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 중에는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어 오히려 사회에 대한 불신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창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한 소녀는 컴퓨터에 머물면서 자신이 종이접기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이 소녀는 그런 자격증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고 한다(천종호, 2013: 324-325).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져 형사사법기관과 접촉한 후에야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그만두는 단계에서 다양한 진로·직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공백기를 없애기 위한 맞춤형 계획이 필요하다. 비행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성향은 유사한 면도 있으나 개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를 겸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잘 드러났다.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이 빈곤과 방임 등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떤 청소년의 경우, 결정적인 걸림돌은 가난이고 다른 청소년의 경우는 심리적 질환일 수도 있다. 때문에 지원이 어떤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질지, 각각의 대상자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관한 면밀한 조사와 관찰이 필요하다. 정규학교,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학교 등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들에서는 청소년에 관한 자료들이 서로 공유되고, 추적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이러한 자료 공유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 예컨대 보호관찰소에 있다가 소년원에 입소 후 다시 보호관찰소로 돌아오는 청소년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제반 자료를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정규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학업을 중단할 때부터 학업중단 이후의 학업계획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을 연계시켜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년원과 같이 시설에 수용된 이후 퇴소하는 청소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학업과 장래계획을 전적으로 가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적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이 적절한 다른 기관에 연계해줄 필요가 있다. 때문에 사법기관 내에서만이라도 자동적으로 자료들이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각 기관 내에서 청소년을 집중 상담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개인의 욕구와 성향을 파악하여 학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장기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고위험군 청소년에 해당하는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센터’나 ‘학교’가 설립될 필요가 있겠다. 현실적으로 비행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돌아갈 수 있는 학교는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고등학교와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의 수업 내용, 운영체계가 학업을 중단했던 비행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복교를 하더라도 재중단하거나 아예 입학이 어렵거나, 졸업장 이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학교를 그냥 다니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비행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인내심이 부족하고 학업이 뒤쳐진 경우가 많으며 가정환경도 뒷받침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들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대안학교와 대안기관들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처음 시작된 ‘청소년회복센터’는 학교도, 가족도, 소년원도 적절히 보살피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적으로 마련된 사법형 그룹홈(group home)이다. 사법형 그룹홈은 사법부의 주도로 운영되는 비행청소년 전담 공동체 생활가정으로 여기에 머무는 대부분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년원이나 위탁기관의 문제점으로 일컬어지는 과밀화, 비행화, 왕따현상과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사회적응 및 재비행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천중호, 2013: 258-264). 외국에도 청소년회복센터와 유사한 기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본 오사카의 ‘수덕학원’과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Adelphoi Village’ 등을 들 수 있다.** 수덕학원은 헌법 아동자립지원시설로 1908년에 설립되었으며, 부지만 약 43,000평으로 여기에 본관, 별관, 강당, 기숙사 12개동, 주방동, 목공실, 세탁동,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시계탑 등이 설치되어 있다. 수덕학원의 정원은 100명으로 고아, 결손가정의 아동, 비행청소년 등이 위탁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으며, 수덕학원 내에 ‘사쿠라자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있어서, 이곳에 수용된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Adelphoi Village는 1971년 베네딕트 수도가 설립한 시설로 그룹홈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펜실베이니아는 물론 웨스트버지니아, 뉴욕, 메릴랜드 등 다른 주에까지 확대되어 있다. 이곳 역시 대안학교 성격의 학교가 있으며, 교육부 소속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상담사는 수업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학습태도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한다.

국내에서도 2011년에 창원에서 처음으로 2년 과정의 ‘국제금융고등학교 창원분교’가 설립되었는데, 비행학업중단청소년 20명이 처음으로 입학하여 2013년에 처음으로 1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 중 6명이 대학에 입학을 하였고, 나머지는 취업을 하거나 군에 입대하였을 뿐 아니라

** 두 기관에 대한 소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위크숍(2014. 10. 1.)에서 발표된 원고를 재정리한 것이다. 발표를 맡아주신 부산가정법원 천중호 판사와 한세대학교 박선영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재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역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기적으로는 비행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더 불러일으켜 청소년회복센터와 같은 소규모 그룹홈을 통해 무너진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을 형성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재비행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기존의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학습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대안적인 학교가 설립되어 이들이 학업과 등지지 않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통계. 충북: 질병관리본부.
- 금명자, 권해수, 이자영, 이수림, 김상수 (2004). 학교밖 청소년 종합 지원체제 구축 운영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2013).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4), 1-28.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연구보고 10-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선, 홍영오 (20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연구총서 11-26).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일석 (2010). 남자 청소년 폭력사범 재범 예측요인. 형사정책연구, 21(3), 349-379.
- 민인철, 이용교 (2011). 광주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 광주: 광주광역시.
-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 (2010).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3). 2012년도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4).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안내서.
- 손태억, 허강무, 정성섭, 김성훈 (2014). 교사멘토링 프로그램 집행 매뉴얼. 2013 보호관찰 정책연구 자료집, 419-525.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신혜령, 박은미, 강현아, 이현주, 한규제, 김정희 (2008).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 윤철경, 김영지, 유성렬, 강명숙 (2013a). 학업중단 학생 종단정책 연구 (연구보고 12R-5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연구보고

- 13-R1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백혜정 (200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II** (연구보고 05-12).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201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1-R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서정아, 배상률, 성은모, 김지영, 강현철 (201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II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2-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원, 황진구, 서정아, 한영근, 허효주, 이영화 (2013).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V: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3-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영실, 김지영, 박성훈 (2013).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3-R18-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영실, 신동준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2-AA-01).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천종호, 2013.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서울: 우리학교.
- 최인재, 모상현, 이선영 (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2-R1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kers, R.L. & Sellers, C.S. (2004).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 (한국어판: 민수홍, 박기석, 박강우, 기광도, 전영실, 최병각 공역, 범죄학 이론, 나남출판, 2005)
- Greenwood, P. (2008). Preventing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Juvenile Offenders. *The Future of Children*, 18(2), 185-210.
- Harvey, R. D.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henomenological Impact of Social Stigma.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 174-189.
- Jones, M.A., Clarks, P.A. and Quiros, R.J. (2010). Juvenile Probation and Mentoring, Technical Assistance Profile.
- Tolan, Patrick. (2004). Crime Prevention: Focus on Youth, edited by James Q.

- Wilson and Joan Petersilia, *Crime: Public Policies for Crime Control*, CA: ICS Press.
- Tonry, M., and D. P. Farrington. (1995). *Strategic Approaches to Crime Prevention: Building a Safer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Quinn, W.H. & Dyke, D.V. (2004). A Multiple Family Group Intervention for First-Time Juvenile Offenders: Comparisons with Probation and Dropouts on Recidivism,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2), 177-200.
- www.mentoring.org/images/uploads/OJJDP_Profile%20single.pdf. 2014년 10월 10일 접속.



부록

부 록

1.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용 설문지 및 보호관찰관련 조사용 별지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 조사 2014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소년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 조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계속되는 연구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귀하가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2014년 6월

조사주관기관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김 지 영 박사(02.3460.5137)
전 영 실 박사(02.3460.5122)
박 성 훈 박사(02.3460.5130)

조사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신 성 현 수석부장(02.3014.0087)
박 선 경 과 장(02.3014.1016)

PID
(기록하지 마세요)

본인 이름

I. 학업중단 현황

※ **지금부터 응답하는 모든 문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응답 기준이 없는 한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지난 조사를 언제 했는지 기억나지 않으면 면접원 선생님께 확인해주세요. 응답 도중 잘 모르겠는 문항이 있으면 면접원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기타 또는 빈 칸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 주세요.**

문 1. 귀하는 현재 다음 중 어떤 상태입니까?

- ※ 여기에서 학교란 정규 학교를 가리키며 학력 인정을 위해 검정고시를 볼 필요가 없는 학교를 말함
- ※ 인가 대안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며, 비인가 대안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 ※ 학교를 휴학 중인 경우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로 봄
- ※ 중학교를 마치고 정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경우도 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포함됨
- ※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로 봄
- ※ 방송통신중학교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임

- ①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 → 「문 1-1」로
- ②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 → 「문 1-2」로
- ③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 → 「문 2」로
- ④ 기타() → 「문 2」로

문 1-1.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여부는?

- ①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 → 「문 2」로
- ②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였다 → 「문 2」로

문 1-2.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현재 어느 기간입니까?

- ① 학기 중 ② 방학 중 ③ 휴학 중

※ **다음은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복학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2.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에 복학한 경험이 있습니까?

※ 중학교, 고등학교 복학 모두 포함

- ① 복학한 경험이 없다 → 「문 3」으로
- ② 복학한 경험이 있다 → 「문 2-1」로

문 2-5.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에 다녔던 학교로 복학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선생님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 ② 친구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 ③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서
- ④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는 학교로 옮기려고
- ⑤ 검정고시를 쳐서 학력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 ⑥ 예전 학교로 복학되지 않아서
- ⑦ 다니던 학교가 멀어서
- ⑧ 학비가 비싸서
- ⑨ 내신을 받기 어려워서
- ⑩ 계열을 바꾸려고
- ⑪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 ⑫ 기타(_____)

문 2-6.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복학한 학교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복학한 경우, 마지막 복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 아는 데까지 기재

학교소재지 	(____)(시/도) (____)(시/군/구) (____)(읍/면/동)
---	---

문 2-7. 복학한 이후 학교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를 중단한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3.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 대학교를 중단한 경우 「문 4」로

① 중단한 경험이 없다

→ 「문 4」로

② 중단한 경험이 있다

→ 「문 3-1」로

문 3-1.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만둔 학교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경우 ① 일반고에 표시

※ 실업계고는 특성화고에 해당

① 중학교

② 일반고

③ 특성화고

④ 자율고

⑤ 특목고

⑥ 기타()

문 3-2.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기간 중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언제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까?

※ 예: 2013년 10월에 그만둔 경우, 2013년 10월로 기입

※ 학교를 그만둔 때는 자신이 학교를 나가지 않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함

※ 지난번 조사이후 현재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기입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학교를 그만둔 때

201□년 □□월

문 3-3.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기간 중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세요.

※ 적어도 1순위는 꼭 기입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
| ① 건강상의 이유로 | ②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
| ③ 가정불화 때문에 | ④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
| ⑤ 공부하기 싫어서 | ⑥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
| ⑦ 친구들이 싫어서 | ⑧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
| ⑨ 학교를 그만둔 친구를 따라 놀고 싶어서 | ⑩ 선생님이 싫어서 |
| ⑪ 검정고시를 하려고 | ⑫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
| ⑬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 ⑭ 비행으로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
| ⑮ 학교가 너무 멀어서 | ⑯ 잠이 많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
| ⑰ 다른 학교에 가려고 | ⑰ 이민 또는 해외 유학 가려고 |
| ⑱ 이성문제로 인해 | ⑲ 학교 분위기가 싫어서 |
| ㉑ 전학이 안 돼서 | ㉑ 복학생이라고 눈치 줘서 |
| ㉓ 나이 어린 친구들과 다니기 싫어서 | ㉓ 성적이 안 나와서 |
| ㉕ 기타(_____) | |

문 3-4.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학교를 그만 둔 무렵, 학업중단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의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 | |
|-----------------------|-------------|
| ① 부모님 | ② 형제자매 |
| ③ 학교교사 | ④ 학교 내 상담교사 |
| ⑤ 상담기관(상담사, 인터넷 상담 등) | ⑥ 친구나 선후배 |
| ⑦ 없음 | ⑧ 기타(_____) |

문 3-5.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업중단 시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제공 받은 경험이...	
1)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① 없다	② 있다
2)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① 없다	② 있다
3)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① 없다	② 있다
4)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① 없다	② 있다
5)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예: 고용지원센터)	① 없다	② 있다
6)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설명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결정 전에 전문기관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① 없다	② 있다

문 3-6.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필요했던 도움은
어떤 것이었나요?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 | |
|-------------------------|--------------------------|
| ①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 ② 심리상담 |
| ③ 진로상담 | ④ 대안교육 |
| ⑤ 직업기술훈련 | ⑥ 일자리 소개 |
| ⑦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 | ⑧ 경제적 지원 |
| ⑨ 진학정보 제공 | ⑩ 진학상담 |
| ⑪ 관심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 ⑫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
| ⑬ 없음 | ⑭ 기타(_____) |

문 3-7.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기관 상담
을 받으며 2주 정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학업중단숙려제)을 가졌습니까?

- ① 예 → 「문 3-8」로
② 아니오 → 「문 4」로

문 3-8.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2주 동안 학업중단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학업중단숙려제)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 | | |
|-----------------|-----------------|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

II. 최초 학업중단 당시의 회고와 현재

※ 다음은 귀하가 “최초”로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와 현재에 관한 문항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4. 귀하가 최초로 그만둔 학교는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경우 ③ 일반고에 표시
- ※ 학교유형을 잘 모르는 경우 기타에 학교명을 기입
- ※ 실업계고는 특성화고에 해당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 ③ 일반고 ④ 특성화고 ⑤ 자율고 ⑥ 특목고
- ⑦ 기타(_____)

문 5. 귀하가 최초로 그만둔 학교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있었습니까?

-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② 중소도시(시·군·구·동) ③ 읍·면·리 지역

문 6. 귀하가 최초로 학교를 그만 두었을 때 무엇을 가장 하고 싶었습니까? 가장 하고 싶었던 것부터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세요.

※ 적어도 1순위는 꼭 기입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었다 ②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빨리 얻고 싶었다
- ③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④ 원하는 분야의 기술을 빨리 배워 사회에 진출하고 싶었다.
- ⑤ 실컷 놀고 싶었다 ⑥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
- ⑦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고 싶었다 ⑧ 전학가고 싶었다
- ⑨ 대학진학을 유리하게 하고 싶었다 ⑩ 전문심리상담 또는 진로상담을 받고 싶었다
- ⑪ 대안학교에 가고 싶었다 ⑫ 기타(_____)

문 7. 현재, 자신이 위에서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들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이루지 못했다 → 「문 7-1」로
- ② 거의 이루지 못했다 → 「문 7-1」로
- ③ 거의 이루었다 → 「문 7-2」로
- ④ 매우 잘 이루었다 → 「문 7-2」로

문 7-1. 위에서 전혀 이루지 못했거나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까?

- 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 ② 끈기 부족
- ③ 노는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함
- ④ 관련정보 부족
- ⑤ 이끌어주는 사람 부재
- ⑥ 가족(보호자)의 지원 부재
- ⑦ 게임이나 인터넷 몰두
- ⑧ 학원을 다닐 돈이 없었음
- ⑨ 보호관찰 중이라
- ⑩ 기타(_____)

문 7-2. 위에서 거의 이루었거나 잘 이루었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까?

- ① 가족이 격려나 용기를 준 것
- ② 진학이나 취업준비를 위한 계획과 목표가 확실
- ③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 ④ 지속적으로 이끌어준 사람의 존재
- ⑤ 전문기관을 이용
- ⑥ 유혹을 잘 뿌리침
- ⑦ 가족(보호자)의 경제적 지원
- ⑧ 기타(_____)

Ⅲ. 생활 경험과 인식

※ 다음은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귀하의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8.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아래 각각의 일을 경험한 달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해당 기간은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임
- ※ 해당 기간 동안 월별로 최소 1개 이상 항목에 응답해야 하며 각 항목마다 경험한 달에 모두 표시해야 함
- ※ 월별로 한 일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음
- ※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도 학교에 속해 있으면 학교를 다닌 것으로 표기함
- ※ 응답자가 해당 월에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경우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을 선택
- ※ 앞의 문항에서 복학, 학업중단, 8시간 이상 일(아르바이트) 경험 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내용이 꼭 표시되어야 함
- ※ 복학이나 학업중단을 여러 번 한 경우 해당 기간을 더 주의 깊게 표시
- ※ 학교를 그만둔 시점은 학교를 나가지 않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함

[응답 예시]

2012년 11월에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승호는 2013년 7월에 지난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2013년 9월~10월은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전에 다니던 학교에 복학하여 2014년 6월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2014년 2월~3월은 집 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 승호가 지난 설문조사를 한 이후인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응답합니다.
- ☞ 문1) 복학하여 학교에 다님 의 보기 ⑨ 2014년 3월 ~ ⑩ 2014년 6월에 모두 동그라미 합니다.
- ☞ 문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의 보기 ③ 2013년 9월과 ④ 2013년 10월, ⑧ 2014년 2월과 ⑨ 2014년 3월에 모두 동그라미 합니다.
- ☞ 학업중단 기간 중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은 문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의 보기 ② 2013년 8월, ⑤ 2013년 11월 ~ ⑦ 2014년 1월에 동그라미 합니다.

	2013년						2014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승호가 응답해야 할 기간

※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예시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2013년						2014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2) 대안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3) 검정고시 공부를 함 (검정고시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4) 직업기술을 배움 (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자네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7) 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8)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9)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10) 대학입시 공부를 함 (대입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11) 대학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문 8-1. 「문 8」에서 “3) 검정고시 공부를 함” 이라고 응답한 경우 어떻게 검정고시 공부를 하셨습니까?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검정고시 공부를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문 9」로

- ① 혼자서 (방송이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등)
- ②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 ③ 청소년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동네 기관에서 지원하는 검정고시 공부
- ④ 교육청이나 보호관찰소 등에서 지원하는 검정고시 공부
- ⑤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 ⑥ 기타(_____)

문 9.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지낸 경우가 있다면 해당하는 달에 모두 응답
해 주십시오.

※ 어느 상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⑩ 해당 없음 ” 에 표시하고 「문 10」으로

	2013년						2014년							해당 없음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가출팸: 가출한 친구들 끼리 모여 함께 사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⑩
2)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 쉼터 등)에서 지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3) 보호관찰을 받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4)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소년분류심사원: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하여 원인을 밝히고 분류 심사하는 기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5) 소년원 학교에서 생활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문 9-1. 「문 9」에서 “3) 보호관찰을 받음” 이라고 응답한 달이 있는 경우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분이 만나는 보호관찰관이 바뀐 적이 있나요?

※ 「문 9」에서 “3) 보호관찰을 받음” 이라고 응답한 달이 없는 경우는 「문 10」으로

- ① 없다 → 「문 9-3」으로
② 있다 → 「문 9-2」로

문 9-2. 「문 9-1」에서 “2)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 보호관찰관이 몇 번 바뀌었나요?

보호관찰관이 바뀐 수

번

문 9-3. 지난 조사이후 현재까지 보호관찰소에서 만나고 있는 선생님(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각 항목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2) 보호관찰 선생님은 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3)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4) 보호관찰 선생님에게 나의 문제를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문 9-4. 지난 조사이후 현재까지 귀하가 다음과 같은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이용여부를 선택하고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용여부	만족도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1) 경제적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2) 학습·진로 지도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3)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4) 숙소정보 제공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5) 검정고시학원 교육비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6) 의료 지원(질병치료, 문신제거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7) 심리상담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8)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문 9-5. 현재 운영 중인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 중에서 계속해서 받고 싶은 프로그램이
나 지금까지 지원 받은 적은 없지만 앞으로 지원 받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원하는 순서대로 3개를 응답해 주세요.

※ 적어도 1순위는 꼭 기입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
| ① 경제적 지원 | ② 학습 · 진로 지도 |
| ③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 ④ 숙소정보 제공 |
| ⑤ 검정고시학원 교육비 지원 | ⑥ 의료 지원(질병치료, 문신제거 등) |
| ⑦ 심리상담 지원 | ⑧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 · 상담 지원 |
| ⑨ 없음 | ⑩ 기타 () |

※ 다음은 귀하의 일(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0. 현재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10-1」로
② 아니오 → 「문 11」로

문 10-1. 현재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는 경우, 귀하의 근로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시간제 근로자(시간 당 임금을 받는 경우)
② 일용직(하루씩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경우)
③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④ 계약직(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⑤ 실습생(학교가 위탁하여 학생 신분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⑥ 정규직(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⑦ 잘 모르겠음
⑧ 기타(구체적으로)

문 10-2.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체크해주세요. 현재 하는 일(아르바이트)이 2개 이상이라면 ‘더 많은 시간을 하는 일(아르바이트) 기준’입니다.

- | | |
|--------------------------|-------------------------------|
| 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 ② 카페(커피숍) 및 주점 서빙 |
| ③ 24시간 편의점 점원 | ④ 일반상점 판매원 |
| ⑤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 | ⑥ 노래방 카운터 및 서빙 |
| ⑦ 만화방 카운터 및 서빙 | ⑧ 피자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배달 |
| ⑨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카운터/배달 | ⑩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빠끼), 서빙 및 접대 |
| ⑪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 ⑫ 주유소 주유원 |
| ⑬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 포장 | ⑭ 건설현장 노동 |
| ⑮ 공장노동 | ⑯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
| ⑰ 아기, 노인 돌보기 | ⑰ 퀵서비스 배달 |
| ⑱ 택배기사 | ⑲ 태권도·수영·헬스 등 운동 코치·사범 |
| ⑳ 키즈카페·수영장 등 안전요원 | ㉑ 오토바이, 자동차 등 정비 엔지니어 |
| ㉒ 식당, 출장 뷔페 등 요리사 | ㉒ 마트 등 주차·안내요원 |
| ㉓ 이·미용이나 네일 아트 등 | ㉓ 전자제품 방문 설치기사 |
| ㉔ 패션, 광고 모델 | ㉔ 배우 |
| ㉕ 가수 | ㉕ 콜센터 안내직원 |
| ㉖ 일반 사무직 | ㉖ 기타(_____) |

문 10-3. 귀하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에서 응답한 일(아르바이트)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급이나 월급으로 받는 경우 시간당 비용으로 환산

1) 일주일에 며칠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약 (_____)일
2)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약 (_____)시간
3) 한 시간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약 (_____)원

※ 다음은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1.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귀하를 이해하고,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기관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 | |
|--------------------------------------|------------------------|
| ①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 | |
| ②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공부방 등) | ③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등) |
| ④ 상담기관(청소년상담소 등) | ⑤ 보호관찰소 |
| ⑥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취업사관학교) | ⑦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
| ⑧ 학원 | ⑨ 병원 등 치료시설 |
| ⑩ 대안교육기관 | ⑪ 없음 |
| ⑫ 기타(_____) | |

※ 다음은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2.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가입만 하고 한 번도 활동하지 않은 경우 “② 아니오”에 기재

- | | |
|-------|-------------|
| ① 예 | → 「문 12-1」로 |
| ② 아니오 | → 「문 13」으로 |

문 12-1.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세요.

※ 적어도 1순위는 꼭 기입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
| ① 재미를 위해 | ② 자아계발 |
| ③ 평소의 흥미 | ④ 학업중단 청소년끼리의 공감대 형성 |
| ⑤ 보다 많은 사람과의 교류 | ⑥ 학업중단 성공사례를 알고 싶어서 |
| ⑦ 취미생활 공유 | ⑧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
| ⑨ 사교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싶어서 | ⑩ 감정고시 준비에 도움 |
| ⑪ 복학에 도움 | ⑫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 |
| ⑬ 취업 또는 직업 선택에 도움 | ⑭ 대학 및 학과 선택에 도움 |
| ⑮ 공모전 등 각종 대회 준비에 도움 | ⑯ 학과 공부에 도움 |
| ⑰ 특별한 이유 없음 | ⑱ 기타(구체적으로_____) |

문 12-2. 귀하가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 |
|----------------------------|-------------------------|
| ①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등) 동아리 | ②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동아리 |
| ③ 보호시설(청소년쉼터 등) 동아리 | ④ 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동아리 |
| ⑤ 보호관찰소 동아리 | ⑥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등) 동아리 |
| ⑦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동아리 | ⑧ 소년원 학교 동아리 |
| ⑨ 검정고시 학원 동아리 | ⑩ 대입학원 동아리 |
| ⑪ 병원 등 치료시설 동아리 | ⑫ 대안교육기관 동아리 |
| ⑬ 중·고등학교 동아리 | ⑭ 대학교 동아리 |
| ⑮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 카페 | ⑯ 인터넷 홈페이지 |
| ⑰ SNS 서비스(페이스북, 싸이월드 등) 카페 | ⑱ 활발하게 참여한 것 없음 |
| ⑲ 기타(_____) | |

※ 다음은 귀하의 진로·진학 관련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3.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①	②	③	④
2)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①	②	③	④
3)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4)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여가시간, 방과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14. 다음은 귀하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5)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7)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8)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1)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	①	②	③	④
1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①	②	③	④
13) 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 15. **향후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단,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		→ 「문 17」로
진학·학업	② 정규학교로 복학(대학 진학 포함)	→ 「문 16」으로
	③ 대안학교 진학	
	④ 해외 유학	
	⑤ (대안학교 등을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	
	⑥ 진학하지 않고 취업(창업)할 예정임	
취업	⑦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임	
	⑧ 취업과 진학 병행(방송통신고 등)	
	⑨ 진학이나 취업은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임	
	⑩ 당분간 무보수로 기업(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 등)을 도울 예정임	

문 16. 귀하는 향후 원하는 진로계획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문 17.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중졸	고졸	초대졸 (2~3년제)	대졸 (4년제)	대학원 졸 (석사 및 박사)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 18.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
항목별로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정규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면 「문 19」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야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3)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였)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	①	②	③	④
5)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	①	②	③	④

IV.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 다음은 귀하의 **심리, 정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19. 다음은 귀하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으니 각 항목에 대해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20. 귀하의 **평소 기분과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3)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4)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5) 울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6)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①	②	③	④
7) 외롭다.	①	②	③	④
8)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9)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10)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화가 나면 물물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의 **게임, SNS,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21. 귀하가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 보았는지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 21-1. 다음은 **게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2)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①	②	③	④
3)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①	②	③	④
4)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5)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6)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7)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8)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 21-2. 다음은 **SNS**에 관한 질문입니다.

※ 본 설문에서 말하는 SNS는 “웹 상에 개인이 공적인 신상정보를 만들거나, 자신과 인맥을 맺은 다른 이용자들의 리스트를 분류하고, 다른 사람들의 계정에 있는 인맥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웹서비스”를 의미

※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싸이월드가 SNS에 포함되며 카카오톡은 SNS에 포함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SNS 상에서 나의 개인정보(연락처, 하는 일, 학교 등)가 유출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SNS 상에서 나를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SNS 상에서 나에게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SNS를 통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SNS를 통해 허락 없이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올려 놓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SNS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SNS를 통해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SNS를 통해 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 등)을 올려 놓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21-3. 다음은 스마트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전부절 못하고 초조해신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Ⅴ.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 다음은 귀하의 **부모(보호자), 친구관계, 동네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22. 다음은 귀하가 **부모님(보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는 보호자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보호자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다른 가족, 친척, 어른 등이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고민을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5)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보호자)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문 23. 다음은 **부모님(보호자)**께서 귀하에게 나타내는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4)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6) 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신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8)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리신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많이 하신다. (예를 들어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말)	①	②	③	④

문 24. 현재 친한 친구가 몇 명입니까?

- ※ 여기서 친한 친구란 '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 로 예전 학교친구, 동네친구 및 선후배도 포함될 수 있음
- ※ 없으면 0으로 기입

현재 친한 친구수	() 명
-----------	--------------------------

문 24-1. 현재 친한 친구 중 지난번 조사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는 몇 명입니까?

- ※ 「문 24」에서 말한 현재 친구 중 해당되는 친구수를 기입하는 것이므로 「문 24」의 친구수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 없으면 0으로 기입

새롭게 사귀 친구수	() 명
------------	--------------------------

문 24-2. 현재 친한 친구 중 학업 중단한 친구는 몇 명입니까?

- ※ 「문 24」에서 말한 친구 중 해당되는 친구수를 기입하는 것이므로 「문 24」의 친구수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 없으면 0으로 기입

학업중단한 친구수	() 명
-----------	--------------------------

문 25. 귀하의 친구(선후배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4)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①	②	③	④
5)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①	②	③	④
6)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①	②	③	④

문 26. 귀하가 현재 사는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낸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①	②	③	④
3)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는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린다.	①	②	③	④
5)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 집이나 공터가 많다.	①	②	③	④
6)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①	②	③	④
7) 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8) 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청소년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다.	①	②	③	④

VI. 일상 생활 및 가치관

※ 다음은 귀하의 일상생활 및 가치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27. 다음은 귀하가 하루 동안 생활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생활 영역별로 해당 여부를 응답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기입해 주세요.

※ 평일, 휴일별로 모든 시간의 합은 24시간 미만이 되어야 함

※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 주로 하는 일 기준으로 기재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

※ 앞 설문에서 현재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님, 대안학교에 다님, 직업기술을 배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등에 응답하였으면 학교나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여야 함

※ 자신이 하루 중 주로 하는 일이 빠진 경우 기타에 기입하고 시간을 기재

		해당여부	평일에는	휴일에는
수면 시간	1) 나는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이 대략...	☒	()시간이다.	()시간이다.
공부나 일하는 시간	2) 나는 하루 24시간 중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3) 나는 하루 24시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여가 시간	4) 나는 하루 24시간 중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5) 나는 하루 24시간 중 휴대전화기,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 숙제나 공부 때문에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시간은 제외함			
	6) 나는 하루 24시간 중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가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7) 나는 하루 24시간 중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시간이...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8) 나는 이 외에 하루 24시간 중 여가 시간에 주로 ()을/를 하며 시간은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문 27-1. 귀하는 보통 밤(또는 새벽)에 몇 시에 잡니까?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세요.

※ 예: 밤 10시 30분 → (22) 시 (30) 분, 밤 12시 → (0) 시 (0) 분, 새벽 1시 30분 → (1) 시 (30) 분

	1) 평일	2) 휴일
밤(또는 새벽)에 자는 시간	()시 () 분	()시 () 분

문 28. 다음은 식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유나 주스만을 마신 것은 식사에서 제외하며 빵, 선식, 미숫가루, 죽, 시리얼 등을 먹은 경우는 포함합니다.

	아니다	그렇다
1) 최근 7일 동안 나는 아침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2) 최근 7일 동안 나는 점심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3) 최근 7일 동안 나는 저녁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4) 최근 7일 동안 나는 라면이나 컵라면을 주 3회 이상 먹었다.	①	②

문 29. 다음은 학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2) 우리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3)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문 30.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만 응답)** 다음은 귀하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 이미 대학에 진학한 경우 「문 31」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31. 다음은 귀하가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문 32. 다음은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목표의식을 갖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자립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성인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4)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학업준비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5) 직업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가 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6)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근로탐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7) 취업 및 대학진학과 관련한 진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갈등상황 해결, 분노조절 등의 사회관계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9) 저축, 돈관리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VII. 행동 경험

※ 다음은 귀하의 행동이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33. 다음은 귀하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1)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2) 성적인 놀림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3)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① 없다	② 있다
4)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	① 없다	② 있다
5) 심하게 얻어맞기(폭행)	① 없다	② 있다
6) 성폭력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문 34. 다음은 귀하가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1) 담배 피우기	① 없다	② 있다
2) 술 마시기	① 없다	② 있다
3)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없다	② 있다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① 없다	② 있다
5)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뺑 뜯기)	① 없다	② 있다
6)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① 없다	② 있다
7) 돈내기 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① 없다	② 있다
8) 자살 시도	① 없다	② 있다
9)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① 없다	② 있다
10) 약물(본드) 흡입	① 없다	② 있다

VIII. 배경요인

문 35.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모두 응답해 주세요. 직장 혹은 학교 때문에 잠시 떨어져 지내는 가족은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 | | |
|---------------|--------------------|
| ① 혼자 | |
| ① 친아버지 | ② 친어머니 |
| ③ 새아버지 | ④ 새어머니 |
| ⑤ (외)할아버지 | ⑥ (외)할머니 |
| ⑦ 형제, 자매 | ⑧ 친척 |
| ⑨ 시설 및 기관 선생님 | ⑩ 동성 친구, 선후배 |
| ⑪ 이성 친구, 선후배 | ⑫ 남편, 아내 |
| ⑬ 자녀 | ⑭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 36. 다음 중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있는 대로 모두 골라주세요.

※ 대학진학, 취업 관련사항, 부모와의 관계는 앞 문항에서 질문하였으므로 따로 기입하지 않아도 됨

- | | |
|-----------------------------------|-------------------------------|
| ① (내가) 친가족으로부터 독립 | ② (내가) 시설 및 기관 퇴소 |
| ③ (내가) 떨어져 살던 친가족과 생활 | ④ (내가) 시설 및 기관에서 생활 |
| ⑤ (내가) 종교를 갖게 됨 | ⑥ (내가) 자격증 취득 |
| ⑦ (내가) 건강이 좋아짐 | ⑧ (내가) 건강이 나빠짐 |
| ⑨ (내가)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아짐 | ⑩ (내가) 새어머니(또는 새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짐 |
| ⑪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대학 진학 | ⑫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취업 |
| ⑬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결혼 | ⑭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건강이 나빠짐 |
| ⑮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사망 | ⑯ (함께 살던 외조부모 중) 한 명 이상 사망 |
| ⑰ (친부모님 중) 한분 이상 건강이 좋아지심 | ⑰ (친부모님 중) 한분 이상 건강이 나빠지심 |
| ⑱ (친부모님이) 사이가 좋아지심 | ⑳ (친부모님이) 사이가 나빠지심 |
| ㉑ (친부모님이) 별거 | ㉒ (친부모님이) 이혼 |
| ㉓ (친부모님이) 취업 또는 창업 | ㉔ (친부모님이) 재혼 |
| ㉕ (친부모님이) 돌아가심 | ㉖ (친한 친구가) 사망 |
| ㉗ 없음 | |
| ㉘ 나 또는 내 가족과 관련한 기타 중요한 사건(_____) | |

문 37. 귀하는 지난번 조사 이후 현재까지 이사를 몇 번 했습니까?

※ 이사경험이 없는 경우 0으로 기재

지난번 조사이후 이사 	() 번
---	-------

문 38. 귀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39.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문 40. 귀하의 장래 희망은 무엇입니까? 아래 빈 칸에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장래 희망 	()
---	-----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 상품권 수령증

이번 조사에 응해주신 귀하께 감사의 뜻으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하가 매년 조사에 참여하실 때마다 감사의 뜻으로 사례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연구 및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계신 귀하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또는 보호자께도 패널 조사에 대해 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문화상품권 수령확인을 위해 이름과 조사일시, 서명을 자필로 쓰시고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인 나 (이름)_____ 는 2014년 ____월 ____일 ____시에
본 조사에 참여했으며, 응답사례품(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내년 조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싸인): _____

♣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

긴 시간 동안 조사에 협조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성해 주신 설문 내용은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요긴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별지] 패널 정보 기록지

※ 본 [별지]는 보호관찰관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세요.

PID (기록하지 마세요)						이름	
휴대전화번호		- -					
이메일 주소		@					
카카오톡 ID							
사는 곳 주소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 나머지 주소 : _____					
부모님 주소		*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에만 기록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 나머지 주소 : _____					
집 전화번호		- -		부모님 집 전화번호		*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에만 기록 - -	
아버지	성명			형제· 자매 또는 친척	성명		해당란에 O 표시 남자형제 · 여자형제 · 친척
	휴대전화 번호	- -			휴대전화 번호	- -	
어머니	성명			친한 친구	성명		
	휴대전화 전화번호	- -			휴대전화 번호	- -	
기타1	성명 (관계)			기타2	성명 (관계)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다음은 지난 조사이후 현재까지 설문대상 패널 청소년이 보호관찰을 받으며 추가로
드러난 여죄가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이 청소년에게 추가로 드러난 여죄나 범죄가 있습니까?

- ① 예 → 별지 「문 1-1」로
② 아니오 → 별지 「문 3」으로

문 1-1. 지난 조사이후 현재까지 청소년에게서 추가로 드러난 여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난 조사를 2013년 7월 3일에 실시하였으면 2013년 7월 4일부터 현재까지의 여죄를 말함
 ※ 추가로 드러난 여죄가 없는 경우 “⑥ 없음”에 표시
 ※ 기타 여죄가 있는 경우 “⑦ 기타”에 표시하고 기재

- ① 폭력 ② 절도 ③ 강도
④ 약물 ⑤ 교통범죄 ⑥ 없음
⑦ 기타()

문 1-2. 지난 조사이후 현재까지 이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난 조사이후 현재까지 저지른 범죄가 없는 경우 “⑥ 없음”에 표시

- ① 폭력 ② 절도 ③ 강도
④ 약물 ⑤ 교통범죄 ⑥ 없음
⑦ 기타()

문 2. 이 청소년에게서 **추가로 드러난 여죄 혹은 저지른 범죄가 있다면, 그로 인해 받게 된 처분**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물처분
 - ②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1호처분)
 - ③ 수감명령
 - ④ 사회봉사명령
 - ⑤ 단기 보호관찰
 - ⑥ 장기 보호관찰
 - ⑦ 소년보호시설 위탁(6호)
 - ⑧ 1개월 소년원(8호처분)
 - ⑨ 단기 소년원(9호)
 - ⑩ 장기 소년원(10호)
 - ⑪ 기타()

문 3. 지난 조사이후 현재까지 부가적으로 받은 처분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야간외출제한명령
- ② 상담교육
- ③ 보호자교육
- ④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 ⑤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 ⑥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 ⑦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⑧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 장소 제한
- ⑨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⑩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 ⑪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⑫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 ⑬ 부가처분 없음
- ⑭ 기타()

※ 다음은 대상자의 보호관찰 이행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과 선생님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문 4. 지난 조사이후 현재까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대상자가 다음의 내용을 얼마나 잘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각 항목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대상자는 보호관찰관과 약속한 날짜에 잘 나온다.	①	②	③	④
2) 이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질문(일상생활 등)에 성실하게 답변한다.	①	②	③	④
3) 이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4) 이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이 전화연락을 하면 잘 받는다.	①	②	③	④

문 5. 보호관찰 담당선생님 성함을 적어주세요.

보호관찰 담당선생님 성함	()
---------------	-----

♣ 설문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

2.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용 심층면접 질문지

학업중단 청소년(보호관찰대상) 심층 면접가이드

사례번호_____ () 보호관찰소

성명_____ 생년월일_____ 성별_____

PART1. 학업상태

○ 현재 학교는 어떤 상태인가? - 복학 / 학업중단지속 / 그 외

[복학해서 계속 다니는 경우]

- 작년 심층면접(7월경) 이후로 복학과 재입학의 경험횟수는?
- 복학했다면 언제?
- 복학을 한 가장 큰 이유는?
- 이전에 다니던 학교로 복학했는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복학했는지?
- 다른 학교로 복학했다면 그 이유는?
- 복학한 학교에서 지내기 어떤지? 적응의 가장 큰 어려움은?
- 교우관계나 선생님과의 관계는?
- 학교를 졸업한 후의 계획은?

[복학해서 다시 중단한 경우]

- 복학 후 다시 학업을 중단했다면 언제?
- 복학 후 다시 중단을 한 가장 큰 이유는?
- 다시 학업을 중단할 때, 전문기관과 상담을 받으면 2주 이상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 (학업중단숙려제)이 있었는지?
- 복학 후 다시 학업중단을 했을 때, 주변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반응은?
- 복학 후 다시 학업을 중단하고 무엇을 했는지?
- 앞으로의 계획은?

[지속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 지속적으로 학업중단 상태라면 심층면접 이후 주로 무엇을 하면서 생활했는지?
- 복학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 복학을 할 가능성은?
- 앞으로의 계획은?

PART2. 생활실태 및 심리상태

- 현재 사는 집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이사했는지?
- 작년 면접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신상에 변화가 있었는지?(가족의 변화, 부모님 직장의 변화, 형제자매의 변화 등)
- 본인이 생각하기에 심리적으로 내가 변한 점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우울하거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는지?
- 작년 면접이후 부모님과의 관계는?
- 작년에 면접 때 친하던 친구들은 아직도 그대로인지?
- 요즘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
- 요즘 주관심사는 무엇인지?
- 근래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는?
- 학업을 중단하고 지낸 시간들이 어떤 것 같은지?(보람? 방황? 후회?)

PART3. 보호관찰 관련

- 보호관찰선생님은 작년 9월 이후부터 그대로인지?
- 바뀌었다면 몇 번이나?
 - 선생님이 바뀌어서 어떤지? 장점과 단점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은지?
- 작년 면접이후 현재까지 보호관찰을 받다가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은 없는지?
 - 있다면 그로 인해 어떤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되었는지?
- 작년 면접이후 현재까지 보호관찰을 받다가 다른 죄(여죄)가 드러난 것은 없는지?
- 본인이 맞거나 돈을 뜯거나 왕따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적은 없는지?
- 작년 면접 때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받았는지?
 - 예시: 경제적 지원/학습·진로 지도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숙소정보 제공/검정고시학
원 교육비 지원 /의료 지원(질병치료, 문신제거 등)/심리상담 지원/부모 또는 보호자
에 대한 교육·상담 지원
- 어떤 프로그램이 좋았거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 앞으로 어떤 지원이나 프로그램을 받고 싶은 것이 있는지?
- 보호관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가장 불만족한 사항은?
-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개선이 되었다고 자평할 수 있는 것은?

Abstract

As a second year research of a three-year longitudinal research on delinquent juvenile school dropouts, this report focuses on understanding their characteristics and presenting supportive measure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research. We have compared the delinquent juvenile school dropouts' changes in their daily lives, psychology, and behaviors one year after they have discontinued school attendance from those of the previous year.

We have conducted surveys and interviews for the research. Among the 220 panel members that were subject to research for the first year, we were able to contact 189 who were still on probation this year, and excluding the 3 who have denied participation, we have conducted survey on the 186 juveniles and analyzed the resul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10 juveniles out of 12 who were subject to research during the first year, 4 adolescents who were reserved for the research, and 2 probation officers.

Once delinquent juveniles discontinue school attendance,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them to return to school and continue with their school education. Survey result showed that most of the adolescents have remained as dropouts from regular middle and high schools. Only 10.8% of the respondents have returned to schools, but 4.9% of them have once again discontinued their school attendance. Many respondents have answered that they have been working either part time or full time jobs during the past year, and many of them have taken the test for Korea's General Equivalency Diploma. It was found out that delinquent juvenile school dropouts spent more time working than studying, and as for the type of information they need after dropping out of school, they were in need of information on vocation and jobs that suited their aptitude. Psychologically, they did not show much difference between the tests conducted during the first year

and the second year, or showed slight improvement. Analyzing the crime types ruled by Probation and Parole Office and the Court, the ratio of violent crimes and traffic crimes out of total showed relative increase, but burglary or larceny and drug related crimes showed dramatic decrease. Studying the juveniles' relationship with their probation officers and their evaluation on the probation program,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stated that their designated probation officers have changed during the past year, and the average frequency of change in probation officers was found to be around twice a year. Most of the juveniles maintained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probation officers, and comparing their responses with those from previous year, their answers turned more positive. Juveniles were using Financial Support for GED Education the most out of all the probation support programs, and their satisfaction rate also recorded the highest for this program.

As delinquent juvenile school dropouts lack opportunities to form social relationships, they have frequently revealed their concerns on their relatively weak social skills. Thus, it seems that activating mentoring programs is necessary to create opportunities for them to meet not only adults but also their peers. In line with the first year research, the second year research found that counseling before school dropout has not been actively utilized, and information on career path has not been delivered well to the juveniles after they have discontinued school attendance. Thus, if schools cannot prevent juveniles from dropping out of school, they should put more effort into providing diverse and accurate information to the juveniles.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
-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 임희진·송병국
-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Ⅱ / 이경상·박선영·조남익
-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정주·김정숙
- 14-R05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조흥식
-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권재기
-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신나민
-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이창훈·강지명
-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송미경
-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정소연
-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조혜영·이태주·이덕난
-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손병덕
- 14-R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유나
- 14-R14-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이호균·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박병식·이석구
- 14-R14-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김희진
- 14-R14-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분석 / 김지경·하헌주·김옥태
-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임영식·김민
-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신현옥·박주희
-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오해섭·맹영임
-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맹영임·문호영
- 14-R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사업보고서 / 이종원·황진구·모상현·정은주·강현철·한영근·허효주·문은옥·이영화
- 14-R18-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Ⅰ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 14-R18-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 14-R18-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허효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 김지영·전영실·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수 시 과 제

-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배규한
-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이진숙
-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방안 / 김희진
-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혜정·임희진
-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중사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수 탁 과 제

-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박창남
-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이상준
-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양계민
-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양계민
-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한·이유진

-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김지연·김정주
-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김혁진·김범구·정다정
-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하지연
-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이종원·김희진
-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이경상
-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강태훈·류성창·변수용
-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김경준
-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오해섭·백혜정·김희진
-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희진·황여정
-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김동일·김태완·윤철경
-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윤철경·최금해·김옥태
- 14-R49 2014년 도래조정사업 / 서정아·김영한·이유진
-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조혜영·김용훈
- 14-R52 신고·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김민
-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 14-R54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왕석순
-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오해섭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Ⅰ (1/6~10)
-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Ⅱ (1/13~17)
- 14-S0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5/8)
-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트러닝의 적용 가능성 (5/26)
-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 추정법 (8/14)
-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 14-S36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8/29)
- 14-S3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 14-S39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 14-S43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1/07)
-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4-62-03
연구보고 14-R19-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인 쇄 2014년 12월 24일

발 행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44-1 94330

979-11-5654-041-0 (세트)